

시로 읽는 성보순례
자신만만 위풍당당
국보 제100호 남계원칠층석탑
고려시대 ▶2면

현대불교

지나간 것을 쫓지 말고
오지않은 것을 바라지 말라.
'지금 여기'를 살아가라.
「중부경전」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6년 단기 4345년(음력 9월 10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911호 2012년 10월 24일 수요일

'부처님 교화공원' 최초 조성

화성 신흥사 10월 21일 점안식 및 준공법회

팔만대장경에 담겨 있는 수많은 부처님의 중생 교화 사례. 그 중 유명한 13장면을 눈앞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도량이 문을 열었다.

화성 신흥사(주지 성일)는 10월 21일 초전법륜 야외법당에서 '부처님 교화공원' 조성불사 점안식과 준공식 봉축법회를 봉행했다.

신흥사 옆의 야산을 공원화 한 '부처님 교화공원'은 2008년 시작해 최근 조성을 마친 대작 불사로 규모만 18,500㎡(5600평)에 이른다.

'부처님 교화공원'은 부처님 초전 법륜부터 제1차 경전 결집까지 총 13장면을 장엄됐다. 13개 일화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11번 등장하며 존자 7분, 교화를 받는 중생 30명으로 구성됐다. 또한 부처님 팔상성도, 〈부모은중경〉도 석판으로 꾸며졌다. 석재는 한국에서 가장 좋은 화강암과 황등석을 썼고, 조성 기간도 2년에 이른다.

'부처님 교화공원'은 시각적 조형물만 아니라 청각적 교육에도 특별히 신경을 썼다. 조성된 석상 앞 안내판에 서면 음향센서가 자동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한 경전의 법문이 장엄한 음악과 함께 흘러나온다. 법문 녹음은 유명 성우인 박일 씨가 맡았다.

이 같은 시·청각의 조화는 40년 어린이 포교에 매진해 온 신흥사 주지 성일 스님의 아이디어다.

건립 취지에 대해 성일 스님은 "요즘 아이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예전과는 달리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줘도 30분 이상 집중하지 못한다"며 "갇힌 공간이 아닌 열린 공간에서 재미있게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게 하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교화공원 건립이 생각이 났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조성된 '부처님 교화공원'은 규모만큼이나 재원도 44억원이 투입된 대작불사다. 공사 전반의 설계와 공사 진행, 감리는 동국대 사찰조경연구소에서 맡았다. 동국대 사찰조경연구소는 친환경적인 면을 최대한 부각시켰다. 태양광을 이용한 인등, 조명등을 설치했고 공원의 길은 황토로 조성했다. 또한 부처님께 올리는 헌화의 의미를 담아 봄, 여름, 가을 야생화로 조경했다.

이에 대해 홍광표 동국대 사찰조경연구소장은 "사찰의 경관과 최대한 어우러질 수 있도록 공원을 설계했다"며 "친환경적인 태양광 에너지와 황토를 사용해 부처님의 생명평화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교화 일화 13개 석상 조성
4년여 불사… 44억원 투입
'친환경' 태양광 조명 사용

이어 "공원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21일 열린 준공법회에서는 점안식을 비롯해 ▷전도부촉 시연 ▷사찰음식 시연회 ▷마가 스님 자비 명상 등이 진행됐다.

이와함께 성일 스님은 관련내용을 담은 책 〈붓다 콘서트〉를 발간해 법회 참석자들에게 배포했다.



화성 신흥사가 5600평 규모로 조성한 '부처님 교화공원'에는 부처님 교화 일대기 중 13개의 주요 장면을 석상으로 꾸몄다. 또한 청각 자료를 활용해 당시 상황을 경전의 법문과 음악으로 전한다. 사진은 부처님이 어린 라훌라를 교화하는 모습.

글=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사진=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관련 기사 5면

세종신도시 불교 포교 '준비 중'

조계종, 종교용지 협의 중… 거점 사찰 활용 계획

올해 9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행정복합도시 세종시에 조계종 신도시 포교 거점 사찰이 생길 전망이다.

본지 확인 결과 조계종 총무원은 올해 초 서울 일선 사찰이 소유한 세종시 종교용지를 양도 받아 현재 사찰 건립을 위한 부지 선정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계종이 양도 받은 부지는 '협의양도' 종교용지로 분류되며, 부지 선정에 있어 1순위를 배정받았다. 부지 규모는 2,145㎡(650평)이다. 현재 한국토지공사를 통해 분양 공고된 종교용지는 총 41필지로 총 13필지가 분양됐다.

조계종 종책특보 신도시 담당 허운 스님은 "현 집행부는 시작부터 신도시 포교를 위한 준비를 꾸준히 하고 있었다"며 "현재 나온 세종시 종교용지는 사찰에게는 맞지 않아 1, 2차 분양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현재 부지 선정을 위한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스님은 "세종시 입주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 세밀한 도시계획이 수립된 것은 아니다"라며 "신도시 포교는 급히 준비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천㎡규모 협의양도 부지
"랜드마크 사찰로 키울 것"
정부, 종교부지 지정화 필요

세종시에 건립될 사찰은 인근 지역 교구본사들과 협의를 거쳐 종단 차원의 포교 거점 사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종시를 대표할 '랜드마크' 사찰로 자리매김하게 할 방침이다.

허운 스님은 "개신교식 물량공세를 따라갈 필요가 없다. 최적의 부지에 지역을 대표할 만한 거점 사찰을 여법하게 건립할 계획"이라며 "송파 신도시 등의 종교용지도 분양을 준비 중에 있다. 신도시 포교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는 만큼 종단 집행부도 이에 대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지 선정에 어려운 점도 존재한다. 한국토지공사가 분양하는 토지들이 대부분 사찰과는 맞지 않은 경우들이 많고, 공개 입찰로 인해 일부 종교가 부지를 독식하는 폐해가 있어서다. 그래서 신도시 종교부지를 도시 계획에 맞춰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재무국장 설암 스님은 "대부분의 종교단체가 재정적으로 풍족하지 못하다. 그런 와중에 이를 경쟁체제로 내모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도시 계획에 맞춰 모든 종교가 합리적이고 조화롭게 포교·신행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화엄사 각황전 방화용의자 검거

제적된 前 태고종 소속 승려

국보 제67호 구례 화엄사 각황전 방화 용의자가 붙잡혔다. 구례경찰서는 화엄사 각황전에 불을 내려 한 승려 이모씨(45)를 공용건조물 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월 14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30분쯤 각황전 뒤쪽 문에 불을 붙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붙잡힌 이 씨는 법명이 현각으로, 강원 인제군을 주소로 두고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태고종 소속 승려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는 제적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는 전남 순천에서 휘발유 4ℓ를 사 소주병에 담아가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으며,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떳떳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또한 10월 4일 새벽에도 술을 마시고 광주 동구의 한 암자에 들어가 탱화에 불을 지르고 불상을 부순 것으로 알려졌다.

신중일 기자

911호 INDEX

종합 2·3
총림지정 어떻게 봐야하나
템플스테이 10년 향후 계획
평양에 불교회관 건립추진
불산 사태 구미 현장 위문

시방세계 5
화성 신흥사 부처님 교화공원



화엄 만다라 16·17
박광서 서강대 교수



초대합니다

창간 18주년 산사의 별미 체험

불교의 수행 정신이 담긴 사찰음식은 소박한 재료로 자연의 풍미를 그대로 살린 건강식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에 현대불교신문사는 창간 18주년을 맞아 서울 은평구 진관사와 공동으로 사찰음식을 직접 만들며 시식할 수 있는 '산사의 별미 체험기행'을 마련했습니다. 장소와 실습 공간이 한정된 관계로 창간 18주년에 맞춰 18분만 선착순으로 초대합니다. 사찰기행을 겸한 이번 행사에 독자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일 시 : 10월 27일 오전 10시
▲장 소 : 서울 은평구 진관동 354 진관사
▲내 용 : 사찰음식 실습 및 별미 체험
▲접수마감 : 10월 24일(선착순 마감)
▲신청접수 : (02)2004-8212
▲참 가 비 : 3만원
▲계 좌 : 국민은행 245-25-0001-461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 법공양
ARS 후원
060-700-1080

"무료 불교CD, 알고보니 목사 설교"

봉은사 일요법회서 개신교인 배포해 '충격'

서울 봉은사 경내에서 목사 설교를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는 선교행위가 일어나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 홍보물은 불교CD로 가장한 개신교 홍보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봉은사는 "10월 14일 오전 개신교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봉은사 진여문 안팎에서 무료 불교CD로 위장한 목사 설교물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부처님 계신 곳 좋은 만남'이라고 붙여진 이 홍보물 겉모습은 영락없는 불교CD. 종무원들과 불자들도 의심없이 이를 받았다.

특히 이날 봉은사는 개산대제를 앞두고 각종 행사로 분주한 상황이었다. CD에는 신성종 충현교회 전 담임목사의 설교가 담겨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봉은사 종무원들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나섰을 때는 이미 배포자는 사라진 뒤였다.

설교 내용도 충격적이다. 신성종 목사는 설교에서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지옥에 간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다. 부모나 친척들에게 전도하라"며 "지옥에 석가모니도 있고, 마호메트도 있으며, 공자님도 지옥에 있었다. 유명한 스님 등 소위 도를 닦았던 성직자들도 많이 있다. 종교를 이용해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존경을 받은 교황과 신부, 승려, 어떤 목사들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봉은사 측은 "2010년 봉은사 땅밟기 사건에 이어 이런 지능적인 선교활동이 펼쳐져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경내 선교활동에 대해 엄중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수험생들에게



진실한 자기의 자성(自性) 부처님이 바로 자기의 보디가드

"나를 지키는 보디가드가 항상 나한테 있다는 것을 그대로 믿고 행하십시오.
무슨 고난이 있을 때도 그 깊은 속마음에 한번 굴려서 내놓으면
불안이 없어지고 침착해지고 겸손해지고 경솔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굴리느냐
'한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바꿔 나갈 수 있게 하는 것도
주인공 바로 너뿐이야' 하고 그대로 믿고 활용을 하고 밀고 넘어가세요.
주인공 보디가드가 바로 진실한 자기의 자성(自性) 부처님입니다."

- 대행 큰스님 법어 -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www.hanmaum.org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100호 남계원칠층석탑



자신만만 위풍당당

김 신 영

하늘을 향한 높은 탑신을 따라
중생도 기원의 탑을 쌓아 탑신부를 든다
비바람 흩어진 존재의 유무에
한 층 한 층 기단을 높여가던 처처의 발원
국보 100호 고려의 웅건한 기풍
정갈한 기단과 탑신에 서린 정제
처마를 따라가니 유연한 선에 이어 추켜올린
자신만만한 위풍당당이 장엄하다
노반과 복발이 일치한 묘법
일체로 합치 이룬 통일체
간절한 기원을 부르는 탑신부를 돌면
두툼한 지붕돌로 안심을 낳고
밋밋한 곡선에서 평화를 누리고
치켜 올린 귀퉁이에서 통일체의 몸을 얻어
고려의 발원은 하늘로 오른다
깊이 울리어 하늘을 움직이는
간절한 기원 남계원 칠층석탑
번영하고 혜량하는 고려 국보는
500년 고려의 기풍 빼곡이 담겨
보국안녕 극락왕생 무병장수
기단을 높인 처처의 발원
남계원에 우뚝 솟아오르다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中에서

김신영 시인은… 충북 중원 출생. 1994년 〈동서문학〉으로 등단. 시집 〈화려한 망사버섯의 정원〉, 〈불혹의 묵시록〉등.

"대중공의 형식 보완해 총림 추진해야"

교구본사 총림 추진 어떻게 봐야 하나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 제13교구본사 쌍계사, 14교구본사 범어사가 총림 설립을 추진한다. 제5교구 법주사도 문도 운영위원회와 교구종회를 통해 총림 설립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무려 4개의 본사가 총림 지정을 위해 뛰고 있는 것이다.

동화사, 쌍계사, 범어사는 가장 먼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세 사찰이 모두 10월 16일 총무원에 총림 지정을 신청했고, 19일 총무원 종무회의에서 정기중앙종회에 송부할 것을 결의했기 때문이다.

다만, 염불원 설치,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이 미비해 2년 안에 관련 시설을 보완한다는 단서 조항을 제시했다. 이로써 동화사, 쌍계사와 범어사의 총림 지정은 11월 1일 개회하는 제192회 정기중앙종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됐다.

실제 총림 지정을 위한 이들 사찰들의 움직임은 분주하다. 동화사는 내년 율학승가대학원 개원을 앞두고 있으며, 범어사는 11월 개원을 목표로 최근 승가율원 현판식을 가졌다.

쌍계사 역시 경내 염불원 건립불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산내 암자 국사암에 율학승가대학을 설치할 계획이다.

동화·쌍계·범어사 총림화 추진
신청서 접수… 종무회의 통과
종합수도원 조성 '긍정 효과'
1인 권한 집중… 견제장치 필요

총림 지정을 준비 중인 교구본사 주지스님을 비롯한 교계 여론은 비교적 긍정적이다. 종합수행도량인 총림이 확대되면 종단 수행문화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10월 1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격과 제적승 규모가 큰 본사에서 총림을 추진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동화사의 경우 금당선원을 비롯해 9곳의 선원과 파계사 율원 등 8곳의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총림으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설명했다.

총림 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법주사 주지 현조 스님도 "10년 전부터 총림 설치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다. 종단 방침과 내부적 요구가 같이 맞물린 것"이라며 "법주사의 사격에 맞춰 총림 지정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종단 수행문화 증진 등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되지만, 방장 스님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총림 운영 권한에 대해서는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규정된 총림법은 방장은 총림을 대표하며 대중수행을 지도·감독한다.

또한 수좌, 선원장, 율주, 염불원장 등 총림 주요 소임에 대한 추천과 임명권도 가진다. 대다수의 인사와 종무 행정 권한이 방장 스님에게 집중돼 있는 것이다.

인덕과 명망을 가진 인물이 방장 스님으로 주석할 경우 크게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내부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실제 통도사에서는 주지 재임을 위해 방장 교체를 시도하기도 했으며, 최근 백양사는 방장 스님 입적 후 생긴 갈등으로 불교계 전체 명예를 실추한 사건도 발생했다.

이에 대해 한 교구본사 주지 스님은 "임회가 견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하는 데 현재 총림법에는 견제장치가 거의 없다. 총림 지정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 지는 것은 환영할만 한 일이지만 총림법 개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무원 관계자도 "쇄신위원회 차원에서 총림법 개정을 위한 좌담회를 준비 중에 있다"며 "총림의 대중공의를 모으는 방식에 변화를 주는 데 주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禪과 대승불교 이타행은 '不二'"

교육원, 종단 출범 50주년 교수 아사리 세미나

종단 출범 50주년에 맞춰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찾아보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10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종단 출범 50주년 교수 아사리 세미나'를 열고 ▷대승불교 ▷계율과 윤리 ▷선불교 ▷초기불교 ▷참여불교 부문에서의 한국불교가 나아갈 길을 살폈다.

이날 세미나에서 혜명 스님은 선의 가치와 대승불교의 이타행을 주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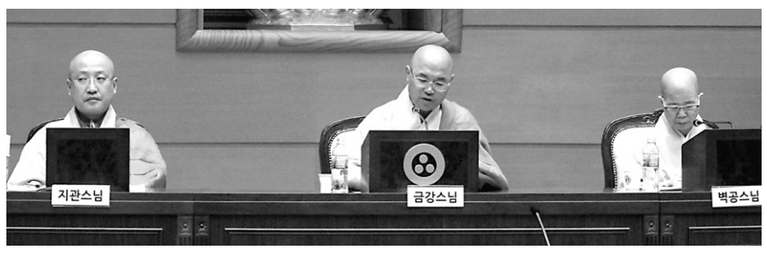
스님은 "통합종단 출범 후 50년 동안 종단은 지혜와 보살의 자비를 구현하는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다"며 "승가교육과 포교, 역경, 사회 참여 부문에 걸쳐 이 같은 작업이 이뤄져왔다"고 강조했다.

혜명 스님은 "승가교육에서 대승불교의 자비정신을 가르치고 포교와 사회 참여를 통해 보살도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며 "통합종단의 선의 가치와 대승불교의 이타행으로 문제점을 보완한다면 새로운 역사 구현의 주체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현스님은 '종단 출범 50주년과 한국불교 계율의식의 재고' 제하의 발제문을 통해 "계율은 단순히 제도를 넘어 승가정신의 중심축을 담당한다. 이런 점에서 계율의 붕괴는 한국불교 전통의 계승과 관련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계율의 시대적 한계를 말하기 전에 과거의 계율을 이 시대에 어떻게 수용하고 변화할 것인지 보다 진지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월호 스님은 '선불교의 눈으로 본 오늘의 한국불교'를 통해 전통 선수행을 살리면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한 다른 수행까지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금강스님은 '불교의 사회참여와 조계종단 50년'에서 수행문화를 통한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제안했다.

신중일 기자



조계종 교육원은 10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종단 출범 50주년 교수 아사리 세미나'를 열고 한국불교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경허 선사 열반 100주년 추모탑 건립

27일 서산 천장암서 제막식… 청정한 가르침·깨달음 상징

한국 불교의 중흥조 경허 선사가 견성 후 보임하고 18년간 주석했던 서산 천장암(회주 옹산)에서 10월 27일 오후 2시 경허 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식 및 추모 기념탑 제막식이 개최된다.

기념탑은 화강암 사각형 기둥에 연꽃봉오리를 얹어놓은 모양으로, 사각형은 사성제의 진리를, 연꽃은 선사의 청정한 가르침과 깨달음을 상징하며, 또 각 면에는 선사의 열반송과 일원상을 새겨 놓았다.

천장암은 경허 선사는 물론 수월, 혜월, 만공 선사도 출가 득도한 수계도량으로 현재 경허 선사가 주석하면서 정진한 1평 남짓한 수행공간이 옛 모습 그대로 보존돼 있다.

기념탑 건립추진위원장 옹산 스님은 "대선사의 끝없는 정진행과 정신은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허 선사 열반 100주년 추모 기념탑 모습.

경허선사열반100주년기념사업회는 이날 '경허 선사의 생애와 선사상'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前 서울대 명예교수인 최병헌 박사가 '한국불교사에서의 경허 선사 위상'을, 이종찬 동국대 명예교수가 '경허 선사의 선시'를, 이은윤 前 금강불교신문 사장이 '경허 선사의 일화에 담긴 선지'를, 허유 한서대 교수가 '경허 선사의 풍류'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제192회 조계종 중앙종회 정기회 11월 1일 개회

제192회 조계종 중앙종회 정기회가 오는 11월 1일 열린다.

중앙종회(의장 보선)는 10월 13일자로 '제192회 중앙종회 정기회 집회 공고'를 내고 정기종회를 11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15일간의 회기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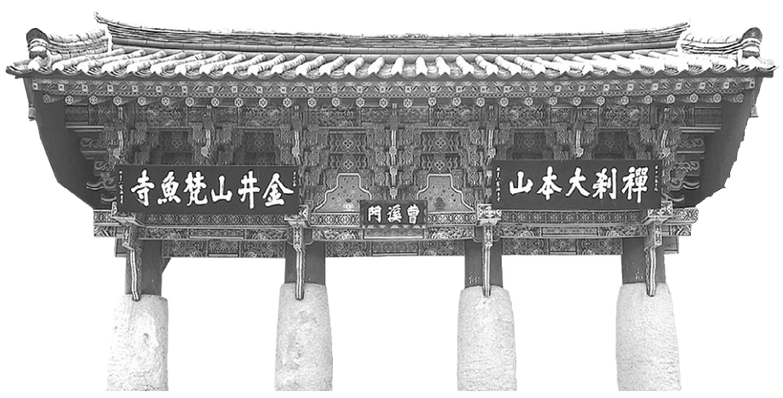
이번 정기종회에서는 하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게 되며 2013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원로회의가 부결한 '종헌' 개정안을 비롯한 종법 제·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다. 의안은 25일, 종책질의는 27일까지 접수 받는다.

신중일 기자

선찰대본산 범어사 동산 경원(經院) 개설

불기 2556년 동안거결제 경원 대중모집

禪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敎는 부처님의 말씀이며, 律은 부처님의 행위라고 했습니다. 禪·敎·律의 3개의 다리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불교라는 큰 솥을 2600여년 동안 떠받쳐 왔으며, 한국불교의 저변에 면면히 흐르는 통섭과 융합의 문화는 定慧雙修와 禪敎不二를 통하여 1700년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禪院의 결제와 더불어 經院의 결제가 이루어진다면 불법 수레의 두 바퀴가 될 것이요, 불교 새의 양 날개가 될 것입니다. 금번 범어사에서는 동산 경원을 개설하고 매 안거기간마다 단일 경전강독을 원칙으로 경전 한편을 선택하여 그에 정통한 법사스님을 모시고 결제기간 중 수선실참과 경학연구에 매진할 경원 대중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2년도 동안거 경원 과정 안내

연찬과목 선문촬요
교 수 사 홍선, 무비, 지오, 용학 외 초빙교수
기 간 불기2556(2012)년 동안거 (2012년 11월 28일 ~ 2013년 2월 24일)
모집인원 안거학인 00명
응시자격 법납 5년이상의 비구
제출서류 입방원서(본 원 소정양식) ····· 1부
수행이력서 ····· 1부
승려증 사본 ····· 1부
기본교육기관 졸업증명서 ····· 1부
건강진단서(보건소 제외) ····· 1부
반명함판 사진(3.5×4.5) ····· 3매

원서교부 범어사 동산 경원, 범어사종무소, 범어사 홈페이지(www.beomeo.kr)
원서접수 범어사 종무소
접수기간 2012년 10월 29일(월) ~ 11월 1일(목) (음력 9월 15일 ~ 18일)
전형방법 사정위원회의 서류심사, 면접
전형일시 2012년 11월 2일(금) 오후 2시 (음력 9월 19일)
문 의 범어사 종무소 051)508-3122 (우) 609-811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546번지

범어사 동산 경원 원장 무비

“템플스테이, 새로운 전기 열겠다”

문화사업단, 17일 기자회견… 향후 발전 계획 밝혀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템플스테이가 새로운 10년을 위한 포문을 열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법진)은 이를 위한 기념행사들도 잇달아 개최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10월 17일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에서 10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성과와 과제, 향후 계획들을 발표했다.

사업단은 10주년을 맞아 앞으로는 템플스테이를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한 습관으로 생활화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새로운 슬로건 ‘나를 위한 행복한 습관’을 제시했다. 지난 10년간 템플스테이는 ‘참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 주요 슬로건이었다.

단장 법진 스님은 “요즘 외유를 할 일이 많이 생겨 외국에 나가면 모두들 템플스테이를 한국 대표 브랜드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다”며 “앞으로는 내국인, 외국인, 학생, 직장인 등 수요자를 중심으로 템플스테이 브랜딩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과 사회를 위한 공익적 역할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사업단은 템플스테이 성과와 과제, 향후 계획들을 제시했다. 사업단은 템플스테이 10년의 주요 성과로 ▷21세기 체험관광 트렌드 창출 ▷웰빙, 심신치유, 자아성찰 등 정신문화 아이콘으로의 부상 ▷사회적 소통문화의 형성 ▷한류관광의 새로운 성장 동력 ▷국내 여가문화의 선도 등을 꼽았다.

또한 과제로는 휴식과 성찰을 넘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외국인 참가자 수요에

수요자 맞춤 브랜드로
사회통합적 가치 확대
외국인 전용 사찰 설치
해외 관광객 유치 나서

맞춰 ‘K-힐링’으로 상품화 할 수 있는 한류관광 컨텐츠 강화 등이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템플스테이 시즌2’의 목표도 이 같은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단이 수립한 ‘템플스테이 시즌 2’ 핵심 가치는 여가문화, 전통문화, 사회공익 등이다. 또한 새로운 문화수요 창출을 위한 브랜드 개발, 개인과 사회의 갈등 해소 역할 강화



템플스테이 10주년 엠블렘

를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도 수립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계층의 요구를 반영한 브랜드 확장 ▷참가자의 유형과 특성에 맞춘 세분화 된 프로그램 개발 ▷템플스테이 운영인력의 안정화 및 사찰별 프로그램의 체계화 ▷외국인 운영 사찰을 중심으로 한 특화 프로그램 및 전담인력 관리 ▷참가자 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홍보 · 마케팅 체계 수립 및 운영 등을 중장기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단은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다채로운 사업들을 전개한다. 문화사업단은 10월 31일 오후 4시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템플스테이 10주년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며 10월 31일부터 12월 2일까지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에서는 템플스테이 10년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록전시전이 열린다.

또 10월 31일부터 11월 12일까지 템플스테이 10년 역사를 압축적으로 표현한 현대미술작가들의 초대전 ‘나를 위한 행복, 스마일 展’을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개최한다.

10주년을 기념하는 음반도 발매된다. 음반에는 ‘다시 만날 때까지’라는 제목의 노래가 담기며 루시드 폴이 작사와 작곡을 노래는 인기 가수 이효리가 불렀다.

한편, 2002년 한 · 일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해 도입된 템플스테이는 매년 참가자가 30% 이상 증가하며 성장했다. 2009년 OECD는 ‘성공적인 5대 세계 문화 관광 상품’ 중 하나로 템플스테이를 선정하기도 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사 앞 대형 호텔 건립 철회하라

법응 스님, 삼성 소유 호텔 건립 반대 성명서

서울 종로 조계사 앞에 삼성 소유 호텔이 건립되는데 대해 불교계의 첫 반대입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 법응 스님은 10월 1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조계사 맞은편에 건립 중인 삼성그룹 소유 호텔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법응 스님은 성명서에서 “삼성이 조계사 코앞 1,700여 평의 대지위에 15층에서 20층 규모의 대형호텔을 신축할 것이라는 계획이 최근 사실로 확인됐다”며 “역사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과 상식을 갖추고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삼성이란 굴지의 대기업에서 조계사, 인사동 지역에 대형호텔을 건축해서 운영한다는 발상 따위는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조계사, 인사동 일대는 가시적인 담장이 없을 뿐이지 보호지역으로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묵시적 마음의 경계가 있는 지역”이라며 “문화적 양심과 사회적 책임이 있는 경영자라면 결코 고층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 삼성이 이 지역에서의 호텔 신축을 없던 일로 하기를 바란다”고 호텔 건립 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관련 칼럼 31면

“평양에 불교회관 건립하자”

민추본–조불련 교류활성화 방안 논의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스님, 이하 민추본)는 조선불교련맹 중앙위원회(위원장 심상진)와 실무회담을 갖고 남북 불교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10월 16~17일 양일간 중국 심양에서 열린 회담에서는 향후 남북 관계 개선을 전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는 민추본 본부장 지홍스님, 조계종 사회국장 묘장 스님 등이 참여했으며, 북측은 조불련 중앙위원회 리규룡 서기장, 차금철 부장 등이 참석했다. 회담에서는 ▷평양 지역 불교유적 발굴 · 복원 사업 추진 및 보건복지시설 포함한(가칭) 평양불교회관건립 추진 ▷내금강 불교유적 공동조사를 시작으로 북한불교문화재 공동전수조사 추진 ▷남북불교 동질성 회복을 위한 의례통합 및 교류 추진 ▷역사적, 지리적 연관성에 기초한 남북 사찰 간 교류협력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


민추본과 조불련 관계자들은 10월 16~17일 중국 심양에서 교류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민추본은 “이번 실무회담은 그간 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추진할 사업을 남과 북이 미리 구상하고 대비하는 차원의 정책토론이었다. 이를 토대로 향후 남북 관계가 원만해졌을 때 구체적인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초석을 다지는 자리가 되었다”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방글라데시에 종교평화를” 강력 촉구

이주민 비대위, 19일 기자회견

지난 9월 23일 방글라데시 이슬람교인들에 의해 사찰 및 불교도 주택 방화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한국에서 생활하는 방글라데시 이주민 및 불교계가 ‘종교평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방글라데시 종교평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10월 19일 서울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23일 발생한 사건으로 동자승 1명이 사망하고 막대한 손실을 입었지만, 소수민족 · 소수종교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조사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우리 자녀가 이런 상황에서 자라야 한다는 사실이다. 한국 불자 및 단체들이 힘을 합쳐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주민들은 비대위 결성 이전인 10월 3일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진데 이어 10월 6일부터 매주 토요일 조계사 앞에서 방글라데시 종교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가져왔다.

비대위는 앞으로 ▷방글라데시 정부 및 한국 관련기관에 성명서 및 관련 자료 제출 ▷현지 피해상황 조사 ▷현지 지원안 수립 등을 진행할 계획이며, 불교를 넘어 국민적 관심과 동참 유도를 위해 28일 오후 4시 서울역 광장에서 ‘방글라데시 종교평화를 위한 평화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조계종 1억원 들여 석보체 개발

2013년 한글날 발표 예정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가 전통불교문화서체 석보체 개발를 추진한다. 석보체는 2013년 3월 사용빈도수가 높은 2,350자를 완성 부처님오신날 디자인가이드에 반영한다. 이후 7월경 11,172 글자 개발이 완료되면 내부 테스트를 거친 후 2013년 10월 9일 한글날 대외적으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석보체’ 개발은 전통문화서체 개발의 첫 번째 사업으로, 한글로 만든 최초 금속 활자본 〈석보상절〉을 복원해 현대적으로 재탄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계종은 향후 국고 등의 예산확보를 통해 능엄경, 금강경, 천수경 등 언해본을 순차적으로 서체로 개발할 계획이다.

조계종은 “전통불교문화서체 개발은 전통문화 원형을 토대로 새로운 콘텐츠를 재탄생시키고 하는데 그 의의 가 있다. 보다 실용적인 콘텐츠 개발을 통해 문화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구미 불산 사태에 관심 가져달라”

자승 스님 구미 지역 위로 방문
환경위, 정부 비판 성명 발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0월 18일 구미 불산 피해자를 위문하고 1000만원 상당의 생활 필수품을 전달했다.

불교계가 구미 불산 사태 지원과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0월 18일 경북 구미시 선동면 환경자원화시설과 해평면 청소년수련원을 차례로 방문해 피해주민들을 위로하고 생수 ‘감로수’와 김, 국수 등 1000만원 상당의 생활 필수품을 전달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불의의 사고로 심신의 고통이 크리라 생각됩니다. 하루속히 문제가 해결돼 집으로 건강히 돌아가기를 기원한다”며 피해 주민들의 손을 잡으며 위로의 뜻을 전했다.

피해 주민들은 “농작물 뿐만 아니라 참새들도 여기저기 죽어있다. 정부는 지금 당장 대기상태에 문제없고 건강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만 한다”며 “근본적인 원인규명과 확실한 피해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위로방문에는 호계원장 법등 스님, 8교구 본사 직지사 주지 성웅 스님이 함께 했으며, 직지사도 별도로 500만원의 성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10월 1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구미 불산 유출 사태가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불러온 대형 인재라고 비판했다.

환경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노동자와 주민들이 맹독성 가스에 그대로 노출되는 등 불산가스 유출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사고로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고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사과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들의 건강을 보장하고, 피해보상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108인 불교계 고승 및 원로 선정
WORLD BUDDHISM LEADER

나라와 종단 어느 승가를 불문하고 전 세계 모두가 공감하고 찬성하고 모시고자 하며 불교국 승가 종정들이
역시 그 분이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존경받는 불교의 최고 어른을 선정하여 모시고자 준비하는

세계 법왕 및 승왕 추대 추진위원회 세계 불교 지도자 500인 선정 발기 협의회
1차 108인 불교계 고승 및 원로 선정

(종사, 대종사 급만 동참 가능)

법하께서도 추진위원회 발기인으로 활동하시겠습니까?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를 보내주십시오

심사후 우선 세계불교와 한국 불교 승가 정화 차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출가 의식을 초발심의 행자로 돌아가
1주일간 종단불문, 법납, 속납까지 불문하여 남방불교의 종정 및 부종정 스님들의 지도하에 종정스님의 사찰에
입소하여 단기수행을 완료한 스님 중에 우선 108명의 원로 및 증진 비구를 모시게 됩니다 새롭게 거듭나는 승가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한국 불교의대 변화와 개혁을 이루는 초석이 되어 보십시오.
한평생 부처님의 은덕으로 수행해온 큰스님들께서 앞당겨 후학들에게 무언의 가르침을 행으로 보여 주신다면
한국 불교사에 새로운 역사와 기운이 샘솟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분들만이
추대위원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고승 및 증진 스님들께서 500인 추대위원을 심사 위촉하게 됩니다

신청기간 : 2012년 12월 15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
서 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접 수 처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국제불교 지도자 협회

출발일시 : 2013년 2월 28일(음력 정월 19일) 6박 7일간 소승불교 체험 수련 정진
법납, 속납 일체 불문하고 대우 및 예우 일체 없음

미얀마 연방 승가회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추진 집행위원장 大僧正 – 木鐸 慧恩
전화 : 02-733-5665.5670 011-229-6061 팩스 733-5671

불교 승단 품수 의식 공고

귀의 삼보하옵고,
불교 정법 수호의 깊은 의지로 지탄과 격려를 받으며 희생할 각오로 소승 목탁 글월 드리립니다.
한국 불교계에는 300여 종단이 있습니다. 종정스님 그리고 총무원장 스님 각 원장들 그분들의
명칭이 하나같이 대종사, 종사입니다. 아니 어찌보면 모두가 대종사요. 너도나도 대종사 종사이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 불교계에서는 거의 대부분 별 위식과 고시가 없이 종헌 종법에 의거하여
품수를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우리들에게도 정리가 되고 조금은 걸러서 그래도
부처님 전에 부끄럽지는 안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동안 종단을 불문하고 스님들께 미얀마 연방 승가회
원로 및 부종정 스님들을 3증 칠사와 은 계사로 모시고 500여 스님들의 축하속에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에
따라 떳떳하고 자랑스런 구족계 의식을 봉행하여 왔습니다. 생각의외로 좋은 반응을 받고 있기에 자부심과 긍지를 느낍니다.
미얀마 연방 승가회와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에서는 2013년 2월 28일 ~ 3월 7일에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 속에 봉행되는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좋은 인연을 맺어 부처님의 가피 속에 정진하는 출가승으로 다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大僧正 목탁 혜은 합장

국제 포교사 자격 고시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새

구족계 자격자
1. 구족계 자격 : 한국의 모든 종단 소속 비구 스님
2. 법납이 많고 적고를 불문하고 출가승에 한함
3. 30명 한정 선착순 접수

종사 대종사 품수식
1. 법납 25년 이상 : 종사 2. 법납 30년 이상 : 대종사
※ 1차 서류 심사 후 면접 2차 : 심의의원회
최종심사 스님들께 품수 인증서 및 패 세계 불교 지도자들이
수여하는 국제 불교 지도자 포교 공로 훈장 수여

구족계 수계자 전원 부종정 스님 사찰에 입소
수행 결사 (위빠사나, 발우공양 예불의식) 체험 후
구족계 봉행 남방불교 전통의 불명 수여

일시 : 2013년 2월 28일~3월 7일까지 (1주일간)
봉행 행사 이후 한국에서 재 추대행사 계획

2013년 4월 16일
롯데호텔 사파이어룸 의식 봉행 및 연예인 축하 공연

전화 : 02-733-5665.5670 011-229-6061 팩스 733-5671

일 주 문



진기66년도 추기스승강공

진각종 총인 성초 정사는 10월 18~19일 서울 진각종 총인원에서 추기스승강공을 봉행했다.



신묘장구대다라니 30일 기도

서울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은 11월 1일부터 신묘장구대다라니 30일 기도에 입재한다.



불교문화둘레길 기획전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11월 11일까지 월정사 성보박물관에서 불교문화둘레길 만들기 기획전을 개최한다.



관조 스님 특별전 열어

부산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은 10월 26일부터 11월 11일까지 범어사 성보박물관에서 관조 스님이 기증한 작품사진 특별전을 개최한다.



코레일 명예역장 위촉

장성 백양사 주지 진우 스님은 10월 17일 코레일 광주본부로 부터 명예역장에 위촉돼 이날 역무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FDC법제학회 국제조화상 수상

김성민 동국대 의생명공학과 교수는 10월 12일 (사)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 국제조화상을 수상했다.



안중근의사 의거 103주년 기념식

민성진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회장은 10월 26일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안중근 의거일' 103주년 기념식과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문학타임 작가상 수상

부산여성불자회 왕선자 회장이 시집 '우바이 별곡(別曲)' 으로 '제1회 문화와 문학타임 작가상' 을 수상했다.

〈인사〉 전통불교문화원 국장 현중 스님 임명



조계종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 국장에 현중 스님이 임명됐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0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전통불교문화원 국장 현중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1997년 직지사에서 성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현중 스님은 중앙승가대학교를 졸업했으며, 태화선원 등에서 안거를 성만했다.

신중일 기자

"문도화합으로 청담 스님 유지 계승"

혜성 스님 청담문도회 문장, 현성 스님 도선사 조실 추대



10월 15일 열린 청담문도회 문장 및 도선사 조실 추대법회. 앞열 오른쪽이 이날 추대받은 청담문도회 문장 혜성 스님, 왼쪽이 도선사 조실 현성 스님

수행가풍과 청년 포교 등 한국불교 근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조계종 원로 혜성 스님과 현성 스님이 청담문도회 문장과 도선사 조실로 각각 추대됐다.

도선사 청담문도회는 10월 15일 서울 도선사에서 추대법회를 열고 문도회 문장(門長)으로 혜성 스님, 조실(祖室)로 현성 스님을 추대했다.

이날 법회에는 청담장학재단이사장 동광 스님 등 청담문도회 문도 스님들을 비롯해 前 동국대 교수 법산스님, 불교인권위원장 진관스님 등 사부대중 3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도선사 주지 선묵 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혜성 스님과 현성 스님은 사율에 밝고 수행 외길을 오롯이 걸어오신 수행자의 표상"이라며 "사부대중은 두 어른스님을 중심으로 원융산림을 완성하고 청담대종사의 종지종풍을 더욱 굳건히 하자"고 당부했다.

추도사에 이어 선묵 스님은 혜성 스님과 현성 스님에게 불자를 올렸다.

청담문도회 문장으로 추대된 혜성 스님은 "청담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더욱 발전시키고 단합해 문중이 빛내야 한다"며 "문도화합을 이끄는 문장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선사 조실로 추대된 현성 스님도 "도선사는 청담스님의 제자들과 불자들의 노력으로 현재의 모습을 이룰 수 있었다"면서 "문장 스님과 함께 가람수호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혜성 스님은 청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57년 동산스님을 계사로 조계사에서 사미계, 1962년 동산스님을 계사로 범어사에서 비구계를 각각 수지했다. 40여년 간 서울 도선사 주지, 회주로 이끌었으며 중앙승가대학 학장, 제3·10대 중앙종회의원, 봉은사 회주, 불교TV 이사 등을 지냈다. 현재 청담종합사회복지관장 등을 맡고 있다.

현성 스님은 서울 선학원에서 청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65년 부산 선암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보살계와 비구계를 수지했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총무부장, 교무부장, 제 4·5·6·8대 중앙종회의원, 도선사 주지, 청담학원 이사장,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장, 동국대 이사, 중앙승가대 총장,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 현성정사에 주석하며 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 총재 등을 맡고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프랑스 지금은 한류가 대세"

파리 7대학 얀익 한국학 학과장 예방



"프랑스에서 지금 한국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한국학과 불교에 대한 관심도 부쩍 높아진 상태입니다."

10월 16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한 프랑스 파리7대학 한국학 학과장 얀익〈사진〉 교수가 힘줘 말한 내용이다.

이날 예방 자리는 지난해 자승 스님의 프랑스 방문 당시 맺어진 인연으로 이뤄졌다. 얀익 교수는 10월 18~19일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이 주최하는 제5회 규장각 국제심포지엄 '한국이 본 중국, 중국이 본 한국' 에 발표자로 한국을 찾았다. 파리7대학은 8대학과 함께 종교와 문화 등 인문학을 담당하는 대학이다.

얀익 교수는 "최근 파리대학에서도 한국학 학생이 200명, 동아시아 학을 포함하면 500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수업을 수강하고 있다"며 "늘어나는 학생들에 학과장으로서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자승 스님은 "특히 한국에 대한 연구가 유럽에서도 활발히 이어져 한국과 한국불교를 알리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격려했다. 이어 자승 스님은 "파리대학 한국학 학생들을 한국으로 초청하고 싶다"며 "그들이 템플스테이를 통해 불교를 체험하고 한국상황을 둘러본다면 느낀 점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얀익 교수는 자신과 관련 학자들이 집필한 한국학 프랑스어 논문집을 자승 스님에게 선물했다. 노덕현 기자

"신도 역량강화와 조직화 이룰 터"

중앙신도회 24·25대 이취임식



신도회발전을 서원하는 이기흥 신임 회장(좌)과 김의정 前 회장

조계종 중앙신도회 24·25대 회장 이취임식이 10월 13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렸다.

사부대중 1천여 명이 참석한 법회는 김의정 회장의 7년 성과를 돌아보고 이기흥 회장의 취임을 축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기흥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25대 회장으로 선출되면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여러 선배 종도님들의 업적을 잘 계승하고 발전 시켜야 한다는 중압감도 느끼고 있습니다"라며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 중앙신도회가 종단과 불교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중앙신도회 제 24대 25대 회장 이취임식을 맞아 발원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중앙신도회 25대 집행부는 '신도조직 활성화, 불교적 인재양성, 가르침의 사회적 회향' 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정혜숙 기자

대원상 포교대상 각묵 스님 · 불광 선정

특별상에는 대불청 · 황경환 회장



각묵 스님



황경환 회장

대한불교진흥원(원장 김규칠)은 10월 11~12일 제10회 대원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수상자를 선정했다.

포교대상에는 △출가부문에 각묵 스님(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 △재가부문에 월간〈불광〉 및 불광출판사(대표 지홍스님) △특별상에는 대한불교청년회(중앙회장 정우식), 황경환 바른불교실천포럼 회장 등이 각각 선정됐다.

콘텐츠대상은 수상자가 없었으며 장려상에 정문수(다큐멘터리 '경술 국치 100년 문화재 수난사'), 홍석화(애니메이션 '석굴암') 씨 등이 선정됐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1천만 원, 특별상은 5백만 원, 장려상은 2~3백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출가 부문 대상을 받은 각묵 스님(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은 지난 20년간 초기 불교의 교학과 수행체계를 널리 알리는 초기불전들을 한글로 옮기는 번역불사를 꾸준히 전개하며 불교의 현대화를 통한 불교교리의 대중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재가 부문 대상을 받은 월간〈불광〉및 불광출판사는 전법운동으로 대중 포교를 주창했던 광덕 스님의 문서포교, 매체포교의 유지를 받들어 불교신행지 잡지 월간 〈불광〉을 발행했으며, 또한 인접 분야 관련서를 발행해 불교출판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시상식은 10월 26일 오후 3시 다보빌딩 3층 법당(다보원)에서 열린다. 정혜숙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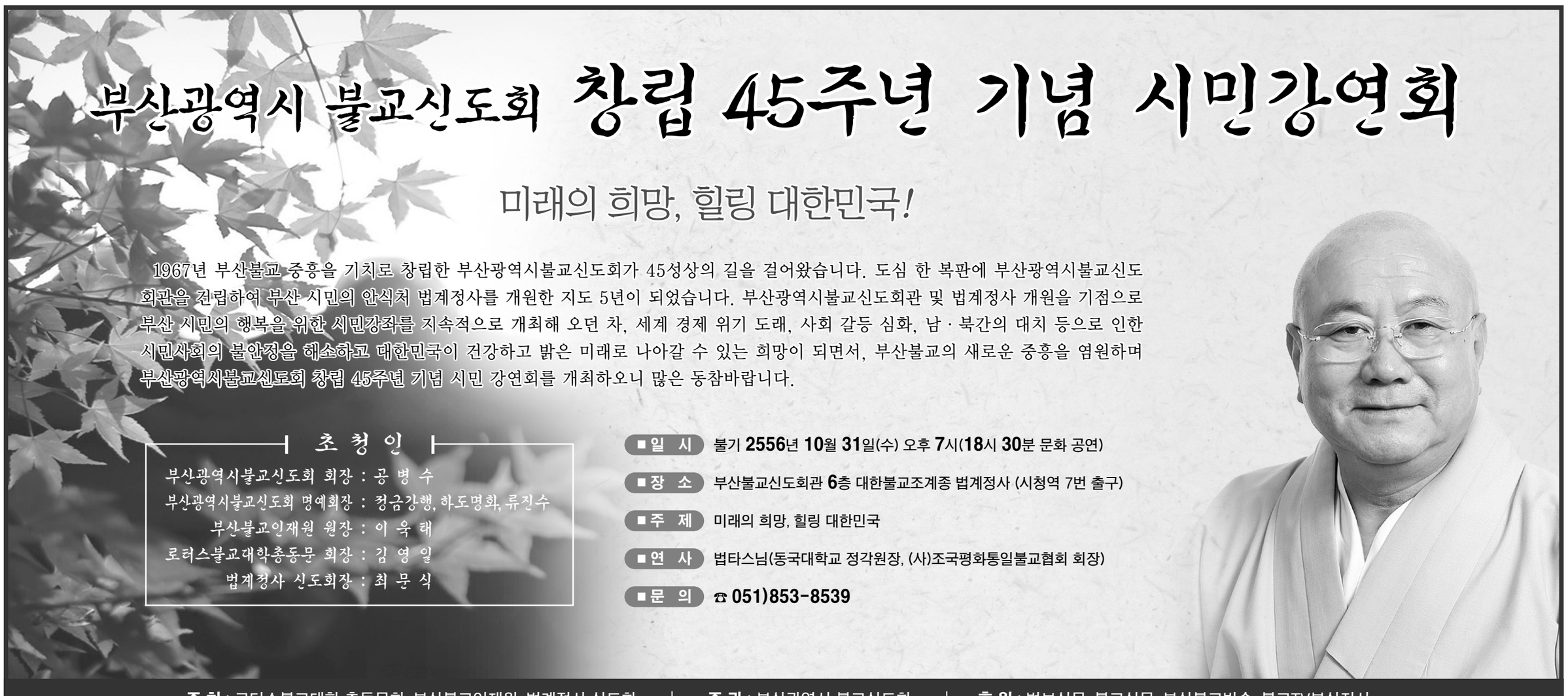
사설사암단체총연합회장 각운 스님



사단법인 전국사설사암단체총연합회(이하 전사련)는 10월 12일 국회의사당 헌정기념관에서 제2대 회장 각운스님 추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추대법회는 전국지부종단 대표자 및 사부대중 6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사무총장 대명스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국제불교조계종 반야합장단과 문화예술단원의 환영무와 김기욱 선생의 태평가 연주로 추대법회의 시작을 알렸다. 총재 각성스님은 추대 법어를 통해 "각운 대종사의 회장추대 취임식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경종이며 전사련의 초 대승적인 화합,단결을 위해 지혜의 노를 잘 운용하여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대외협력위원장 성철스님의 봉행사와 전국관리위원장 무공스님의 환영사, 축사 등이 이어졌다. 제2대 회장으로 추대된 각운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전사련은 200여 전국 회원종단이 가입된 국내 굴지의 불교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한국불교를 이끌어 갈 수있는 중심에 서 있으며 그 어느 불교단체보다 자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회장으로서 회원간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종회의장 보각스님의 대국민메세지, 무무암 총무 자비심의 발원문 낭독으로 대법회가 마무리 되었으며 이날 법회로 전사련은 각운 대종사 체제로 출범하게 되었다. (02)2198-5022 노덕현 기자





화성 신흥사에 조성된 '부처님 교화공원'은 부처님 일대기 중 주요 교화 장면을 석상으로 조형해 놓은 게 큰 특징이다. 사진은 부처님 바보 제자 주리판타카의 교화 장면.



부처님 교화공원은 주지 성일 스님의 40년 어린이 포교 원력의 집대성이다.



부처님 초천법륜을 재현한 석상. 초전법륜을 시작으로 부처님은 길을 따라 중생을 만나고 제도하셨다.



공원 위에서 바라본 신흥사 전경. 1970년대 농막 법당으로 시작한 신흥사는 이제는 어린이 포교의 산실로 자리매김했다.

부처님 교화 공덕, 법문·음악·길 따라 만나다

화성 신흥사 '부처님 교화공원' 을 가다

초전법륜부터 경전 결집까지
교화 일화, 조각상 13장면 조성
인도의 기원정사 · 죽림정사도

팔상성도 · 부모은중경 석판
야생화 조성된 황톳길 '눈길'
'가족 교육의 장' 면모 기대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사람과 신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해 길을 떠나라. 비구들이여,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 내용과 이론이 갖춰진 법을 설하라."

부처님이 출가한 50비구들에게 설한 전도부촉이 장중한 음악과 함께 생생한 법문이 흘러나온다. 그 앞에는 중생들을 교화하고 있는 불상이 얕으막한 동산 한 자락에 자리하고 있다. 법문을 듣다 보면, 부처님을 잘 모르는 사람도 당시의 상황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동산을 따라 오르는 길, 이 같은 부처님의 교화 공덕이 눈앞에 찬찬히 펼쳐진다.

화성 신흥사(주지 성일)가 아주 특별한 도량을 준공했다. 바로 '부처님 교화공원'. 10월 21일 준공법회에 앞서 16일 미리 찾은 '부처님 교화공원' 은 최종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었다.

신흥사 옆의 야산을 공원화 한 '부처님 교화공원' 은 2008년 시작해 최근 조성을 마친 대작 불사다. 규모만 18,500㎡(5600평)에 이르는 '부처님 교화공원' 은 길을 따라 부처님 일대기 중 주요 교화 장면 13테마가 석상으로 조각돼 있다.

조성된 석상 앞 안내판에 서면 음향센서가 자동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한 경전의 법문이 장엄한 음악과 함께 흘러나온다.

이 같은 시각과 청각의 조화는 40년 어린이 포교에 매진해 온 신흥사 주지 성일 스님의 아이디어다. 그만큼 교화공원의 곳곳에는 스님의 포교 원력이 묻어있다. 공원을 조성한 이유도 변화하는 어린이 · 청소년들의 성향에 따른 것이다.

스님이 가진 포교 원력의 집대성이라고 볼 수 있는 교화공원은 규모만큼이나 재원도 44억원이 투입된 대작불사다. 처음에는 스님의 불사에 지자체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부처님의 교화 사례만 모은 공원에는 지원금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돌아왔다. 스님의 입장은 단호했다. 중생 교화에 있어 최고의 모범을 보여준 부처님의 이야기로 공원을 만들 수 없다면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스님은 다시 기도를 시작했고, 신도와 불자들에게서 30억 원의 불사금이 모연됐다. 나머지 모자른 재원은 스님의 보험금으로 해결했다. 그간 보험설계사를 하는 신도들의 부탁으로 매년 하나, 둘씩 들어준 보험들이었다.

성일 스님은 "가끔 신도들이 와서 보험을 어렵게 부탁해서 들어준 것이 매년 2, 3개가 됐다"며 "불사를 하면서 확인해보니 금액이 상당했다. 만기된 것은 찾고, 현재 내는 것들은 전부 해약하니 모자랐던 대금들이 해결됐다. 아마 신도들이 부탁한 보험들은 오늘을 위해 사용하려고 계약했던 것 같다"고 술회했다.

스님의 인도로 '부처님 교화공원' 에 올랐다. 공원 입구를 따라 오르니 부처님의 교화 일대기가 펼쳐진다. 승만경 10대원이 담긴 승만부인의 일대기와 말리카 왕비 일화가 눈에 들어왔다. 스님의 설명이 이어졌다.

"승만부인은 부처님의 법을 부모에게 전했고, 말리카 왕비와 바사익 왕은 자녀들에게 불법의 소중함을 일깨웠습니다. 승만부인은 최고의 효도를 했고, 바사익 왕 부부는 최고의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굳이 평가하자면, 승만부인은 세상에서 제일 효도한 자녀이며, 바사익 왕 부부는 세상에서 자식을 사랑한 부모입니다."

그 위에는 빔비사라왕의 귀의하며 만든 최초의 사찰 죽림정사와 수닷타 장자가 만든 기원 정사가 석상으로 자리하고 있다. 왕과 장자가 만든 사원들은 모두 인도식 붉은 벽돌로 조형돼 있다. 특히 죽림정사는 참배객들이 잠시 선정에 들 수 있는 작은 공간도 마련해 놓았다. 누구나 잠시 앉아 부처님의 교화 공덕을 반추하며 수행할 수 있게 한 배려이다. 특별히 인도식 벽돌로 사원들을 조형한 데도 이유가 있었다.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재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29년 전에 룸비니 동산을 참배하고 돌아서서 두 시간을 서럽게 울었습니다. 경전에 아름다운 풍경들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고 잡초만이 무성했습니다. 교화공원을 만들면서 부처님이 계셨던 당시 상황들을 경전에 있는 그대로 재현하려고 했습니다."

주리판타카의 일화가 담긴 석상도 눈에 들어온다. 부처님 제자 중 가장 바보였던 주리판타카는 부처님 게송 한 구절을 외우지 못할 정도 였다. 슬퍼하는 주리판타카에게 부처님은 기원정사 마당을 쓸게 했고, 오직 빗자루질만 했던 주리판타카는 결국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 광경을 묘사한 석상도 싸리나무 빗자루를 손에 쥐고 있다. 새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아무리 우둔한 사람일지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도에 이를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욱 생생히 마음에 와 닿는다.

부처님 상수제자였던 사리불과 신통제일 목건련 존자를 제도했던 모습을 지나니 싱갈라의 이야기가 담긴 석상이 보인다. 성일 스님은 이 일화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불자들의 '지남(指南)' 이라고 강조했다.

"육방예경을 보면 싱갈라는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동서남북 상하 육방(六方)에 아침마다 목욕을 하고 절을 했습니다. 이에 싱갈라에게 부처님은 육방에 예경을 하는 이유에 대해 법을 설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으로 키우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며, 부부는 서로 존경하고, 스승은 바르게 가르치고, 제자는 그 가르침을 잘 따르며, 친척은 서로 돕고,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항상 선의를 베풀며, 고용인은 자신의 직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같은 법문을 듣고 싱갈라는 크게 환희심을 냈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 불자들이 살아가야 할 지침입니다."

길을 따라 오르니 가섭 3형제와 어린 라훌라를 교화하는 모습이 보인다. 특히 어린 라훌라를 교화하는 일화는 어린이 교육의 선구적인 모습이라고 성일 스님은 강조했다. 공부도 하지 않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아들 라훌라를 발 씻은 물과 대야로 비유해 꾸중하지 않고 스스로 깨치게 했기 때문이다. 요즘 말로 하면 '동기부여 학습' 의 모본이다.

"요즘 어린이, 청소년들을 만나면 학업에 지쳐 힘이 없어요. 강요로 억지로 하는 공부는 별 소용이 없습니다. 스스로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행동하게 하는 게 올바른 교육의 방식입니다."

바라나시 제일의 부자였던 야사 장자의 외아들을 인도해 출가시킨 장면을 지나, 동산 정상에 오르니 부처님의 초전법륜 현장이 펼쳐진다. 왕궁의 부귀영화를 모두 버리고 출가해 6년 고행으로 진리를 깨달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5비구에게 최초로 법을 설하시던 모습이다. 이때 설하신 법이 중도, 사성제, 팔정도, 연기법 등이며, 진리의 대 수레바퀴가 굴러 곳곳마다 밝은 빛이 퍼져 나가게 됐다.

"5비구에게 최초로 법을 전한 초전법륜을 비롯해 야사, 라훌라, 앙굴리마라, 주리판타카, 승만, 수닷타 등 부처님의 교화 사례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 할 것 없이 가르침을 받아 마음이 열리고 바른 삶을 살아간 이야기들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초전법륜상 위로 연등 설치 작업이 한창이다. 설치되는 연등과 석상들을 비추는 조명들 모두 태양에너지로 빛을 발한다. 친환경적이고, 운영비 절감에도 효과가 크다. 태양에너지 인등 특유의 은은한 불빛들이 밤에는 또 다른 정취를 낸다는 게 스님의 설명이다.

반대편으로 내려가는 길에는 〈부모은중경〉과 부처님 팔상성도가 부조된 석판들이 장엄되어 있다. 잘 살펴보니 공원의 길들은 친환경 황토길이다. 폭신한 황토의 질감이 발을 편안하게 해준다. 동산을 오르내리는 길은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피어나는 야생화가 조경돼 공원의 운치를 더한다.

교화 공원 아래로는 가족들이 걸으면서 명상을 할 수 있는 숲길 조성이 한창이다. 이곳은 쉼터를 만들고 우드칩으로 길을 놔 편히 쉬면서 사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성일 스님은 교화 공원 전체가 부처님을 법을 배우는 가족 교육 도량이자 수행 공간으로 활용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경전 속에서 만난 2600년 전 부처님 제새 당시 사람들의 삶 역시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교화 이야기를 통해 삶의 지혜를 얻고 희망찬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돌아가는 길, 다시 공원을 올려봤다. 뉘엿이 넘어가는 노을 빛과 부처님 교화 장면들이 아름답게 어우러지고 있었다.

글= 신중일 기자 · 사진= 박재완 기자



수강생모집

알기 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 · 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 · 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중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동방칠성교주,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72길 ☎ 전화 010-7415-0803 / 051)343-0803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건강한 아이 원한다면 불교식 태교를…

산모가 태교하기 좋은 사찰

"만일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기 위해 관세음보살님께 예배공양하면, 곧 복덕과 지혜를 갖춘 훌륭한 아들을 낳을 것이며, 만일 딸 낳기를 원하면 곧 단정하고 용모를 갖춘 딸을 낳을 것이니, 이들은 덕의 근본을 잘 심었으므로 여러 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리라."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결혼과 함께 신경 써야 할 일이 임신과 출산이다. 임신을 하게 되면 자연히 평소보다 마음가짐이나 몸가짐이 조심스러워진다. 불교에서는 태교를 중시한다. 인간의 실제 주인공인 우리 영체는 전생에 지은 업에 따라 여섯 세계를 윤회하면서 살아간다.

태교는 이러한 윤회생사의 큰 수레바퀴 속에서 영체가 인간의 몸을 받아 살아가는 생노병사 과정의 첫 출발점으로서, 금생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판가름 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뱃속의 아이'를 위한 불교식 태교수업 및 템플스테이 하는 곳을 소개해본다.

대원사 니르바나 명상센터(선원장 혜산 진성)는 신혼부부와 태교를 준비하는 남·녀를 대상으로 서울·파주·광주 등에서 몸·마음 깨우기 명상, 호흡명상, 집중 이완, 가피명상 등을 통한 태교명상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혜산 스님은 "명상을 통해 임신·출산·육아까지 두렵고 불안하고 힘든 과정의 문제들은 사라지고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위대한 사랑의 힘을 체험하고 삶을 온전히 가슴으로 느끼고 명상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031)954-7077



충분한 산소와 영양, 스트레스 없는 환경은 산모에게 중요하다. 전국 명산의 전통사찰과 숲을 활용한 템플스테이는 태교에 효과적이다.

산모 및 부부가 함께하는 템플스테이

사 찰	내 용	연 락 처
서울 진관사	휴식형 가족템플스테이	(02)359-8410
화성 용주사	화산포행(숲길 명상)	(031)234-0040
파주 대원사 니르바나 명상센터	호흡명상, 가피명상	(031)954-7077
평창 월정사	암자순례, 전나무숲길걷기	(033)339-6800
춘천 현지사 관음태교원	관음태교 실습, 산모건강체조	(033)243-1787
공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	가족템플스테이	(041)841-5050
부산 범어사	암자 순례, 숲길명상	(051)508-3122
강진 백련사	옛 숲길산책, 남도기행	(061)432-0837
해남 미황사	달마산 산행	(061)533-3521

춘천 현지사 관음태교원(원장 덕산)도 운영하고 있다. 현지사는 미혼·기혼의 젊은 여성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관세음보살 보문품경 및 관음태교 실습·이론 △덕산 스님 특강 △산모건강체조 등을 진행한다. 덕산 스님은 "관음태교는 기존의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관음태교교육을 실시해 두뇌가 총명하고 복덕을 갖춘 아이를 많이 낳길 바란다"고 말했다. (042) 525-5325

국제적 연구를 통해 숲 태교가 효과를 인정받고 있다. 충분한 산소와 영양, 그리고 스트레스 없는 환경이 산모에게 중요하다는 것. 전국 명산의 전통사찰과 숲을 활용한 템플스테이도 태교에 효과적이다.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본부장 초격)은 쾌적하고 현대적인 숙박시설로 일반인들에게 인기다. 2~8인실로 가족단위로 템플스테이에 참여할 수 있어 출산을 앞둔 부부들에게 좋다. (041)841-5050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은 10월 20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부부 15쌍과 △임산부의 마음관리 강의 △태교를 위한 명상 음악회 △마곡사 걷기 수행 및 사찰음식 맛보기 등을 진행했다.

금강 스님은 태교에 대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 느낌으로 바로 전달된다. 절은 새벽 3시부터 6시 까지 만물이 모두 깨어나는 가장 맑은 시각에 시작하는 공간"이라며 "이곳만큼은 싸움과 차별이 없는 순수하고 향기로운 공간이다. 맑은 물과 수행기운이 넘치는 곳에 아이를 가진 어머니들이 와서 잠시 있더라도 맑은 기운을 품을 수 있다"고 말했다.

1박 이상을 해야 하는 템플스테이가 부담스럽다면 하루 일정으로 가족이 함께 숲과 사찰 체험을 하는 '템플라이프'도 유익하다. 전통식 사찰 건물이 주는 편안함과 고기와 자극적인 음식인 오신채를 뺀 사찰음식은 임신부들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

부부 및 가족단위로 숲 명상 및 템플스테이를 할 수 있는 곳은 푸른 침엽수림에 둘러싸여 고즈넉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오대산 월정사가 있으며 그 밖에 전남 백련사, 해남 미황사, 서울 진관사, 화성 용주사 등이 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아들 잃은 슬픔, 더 큰 자비로 승화

故 표종빈 병장 부모, 12일 군종교구에 사고 보상금 전달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은 담담하고 절제된 행동을 보였으면 좋겠다. 조국이 나를 위해 장례를 치러주는 것은 나를 조국의 아들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010년 3월 모 일간지에 실렸던 비행훈련 중 순직한 故 오충현 대령의 생전 일기 일부다. 오 대령이 남긴 말처럼 꽃다운 나이에 조국을 지키다 산화한 한 젊은이의 희생을 명예롭게 승화시킨 부모님의 사연이 깊은 감동을 준다.

지난 10월 12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는 그 어떤 봉투보다 무거운 보시금 봉투가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에게 전해졌다.

군복무 중 안타깝게 사망한 故 표종빈 병장의 부모가 아들의 사고보상금 500만원 호국연무사 불사 후원금으로 전달한 것이다.

육군 27사단 이기자 부대 수색대대에서 복무 중이던 표 병장은 8월 23일 1박 2일간 야외훈련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 차량이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로 순직했다. 입대 전 막노동 아르바이트로 부모님 결혼 20주년 여행을 보내드릴 만큼 효자였던 그는 활달한 성격으로 부대원들의 사랑을 받는 한명의 대한민국 청년이었다.

표 병장의 아버지 표창술 씨와 어머니 이영미 씨는 "아들의 사고보상금이 뜻 있는 곳에 쓰여지길 바란다"며 "이 곳을 찾는 많은 젊은 장병들이 건강하게 나라를 지켜줬으면 하는 마음에 호국연무사 불사에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림 · 박구원

표 병장 부모님의 마음은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침체됐을 이기자 부대에도 미쳤다. 표 병장의 어머니는 이기자 부대 인터넷 카페에 글을 남겨 "우리 아들이 이기자부대 수색대대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나 대단했기에 영원히 말뚝을 박았나 봅니다"며 "종빈이 혼자만이라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일로 더 많은 아들을 얻었습니다. 같이 했던 장병들이 빨리 용기를 되찾고, 힘을 내는 것이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길입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자광 스님은 "아들을 잃은 슬픔을 딛고 큰 마음을 내셨다"며 "가장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이 보여준 마음은 장병들과 국민들의 귀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故 표종빈 병장 아버지 표창술 씨(왼쪽서 세번째)가 자광 스님에게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

송광사 제8회 금강산림대법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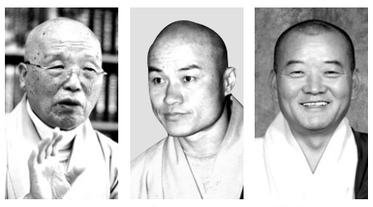
제방 고승대덕 8주간 법회마련

전남 순천 송광사(주지 무상)는 제방에서 수행 정진하는 스님들을 모시고 '제8회 금강산림대법회'를 개최한다.

이번 법회에는 11월 1일~12월 20일 49일동안 매일 영가천도 기도가 봉행되며 매주 스님들의 초청법문이 이어진다.

법회는 11월 1일부터 매주 목요일 11시에 △보성 스님(송광사 방장) △영조 스님(쌍봉사 회주) △정우 스님(서울 구룡사 회주) △묘허 스님(단양 방곡사 회주) △혜자 스님(도선사 주지) △승원 스님(전 총무원 기획실장) △법흥 스님(송광사동당) 흥교 스님(범어사 전계대화상) 순으로 진행된다.

무상 스님은 "대법회에 동참한 인연공덕으로 재가불자들은 스님들의 가르침을 통해 깨달음의 향훈이 함께하는 시간이 될 것이며 유주무주 선망 부모의 영가들에게는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061)755-0108



보성 스님 영조 스님 정우 스님

이나은 기자

일곱멘토와 힐링법회 떠나자

우리는선우 창립21주년 법회마련

개인과 사회의 고통원인을 분석하고 불교적 치유법을 나누는 릴레이 힐링법회가 마련된다.

재가불자단체 우리는선우(대표 성태용)는 창립 21주년을 맞아 11월 5~26일 매주 월·수 오후 7~9시 우리함께빌딩 6층에서 '릴레이 힐링법회'를 개최한다.

'일곱멘토와 떠나는 릴레이 힐링법회'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대표적 불교계 멘토 7인이 초청돼 법문을 한다.

법회에는 △소남 스님(한국티베트센터 주지)의 '티베트 밀교수행의 내적치유의 힘' △월호 스님(쌍계사승가대학 교수)의 '참선이 어려운 당신을 위한 문안의 수행법' △금강 스님의 (해남 미황사 주지)의 '그곳에 가면 참사람의 향기가 있네' △능행 스님(정토마을 자재병원장)의 '행복하기 위해 이 순간 죽음을 생각한다' △용타 스님(행복마을 이사장)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지금 현재에 집중하라'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마음의 잡초를 뽑고 긍정의 꽃을 심어라' △도법 스님(조계종 화쟁위원장)의 '마음의 욕망을 다스리는 생명평화의 길' 법문이 진행된다.

우리는선우는 "일곱 멘토와의 만남을 통해 불자들의 삶과 가정에 자존감과 행복의 빛을 채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원은 77명이며 수강료는 7만원이다. (02)2278-8672

이나은 기자

수덕사 충청지역 대학생 템플스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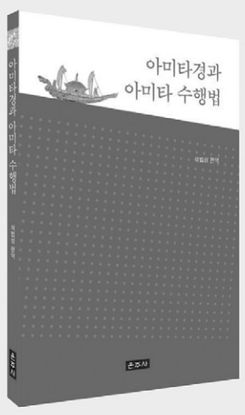
충남 예산 수덕사(주지 지운)는 11월 3~4일 충청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경내에서 진행한다.

조계종 대전충청전법단이 지원하고 조계종 포교원, 법주사, 마곡사, 수덕사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정목 스님(BBS·불교방송 마음으로 듣는 음악 진행)의 강연 △마가 스님 자비명상 △산내 암자순례 및 발우공양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마가 스님의 자비명상은 대학생들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참가 희망자는 대전충청전법단 및 수덕사로 문의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042)582-0279

운주사 밝은사람들 총서

아미타경과 아미타 수행법



법성 편역/사륙판/90쪽/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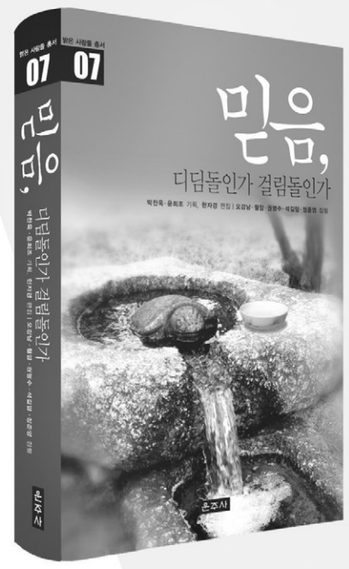
최초로 정리된 극락왕생과 현세이익을 위한 아미타 수행법!

독송용 원문 및 우리말 아미타경 수록
원문 이해를 위한 정확한 번역과 상세한 주석



01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 정준영 외 / 396쪽 | 20,000원
02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 — 권석만 외 / 504쪽 | 23,000원
03 마음, 어떻게 움직이는가 — 미산 외 / 400쪽 | 20,000원
04 몸, 마음공부의 기반인가 장애인가 — 우희종 외 / 424쪽 | 20,000원
05 행복, 채움으로 얻는가 비움으로 얻는가 — 미산 외 / 348쪽 | 18,000원
06 죽음, 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 안성두 외 / 416쪽 | 20,000원

학술연찬회
주제: 믿음,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일시: 10월 27일(토) 10시-18시
장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믿음은 영적 성숙의 토대인가 장애물인가
종교적 믿음의 내용과 작동원리에 대한 불교(초기불교, 대승불교, 선불교)와 종교심리학, 비교종교학에서의 성찰!

오강남 외 집필/신국판양장/300쪽/18,000원

믿음,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노인 체험 해보니, 할머니 이해했어요"

영통복지관, 노인생애체험센터 운영

대학생 7명이 모여 노인생애체험복을 입는다. 무릎구속도구와 팔꿈치구속도구를 착용하자 관절을 움직이기가 힘이 든다. 조끼모양으로 된 등 구속도구를 입자 허리가 굽어지고 특수 안경을 쓰자 시야가 확 좁아지고 앞이 뿌옇게 보인다. 팔다리에 모래주머니까지 착용하자 온몸이 축 늘어진다. 다들 몸이 80세 노인으로 바뀌었다.

이곳은 수원 영통종합사회복지관(관장 수안)내 마련된 영통노인생애체험센터. 수원시가 건립하고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수원사가 위탁운영중인 영통종합사회복지관의 노인생애체험센터는 KRA 한국마사회(수원지점)의 예산지원을 받아 2010년 4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유치원 어린이부터 초중고 대학생 및 중장년층까지 영통노인생애체험센터를 다녀간 사람은 현재 6600여 명이 넘는다. 이들은 거실·주방·감성·보행·문손잡이·욕실·침실체험 등 가상체험을 통해 노인의 심신상태와 일상생활을 이해하게 된다.

10월 18일 생애체험 참가자들은 간호학과 재활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 체험 전 학생들은 강사인 윤지미 사회복지사의 안내로 노인생애체험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윤지미 사회복지사는 우리나라의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영상을 보여 준 뒤 "여러분들이 소외된 노인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다가, 한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바로 이 체험의 교육효과"라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주방으로 갈 때 시야가 좁아



노인생애체험에 참가한 학생들이 무릎구속도구와 팔꿈치구속도구를 착용하고 백내장 특수 안경을 쓴 뒤 주방 체험을 하고 있다.

쉽게 이동하지 못했다. 식탁에는 실버용품들이 있었다. 숟가락에는 줄을 붙이고 젓가락에는 집게를 붙여서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었다. 일반 수저로 밥을 떠먹기 힘들어하는 어르신들을 이해할 수 있는 체험이다. 앞부분을 깎아내 목을 뒤로 많이 젖히지 않고도 물을 마실 수 있게 만든 컵, 음식을 흘리지 않게 홈이 깊게 파인 접시가 인상적이다. 싱크대는 휠체어를 탄 노인을 위해 뚫려 있었고 설거지하기 편하게 찬장도 낮게 설치 돼 있었다. 음료수병에 적힌 유통기한을 특수 안경을 쓰고 읽자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

"아, 그래서 우리 할머니집에 가면 유통기한 지난 음식이 많았구나."

학생들은 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들이 많은지 이해하게 됐다.

다음은 보행체험.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올라갈 수 없었다. 손잡이 없이 계단의 중앙으로 내려오자니 앞이 잘 보이지 않아 몹시 힘들었다. "전철역에서 노인들이 계단 난간을 잡고 오르내리는 건 어딘가에 의지를 해야 중심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강사의 설명이 이해가 됐다. 휠체어는 작동법도 어렵고 바퀴를 굴리는 것도 힘들었다. 생각지도 못했던 사소한 부분들이 노인에게는 힘들고 불편하고 위험했다. 이후 학생들은 보행체험공간 벽면에 붙여진 색깔이 있는 모형을 백내장 안경을 쓰고 봤다.

"보라색, 파란색 보다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이 더 잘 보였을거예요. 이 세 가지 색은 신호등 색깔이죠? 신호등을 개발한 사람이 안구질환이 있어서 앞이 잘 안보이고, 색 구별을 잘 못해도 그나마 보이는 색이라서 신호등 색깔로 정해져 있는 거랍니다."

체험을 마친 학생들의 반응은 비슷하다.

최현수(23) 씨는 "모래주머니를 오래 하고 있으니까 발꿈치가 저렸어요. 안경 쓰고 움직이니 어지러웠어요. 우리 할머니가 식사를 하실 때 왜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 이해를 하게 됐어요"라고 했다.

정진호(25) 씨는 "이제는 어떻게 하면 아프시고 어떻게 하면 힘드시다는 것을 아니까 맞춰서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르신들의 삶을 이해하는 값진 체험이었습니다"라고 환히 웃었다.

윤지미 사회복지사는 "노인생애체험을 통해 참가자들은 대부분 생각해보지 않았던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게 된다"며 "한번이라도 체험하는 것이 어르신들의 인식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인구가 가장 빨리 늘고 있는 나라다. 현재 중고교생의 학부모가 노인이 되는 2030년에는 인구 4명 중 1명이 노인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서양의 격언에는 '노인은 자신이 두 번 다시 젊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젊은이는 자신이 늙는다는 것을 모른다'는 말이 있다. 노인생애체험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체험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노인복지기관이나 병원 종사자, 노인분야에서 활동할 자원봉사자는 물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려는 중장년층도 가능하다. 초중고생의 경우 체험시간을 봉사활동으로 인증해준다. (031)201-8331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국내 최초 장애인 락 콘서트 개막

군포시장애인복지관, 26일 락페스티벌 개최

국내 최초로 장애인 락 콘서트가 화려한 막을 올린다.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용철)은 10월 26일 오후 6시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에서 '제1회 사람·사랑 樂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군포시의 후원을 받아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최하는 이번 콘서트에는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 락밴드 5개팀이 공연을 펼친다.

한국대중음악 100대 명반에 2장의 앨범을 올린 허클베리핀, KBS2TV '탑밴드 2'에서 활약을 펼친 '4번 출구', 다문화 다국적 노래단 '몽땅', 장애 아동·청소년의 어머니로 구성된 '母樂밴드' 등이 축하공연에 참여해 올 가을을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게 된다.

이번 락 페스티벌을 준비한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송명훈 음악치료사는 "문화적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음악을 통한 여가 생활을 돕고 단순히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닌 장애인이 주체가 되어 지속적으로 개최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락 페스티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이 주체가 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은 음악, 미술, 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전보다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장애인이 소수에 불과한 상황이다.



김용철 관장은 "이번 콘서트를 계기로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문화 활동 참여를 돕고, 지속적인 락 페스티벌을 열어 전국에 산재돼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 예술 단체를 발굴하겠다"며 "장애·비장애인을 위한 즐거운 음악축제이자 소통과 화합의 한마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연은 무료공연으로 누구나 관람이 가능하다. (031)399-1888 이나은 기자

"악기 재능 있는 어르신 모이세요"

안양시노인복지관, 어르신 밴드 단원 모집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관장 박양숙)은 10월 15일부터 어르신 밴드 단원을 모집한다.

복지관은 악기연주 실력을 갖춘 어르신들로 구성된 전문 밴드 공연단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안양시청의 초청으로 복지박람회 오프닝 무대를 장식하는 등 활발한 활동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악기연주 경험이 있거나 밴드에 관심 있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참여방법은 복지관 회원가입 후 내방상담 및 간단한 오디션을 보면 된다.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은 "복지관의 밴드는 어르신들의 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상을 확산시키며, 나아가 음악적 재능을 통해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자 한다"고 전했다. (031)455-0551

생명나눔의 날 산사음악회 성료

학인스님·학생 등 17명에 장학금 전달가져

생명나눔에 동참한 사부대중이 함께 모여 생명나눔의 의미를 새기고 실천하는 행사를 열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10월 13일 남양주 불암사에서 생명나눔과 인연을 맺은 장기기증 및 후원회원, 유관단체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 생명나눔의 날'을 개최했다.

불교방송 이선희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1부 기념식에서는 2003년 생명나눔을 통해 신장기증을 한 영월 스님과 시신기증자 故 김영찬 씨 가족 등 기증자 16명에 대한 감사장을 전달했다. 또 생명나눔은 창립 발기위원이자 상임운영위원으로 법인 발전에 기여한 종실 스님,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인 군법당 캠페인을 협조한 정행군승, 홍보대사 김병조 씨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어 진행된 2부 산사음악회는 김병조 씨의 사회로, 본부 홍보대사인 가수 주병선 씨와 국악신동 송소희 양을 비롯해 심진 스님, 김연자, 이정옥, 유지나, 김정연 씨 등이 출연해 노래와 공연을 선보였다.

한편 이날 불암사 경내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 참여가 이어졌다. 또한 송산실버문화센터(관장 법일)가 준비한 '노인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자비바자회'도 함께 열려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일면 스님은 "광야를 걸어가는 길동무처럼, 없는 가운데서도 서로 나누어 가지는 자는 멸하는 세상이라 해도 멸하는 법이 없다"며 "자비나눔에 동참하는 고마운 분들의 정성이 우리 사회에 더욱 아름답게 퍼질 수 있게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는 생명나눔실천본부가 되겠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10월 13일 남양주 불암사에서 생명나눔과 인연을 맺은 장기기증 및 후원회원, 유관단체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 생명나눔의 날'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부이사장 종호 스님(제석사 회주), 봉선사 주지 정수 스님, 경기도의회 이용석 의원,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표우현 사무관, 불교방송 이채원 사장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생명나눔의 날 기념식에 앞서 재단법인 일면장학회(이사장 일관 스님)는 2012년도 후기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일면장학회는 이날 승원 스님(해인사), 동하 스님(중앙승가대) 등 학인 스님 9명과 이주헌(동국대), 이재상(홍익대) 등 대학생 3명과 윤진호, 김효은(광동고) 등 중고등학생 6명에게 각각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나은 기자

조계종 복지재단, 10월 30일 복지 간담회

같은날 미래복지포럼도 개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교구본사 및 본사법인 사회복지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복지재단은 10월 30일 오후 3시 30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프로그램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법인설립 추진사례 △복지시설 운영사례 △자원봉사 조직화 사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재단은 또한 간담회에 앞서 오후 2시부터 조기룡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조교수를 초청해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한 종단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미래복지포럼을 개최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한 종단 사회복지 전달체계 강화와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을 준비 중이거나 운영중인 교구본사 간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교구본사 및 본사법인 사회복지관계자 간담회를 열고자 한다"고 말했다. (02)723-5101 이나은 기자

생명나눔의 민간홍보대사가 되어주세요





장기기증은 뇌사 시
소중한 신체의 일부를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누어 새 생명을
선물하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으로
생명나눔 민간홍보대사가 되어주세요.

◆ 뇌사시 기증 : 신장, 간장, 심장, 폐장, 췌장, 췌도, 소장
◆ 환 자 돕 기 :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농협 053-01-243772 (생명나눔)
ARS 060-703-1133
※ 장기기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민간홍보대사로 등록하실 분들은 연락주세요.

문의 : 02-734-8050 www.lisa.or.kr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95 대성스카이렉스 101동 305호

능가산 내소사
첫번째 괘불재 掛佛齋
그리고 열번째 가을산사 음악회

2012년 10월 27일 토요일
중창불사 회향법회 오전 10시
괘불재 오후 1시
가을산사 음악회 오후 6시

▶ 가을산사 음악회 출연진 ◀
도신스님
안치환
김태곤
자전거 탄 풍경

주최 _ 대한불교조계종 능가산 내소사
후원 _ 광주·전남불교신도회, 저절로생활협동조합, 법보신문, 불교신문, 현대불교, BBS불교방송, BTN 불교TV

대한불교조계종 능가산 내소사 주지 진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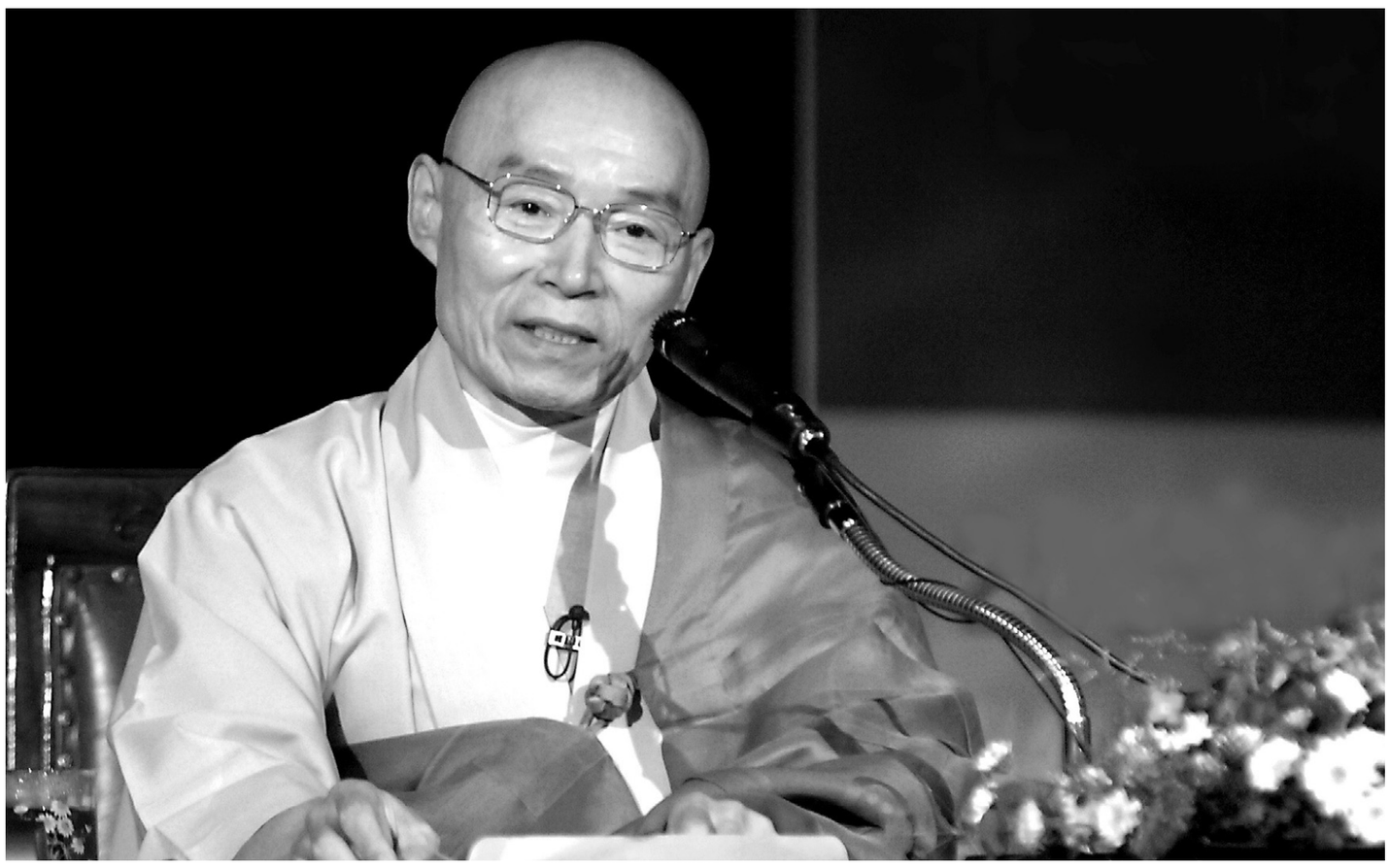
조계사 일요법회 중계

청화 스님 (조계종 前교육원장)

“고통 느낄 때는 자성에 귀 기울이자”

‘화초도 열매를 맺으면 시들고 대나무와 갈대도 열매를 맺으면 마른다.’ 명예와 이익을 탐하는 이는 그로 인해 해를 입는다는 부처님 말씀이다. 부처님께서는 탐진치를 여의고 깨달음으로 가는 8만 4천개에 달하는 방편을 설하셨다. 수많은 방편에도 그 근본은 하나. 바로 청정자성에 귀 기울이는 성찰을 통한 깨달음이었다.

10월 7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일요법회에서 조계종 前 교육원장 청화 스님은 이 같은 내용을 대중에게 누차 강조했다. 스님은 〈채찍의 경〉에서 나온 네가지 준마의 경우를 들며 사람도 고통의 소리를 들을때 스스로를 돌아보고 각성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설법했다. 이날 조계사 대웅전에는 300여 명의 불자들이 모여 스님의 법문을 듣고 불법에 따른 삶을 살기를 서원했다. 정리=노덕현 기자



청화 스님은 … 1962년 법인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청화 스님은 1981년 총무원 교무국장을 시작으로 총무원장 사서, 정토구현전국승가회 초대 의장,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의장, 초심호계원장 등 재야 현장과 종단의 주요 소임을 역임했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교육원장을 맡아 승가교육체계를 정비했다.

바야흐로 바람결 소슬한 가을입니다. 격정의 날들은 다 갔습니다. 이제 차분히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자세를 고쳐 앉아서 가을의 결실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가을이 여러분들에게 허무한 가을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두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은 여러 가지 고통을 받습니다. 이런 고통을 극복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심에 대한 공덕을 두 가지로 비유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철갑옷입니다.

어떤 장수가 전쟁터에 나서며 화살이 뚫을 수 없는 철갑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빗발치는 화살들에도 철갑옷으로 인해 화살들은 장수의 몸에 박히지 않았습니다. 그 예리한 화살들이 장수를 해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철갑옷 때문입니다.

그 장수 자체를 보면 화살이 뚫을 수 없는 무쇠와 같은 몸을 지니거나 신통술을 지닌 것이 아닙니다. 화살이 장수의 몸을 얼마든지 뚫을 수 있지만 철갑옷이 그 화살을 막아준 것입니다.

자애심의 공덕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자애심을 발휘하며 수행할 때 우리 인격의 덕이 쌓여 외부의 여러 가지 해로운 것들을 막아줍니다.

또 하나는 동굴에 대한 비유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멀리 동굴이 보여 그 사람은 얼른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퍼붓는 비에도 동굴 안의 그 사람은 비 한 방울도 맞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비를 맞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 자체가 비를 맞지 않는 몸이 아닙니다. 비를 맞지 않는 도술을 지닌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비를 맞지 않은 것은 동굴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굴이 비를 맞지 않게끔 보호해 준 것입니다.

자애심의 공덕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자애심을 잘 행하면 그 공덕은 우리를 괴롭히는 고통을 피하게 해줍니다.

철갑옷을 입고 화살을 맞지 않는 것, 동굴에서 비를 한 방울도 맞지 않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 아닙니다. 공덕을 쌓은 이의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것은 특정사람만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자애심을 실천한 공덕이 있는 이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철갑옷과 동굴을 자애심의 공덕으로 비유했다면 화살과 폭우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여러 고통이나 재앙, 불행입니다.

이런 고통이나 재앙, 불행의 근본을 제거하는 것은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은 실천에서 나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어떤 공덕도 없습니다.

목마른 이는 물을 마시면 해갈이 됩니다. 이는 물을 마신 공덕입니다.

배가 고픈 이는 밥을 먹으면 배가 부릅니다. 이는 밥을 먹은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 사람은 고통을 여의게 됩니다. 이는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한 공덕입니다.

하지만 차이는 있습니다. 사람이 물을 마시고 밥을 먹는 것은 매한가지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은 근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친절하게도 근기에 따라 세 가지 방법으로 설하셨습니다.

첫째는 부드러운 가르침입니다. 부드러운 가르침이란 먼저 구체적은 선행을 말하고 그 다음, 선행의 과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법구경〉에는 ‘잘못들은 자에게는 밤이 길고, 피곤한 자에게는 길이 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아주 부드러운 가르침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화엄경〉에는 ‘같은 물이라도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마시면 독이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부드러운 가르침 하나하나가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오묘한 뜻을 전합니다.

둘째는 거친 가르침입니다. 거친 가르침이란 구체적인 악행을 말하고 그 다음 악행의 과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함경〉에는 ‘화초도 열매를 맺으면 시들고, 대나무와 갈대도 열매를 맺으면 마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명예와 이익을 탐하는 사람은 그로 인해 해를 입는다는 말씀의 비유입니다. 이런 말씀은 거친 가르침에 속합니다.

〈현우경〉에는 이런 부분도 나옵니다. 스님들이 사는 거처에 자꾸 도둑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스님들이 가진 것이 있겠습니까. 이 도둑은 스님들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가사를 훔쳐가곤 했습니다. 스님들은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평소 자애를 설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둑의 횡포가 계속되자 참다못한 스님들은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들었을 때는 몽둥이를 들고 돌을 들고 기왓장을 들라. 칼이 있으면 칼을 들라. 그러나 위협만 할뿐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만약 도둑이 왔을 때 너희들이 눈을 뜨고 있다면 어찌 도둑이 훔쳐가겠느냐’ 부처님께서는 몽둥이를 들고 돌을 들고, 칼을 들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방법은 부드러움과 거친 가르침을 혼용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선행과 악행의 과보를 말하며 듣는 이를 이끄는 방법입니다.

자애심의 공덕은 화살 속 철갑옷 같아
공덕은 부처님 가르침 실천에서 나와
방편에 메이지 말고 근본에 눈돌려
번뇌 가라앉히면 자연히 지혜가

예를 들면 ‘탐진치를 범하지 않음은 선행이며 이 과보로 장수하거나 천상에 태어난다. 탐진치를 범하면 악행이며 이 과보로 악도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선행을 행하라는 하나의 내용을 세 가지 방법으로 전개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것은 한 가지 방법으로는 근기가 다른 대중을 이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운 가르침이 아무리 수준 높은 가르침이라 해도 모두에게 약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영악하거나 머리를 굴리는 사람에게는 부드러운 가르침은 무력합니다. 이러한 무력함은 그들의 결점만을 굳히게 돼 결국 그 사람을 해하게 됩니다. 이런 이들에게는 거칠고 자극적인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이는 모든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불교를 예로 들면 궁극적인 목표로 극락만 얘기해도 되고 성불만 얘기해도 되고 해탈만 얘기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에는 많은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못 쓰고 죄를 짓게 되면 지옥에 가게 됨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 결과를 말해줘 본인의 행동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비단으로는 장미의 가시를 제거하거나 장미의 가시가 찌르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시보다 강한 돌이나 쇠붙이로는 장비의 가시를 제거할 수 있고 찌르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런 원리입니다. 사람은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 까닭에 사람을 교화하는 가르침도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중심에는 괴로움이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것이 모든 사람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괴로움에 행복이 파괴되고 삶이 파괴되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부처님은 이 괴로움을 가르침의 중심에 놓고 인식변화와 대응전략을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괴로움에 대한 약방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가르치셨습니다.

그 중에는 괴로움을 채찍으로 비유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른바 〈채찍의 경〉입니다. 이 경에서는 네 가지 고귀한 혈통의 준마가 등장합니다.

한 말은 채찍의 그림자만 보아도 벌써 조련사의 마음을 읽고 자극을 받아 빠르게 달리는 준마입니다. 다른 한 말은 채찍을 받고 털에 상처를 받아야만 조련사의 마음을 읽고 빠르게 달립니다. 또 다른 한 말은 채찍을 맞고 살점에 상처가 나야 만이 조련사의 마음을 읽고 빠르게 달립니다. 나머지 한 말은 채찍을 맞고 뼈에 상처가 나야 만이 그때서야 조련사의 마음을 알고 자극을 받아 빠르게 달린다고 했습니다.

채찍을 맞으면 상처가 나고 아픕니다. 채찍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인생의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반응은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네 종류의 말을 사람에도 비유하십니다. 채찍의 그림자만 보아도 조련사의 마음을 읽고 자극을 받아 빠르게 달리는 준마는 상근기의 사람에 해당합니다.

이는 어떤 마을이나 도시에서 남자나 여자가 고통에 시달리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더라도 정신을 차리고 타성에 젖은 삶에서 각성한 삶을 삽니다.

만약 출렁여 잔을 넘치려는 물을 보면 우리는 그 물의 출렁임을 멈추게 하려 할 것입니다. 물의 출렁임을 없애려면 먼저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원인을 찾아 출렁임을 없애면 이물질이 가라앉습니다. 이 물질이 가라앉으면 자연스럽게 물도 맑아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번뇌의 출렁임을 찾아 없애면 지혜가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그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따를 때만 가능합니다. 평소의 삶에서 무엇이 나를 출렁이게 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서비스]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주·야 상담 합니다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단 70만원에 법당의 오래된 앰프를 웅장하고, 맑은 소리로 바꾸어 드립니다

➔ 방법 : 앰프와 마이크 또는 스피커와 마이크 등 좋지않은 장비를 고급 신형 제품으로 교체 해 장엄한 소리를 보시하겠습니다.

● 보완 보시기간 : 2012년 10월 – 11월 30일까지 (예약 순으로 일주일에 2곳만 설치 해 드립니다)
● 해당지역 : 서울, 경기, 일부지역 (이외 지역은 출장비 일부가 추가됩니다)



파워드믹스 앰프



스테레오 앰프



• 高音質 무선마이크

스님께서 사용중인 ‘무선-핀 마이크’를 高性能 ‘헤드셋 마이크’로 개조 해 드립니다. (삐- 소리없이 웅장하고 맑은 소리를 책임지겠습니다.)!!



• 무선 마이크
◆ 고성능 헤드셋 (귀걸이)마이크

• 법당전용 스피커



• 일반 마이크 V-6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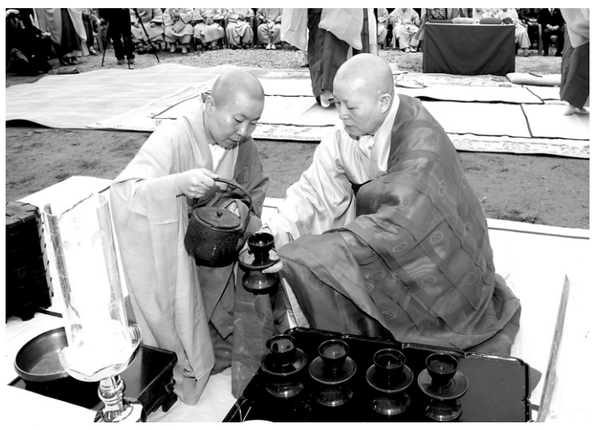
◆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고성능 탁상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수륙재 문화재 등재, 포교원도 힘보태


서울 진관사 국행수륙대재서 헌다하는 주지 계호 스님


동해 삼화사에서 펼쳐진 국행수륙대재 장면

진관사 · 삼화사 설행 및 학술대회 개최

수륙재의 중요무형문화재 등재를 앞두고 서울 진관사와 동해 삼화사가 시연회와 학술세미나를 잇따라 연 가운데 종단과 지자체의 지원 약속 등이 이어지고 있다.

진관사 수륙재, 박원순 서울시장 지원 약속

서울 진관사(주지 계호)와 진관사수륙재보존회는 10월 13~14일 2000여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진관사 경내에서 '국행수륙대재'를 설행했다.

진관사 수륙재는 조선시대 나라의 안녕과 국민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 봉행된 행사를 계승한 것으로 낮재와 밤재 이부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진관사는 태조 6년인 1397년 59칸에 달하는 수륙사(水陸社)가 건립된 국행수륙사찰로 태종 재위 18년 성녕대군을 위한 수륙재를 비롯해 성종의 수륙재 등 조선왕실의 재가 진행됐다.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은 "수륙대재는 무형, 유형의 가치를 후대에 전해야 할 귀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수륙재의 의미를 강조했다.

14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진관사를 찾아 수륙사지(水陸社址)를 둘러보고 수륙대재에 참석해 지원을 약속했다.

박원순 시장은 "수륙사지를 살펴보고 수륙대재에 동참해보니 오랫동안 간직해야 할 문화유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삼화사수륙재, 문화재 신청 후 실사 진행

이와 함께 동해 삼화사(주지 원명)와 삼화사수륙재보존회는 10월 19~21일 삼화사 경내에서 국행수륙대재를 설행했다.

이번 삼화사 국행수륙대재에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신규등록지정을 위한 문화재청 조사위원단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삼화사는 태조 4년인 1395년 고려 왕족에 대한 천도 및 사회통합을 위해 수륙도량으로 정해진 뒤 매년 봄, 가을에 수륙재가 설행됐다. 숭유억불정책으로 단절된 삼화사 수륙재는 2005년 〈천지명양수륙재의 찬요〉(1547년 덕주사 판)가 삼화사에서 발견되며 이에 기반해 매년 설행되고 있다.

이날 동해시 관계자는 "문화재 등재와 함께 떡나눔보시 등이 전개되는 축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화사수륙재보존회는 이에 앞선 18일 학술세미나도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상길 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원은 "일제가 범패를 금지한 이유는 범패가 단순히 불교의례에 그치지 않고 한민족 문화전통으로서 민족성을 발현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수륙재에서 불교의례가 지닌 사회적 기능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탁효정 한국학연구원 전임연구원은 "태조는 고려 왕씨들을 추모하기 위해 삼척 삼화사와 남해 견암사, 개성 관음굴에서 수륙재를 치렀는데, 이 중 삼화사는 태조의 4대조인 목조를 비롯한 전주 이씨 일족이 원당으로 삼았던 곳"이라고 소개했다.

포교원, '수륙재 통한 포교활성화' 연찬회

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지원)도 10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수륙재를 통한 포교활성화'를 주제로 포교연찬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연찬회에는 포교연구실장 법상 스님이 '수륙재를 통한 포교활성화'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며 이성운 박사(동국대 강사)가 '포교활용을 위한 수륙재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삼화사 주지 원명 스님과 교육원 교수사인 태경 스님이 토론할 예정이다. 또 윤소희 박사(동국대 강사)가 '수륙재를 통한 문화포교'를 주제로 발표하며 불찬법음연소장 혜일 스님과 이윤석 연세대 교수가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성찰과 반성 있는 깊은 믿음 필요"

월암 스님, 오강남 교수 '믿음'에 대한 대담


오강남 교수(좌)와 월암 스님이 믿음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문경 한산선원 선원장 월암 스님과 오강남 리자이나대 명예교수는 믿음에 대한 허심탄회한 생각을 나눴다. 밝은사람들연구소(소장 박찬욱)가 10월 16일 조계사 나무갤러리에서 마련한 간담회 자리에서다. 노덕현 기자

오강남 교수: 믿음에는 표층믿음과 심층믿음이 있습니다. 표층믿음에 머물면 믿음은 디딤돌이 아닌 걸림돌이 되고야 맙니다.

표층믿음은 지금의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믿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표층믿음에 속해 탐진치에 빠져있습니다. 지금의 내가 아니라 본래 나의 불성,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성을 찾게 도와주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먼저 이성을 활용해 자신의 믿음에 대한 자기 성찰과 반성이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에 다시 확신을 갖고 이성마저 뛰어 넘어야 합니다.

월암 스님: 정법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불립문자를 주장하는 선불교의 입장에서 표층믿음, 또 심층믿음 중 합리적인 믿음 부분은 극복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선지식과 스승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야 합니다. 간화선을 예로 들면 화두참선 시 화두에 대해 의심하기에 앞서 이 의심으로부터 내가 깨달음을 얻는다는 믿음이 전제돼야 함입니다.

어떤 스승들은 이를 들어 깨닫는다는 말 대신 믿음을 증득한다고도 표현합니다. 손을 들어 달을 가르키는데 사람들이 손가락만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문자와 기호로 종교를 접하더라도 어느 단계에 가면 그 것마저 초월해야 합니다.

오강남 교수: 표층믿음에서 심층믿음으로 가지 못하는데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이를 반기지 않는 지도자와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기독교를 예로 든다면 4세기까지는 깨달음과 믿음을 모두 강조했습니다. 〈도마복음〉에서 예수는 믿으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로마제국으로부터 공인 받으며 통치이데올로기화 되며 깨달음을 강조하는 부분이 점차 사라집니다. 하층민, 하위계층에서 깨달음, 신과의 합일은 사회구조와 교회계층 자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월암 스님: 한국불교를 봐도 기복을 통해 세속의 이득을 취하려는 불자들이 많습니다. 방편법으로 8만 4천법이 설해졌지만 그 근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방편 자체가 목적이 돼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이는 앞선 선지식들이 더 많이 이끌어 주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 대중들이 마음을 열게하고 믿음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해야 합니다. 수행불교로 나가야 합니다.

차인들 수행정신 선차 축제로 꽃피다

10월 18일 제7회 문화교류대회 서울서 개막…차 시연회 등 선뵈

세계 차인들의 선차 축제가 창설 후 처음으로 서울에서 성대히 열렸다. 세계선차대회조직위원회(위원장 최석환)는 10월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제7회 세계선차문화교류대회'를 개막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헌다와 대회사, 축사 등이 이어졌다.

최석환 대회장(차의세계 대표)은 "1000년 전 구산선문의 조사들로부터 이 땅에 선차향의 꽃을 피운 이래 차와 선의 기나긴 세월은 이어져 왔다"며 "선차를 꽃피운 한국땅에서 세계선차계의 원로와 불교계 인사들을 모시고 교류대회를 열게돼 기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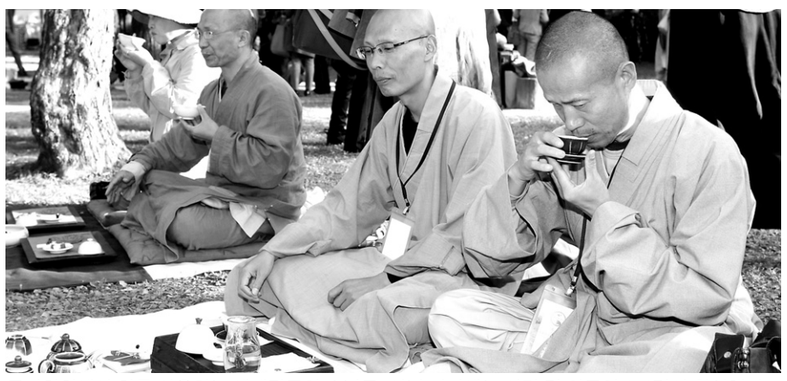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문화부장 진명 스님이 대독을 통해 "선차는 불교의 맥과 흐름을 함께 이어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번 대회의 의미가 크다"고 치사했다.

선차문화교류대회는 개막식 이후 학술대회와 두리차회, 교류대회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학술대회에서 상원사 용문선원장 의정스님은 '고 청규를 통해 본 한국 선가의 차생활' 기조발제를 통해 "선차례는 조사선이 남긴 귀중한 선문화이자 선종의 자산"이라며 "선이 21세기 문명의 대안사상으로 역할을 다하려면 삶 전체의 모든 분야에 실용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자사 대은 스님은 '무상선사와 대자선차' 발제를 통해 "신라 무상선사가 대자사에 선차를 전했으며 원오극근 선사로 전해져 '끽다거'로 선차문화를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양산 통도사 주지 원명 스님의 '경봉정석의 다선일미론' 중국 구단 선생의 '태고보우와 석옥청공은 통한다'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두리차회에서 차를 시음하는 세계각국의 스님들. 이날 자리에는 시민 및 외국인 150명이 참석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학술대회에 이어 오후4시부터 창경궁 앞뜰에서는 두리차회가 펼쳐졌다. 이어 19일 서울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는 해동불교 법음단의 바라춤, 고선다회의 무상선다도 등 4개국 15개 팀이 펼치는 선차문화교류 공연이 진행돼 큰 호응을 받았다.

이어 문화교류대회 참가자들은 10월 20~21일 경남 하동과 전남 보성을 순례하고, 21일 장흥 보림사에서 헌다 의식을 끝으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노덕현 기자

"가사는 모든 중생 수행 이끄는 위의"

천태종 가사보존위 창립기념 학술대회 성료

원각불교사상연구원(원장 권기종)은 10월 14일 서울 관문사에서 천태종 가사보존위원회 창립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가사의 변천과 전승'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총무원장 대행 무원 스님은 "삼보의 상징인 가사는 삼보에 귀의한 모든 중생들의 신앙과 수행을 이끄는 위의를 담고 있다"며 "가사의 위신력과 청정성 등을 알고 경외하는 자체가 이미 수행의 한 과정"이라고 법어를 내렸다.

이날 김경숙 조계종 의제실무연구회 연구원은 '한국 가사의 특징' 주제발표를 통해 "신라 시대 가사에는 첩에 '옴'자 등이 있고, 고려시대 가사는 수가사였다. 조선시대 가사는 직물에 무늬를 직조해 불법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노덕현 기자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 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147-2020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 국 보 건 교 육 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연인원 4만명이 참가하는 템플스테이도량

성지순례와 함께하는 엔터테인먼트 골굴사

오감으로 느끼는 생생한 문화체험
보고 듣고 따라하고 느낌으로 배운다
선무도와 불교종합예술공연 – 체험 – 감동의 파노라마


사천왕 四天王 DEVAS GUARDIAN

1500년 마애불의 미소가 삼세업장을 녹여주는 골굴사

◆ 주변성지 : 기림사, 오어사, 석굴암, 문무대왕 수중릉



◆ 선무도 공연 ◆
매일 오전11시, 오후3시 30분(무료공연)
월요일은 쉽니다.

선무도총본산 골굴사 재)선무도 대금강문
☎ 054)744-1689 / 775-1689 www.sunmudo.com

사찰음식, 전주의 입맛 사로잡다

불교문화사업단, 사찰음식 홍보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법진)은 대한민국 맛의 1번지 전주에서 진행되는 한국음식 관광축제 '2012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와 '2012 전주비빔밥축제'에 참가해 사찰음식이 지향하는 정신적 가치와 중요성을 전 세계인들에게 알렸다.

10월 18~22일까지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힐링푸드(Healing Food), 사찰음식'이라는 주제로 한식문화관 사찰음식부스에서 사찰음식을 전시하고 홍보에 나섰다.

'생명을 살리는 발효'라는 엑스포 주제에 맞춰 적문 스님, 우관 스님, 정관 스님 등 사찰음식 명인 스님들이 출품한 사찰음식이 실물 전시되고 부스에는 복분자 무장아찌, 명이 장아찌등의 각종 장아찌들과 사찰 신선로, 연근 삼색튀김, 오이 물김치 등의 사찰음식 20여 가지가 전시돼 관람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개막식에 참가한 20여 개국 350개 기업과 기관 관계자들도 사찰음식 부스를 방문해 사찰음식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을 반영했다.

전주 발효식품 엑스포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가수 겸 연기자 장나라씨도 사찰음식 부스를 방문해 정관 스님의 설명을 듣고 많은 관심을 표했다.

장나라씨는 "외국활동을 하면서 한식의 세계화를 몸으로 직접 느끼고 있다"며 "특히 사찰음식을 비롯한 한식이 한국의 멋과 맛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주 발효식품 엑스포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가수 겸 연기자 장나라씨(사진 맨 오른쪽)도 사찰음식 부스를 방문해 정관 스님의 설명을 듣고 많은 관심을 표했다.

전주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고 있다는 캐나다 출신의 캘리(kally)씨는 사찰음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주에 살면서 다양한 한국음식을 접했지만 사찰음식은 일반 한식과 차별성이 느껴진다" 며 "직접 먹어볼 수 없어 아쉽지만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발효식품 엑스포 기간 동안에는 적문 스님, 정관 스님, 우관 스님이 매일 직접 강사로 나서 작설차 애호박 전병말이, 함초장아찌 밥, 유자청도라지 생채의 조리법을 직접 시연했다. 또한 참가자들이 체험하는 '사찰음식 쿠킹클래스'에는 사찰음식을 배우려는 일반참가자들로 성황을 이루었다.

같은 기간 전주시 교동의 한옥마을일원에서 열리는 '2012 전주비빔밥축제'에도 '사찰음식 무료시식 및 만들기 체험'이 진행됐다.

사찰음식 특화사찰로 지정된 대전 영선사 법송 스님과 신도들이 참여해 오전 오후 4차례에 걸쳐 '연잎밥 만들기 체험'과 도토리묵구이, 삭힌 깻잎밥, 사찰비빔밥 등 시식회를 열었다.

사찰음식 체험 참가자들은 올바른 식문화운동에 동참할 것을 다짐하는 '올바른 식문화 운동 실천서약서'에 서명하고 사찰음식 체험에 참여했다.

정병호(전주시 중화산동)씨는 "일반음식과 달리 담백하고 그윽한 향이 배어있어 독특한 맛을 느낄 수 있었다" 며 "필요한 만큼의 음식만 준비해서 먹는 습관을 들이겠다"고 말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단장 법진 스님은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번 2012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와 전주비빔밥축제에 사찰음식을 선보이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며 "사찰음식이 가지고 있는 고귀한 가치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한국의 우수한 식문화를 널리 대중화하고 세계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음식 관광축제 '2012 전주 국제발효식품 엑스포'는 20여개국 350여개 기업과 기관에서 참여하고 연인원 55만 명의 관람객이 엑스포 전시장을 찾고 있다.

불교문화 사업단은 템플스테이 10주년을 맞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10월 31일부터 조계사 주변에서 10주년 기념식과 전시회,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한다. 또한 전국 109개 운영 사찰에서는 10월까지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을 초청한 템플스테이 체험행사와 특별 이벤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영암지역민들과 열린 도량 만들 것"

도갑사 주지 설도 스님 취임법회 봉행



도갑사는 도선국사 문화예술제 및 주지 설도 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주지 설도 스님

영암 도갑사(주지 설도)가 도선국사 탄신 1185주년을 맞아 지난 10월 10일 경내에서 도선국사 문화예술제 및 주지 설도 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도갑사 주지로 취임한 설도 스님은 "도선국사는 기운이 부족한 곳에는 기운을 북돋아주고, 넘치는 곳은 그 기운이 잘 흐르도록 하여 이 땅의 민중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지도했다"며, "도선국사의 애민애족하는 마음과 수행가풍을 이어받아 도갑사가 지역민들이 함께 하는 도량으로 만들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행사에는 대흥사 주지 범각 스님, 조계종 법규위원 몽산 스님을 비롯해 김일태 영암군수, 하대주 신도회장 등 8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문화예술제에는 도선국사 다례제, 도선국사 기념법요식 및 주지 취임식이 봉행됐다. 이어 '뮤지컬 제작과 에피소드'라는 주제로 한국 최고의 뮤지컬 프로듀서인 박명성 선생(신시컴퍼니 대표)의 특별강연이 진행됐으며, 대적광전 앞 특설무대에서는 산사음악회가 개최됐다. 산사음악회에는 노래하는 스님인 범능 스님과 가수 이용, 현숙 등이 출연해 관중들에게 가을음악의 진수를 선사했다.

도선국사 문화예술제는 2006년을 시작으로 올해 7회째 맞이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익산불교신도회 이웃에 자비의 연탄 배달

익산지역 불자들이 연탄으로 겨울 난방을 하고 있는 어려운 이웃 58가구에 1만 1000여 장의 난방용 연탄을 전달했다.

익산불교신도연합회(회장 박중근)는 10월 14일 익산시청에서 이춘석 국회의원, 이한수 시장, 김대오 시의장과 불자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자비의 연탄나누기 발대식을 갖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의 가정을 방문에 연탄을 배달했다.

박중근 회장은 "해마다 독거어르신들이나 생활보호 대상자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을 직접 배달해 오고 있다" 며 "어려운 이웃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따뜻한 마음이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익산불자들이 전달한 연탄(약 600만원 상당)은 지역의 사찰과 스님, 불자들 후원금을 모아 익산시와 주민센터에서 추천한 어려운 가정에 직접 배달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익산불교신도연합회는 10월 14일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 1만 1000여 장을 전달했다.

내장사, 첫 산사음악회 열어

내장산 산봉우리들이 붉게 물들고 있는 가을 단풍의 명소, 정읍 내장사에 주옥같은 우리 가곡의 향연이 펼쳐졌다.

내장사(주지 지선)는 10월 12일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제1회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내장사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처음 열린 산사음악회는 내장사 서래합창단과 해금 채수경, 소프라노 이세진 등 음악인들이 '산들바람' '섬집 아기' 등 우리 귀에 익은 가곡과 동요 등을 선보였다.



지선 스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소통하고 화합으로 가는 작은 길을 여는 의미로 산사음악회를 마련했다"며 "철마다 시인묵객들이 찾아 시심을 노래한 내장사에서 가을 추억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포교원 전북지역 불교대학 연수교육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이 전북지역 신도전문교육기관인 4개 불교대학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10월 13일 김제 금산사 개산 14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이번 연수교육은 화엄불교대학, 이리불교대학, 남원불교대학, 참좋은 우리절 불교대학 등 전북지역의 4개 불교대학 재학생 190명이 동참했다.

문화국장 수진스님의 강의로 진행된 이날 연수교육은 종단의 이해와 신도로서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 4시간동안 이어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금산사 추억의 템플스테이 개최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가 사찰음식 체험관 준공을 자축하고 그동안 금산사 템플스테이를 경험했던 참가자들을 초청하여 '추억의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10월 13~14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열리는 추억의 템플스테이는 사찰음식 시식, 탁본체험, 풍물장터에 이어 저녁7시부터는 가을 산사음악회가 열렸다.

행사가 진행되는 금산사 서래선원 곳곳에 형형색색의 소원 한지등이 불을 밝혀 분위기를 고조시킨 가운데 참가자들은 삼삼오오 지난 템플스테이의 기억을 더듬고 함께 체험했던 산사에서의 추억을 되새겼다.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과 주지 원행 스님,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진행된 산사음악회는 재즈피아니스트 안병주, 국악 크로스오버 AUX, 가수 김용진, 가수 조성일씨 등이 출연해 산사에서 맞이하는 깊은 추억을 되새기고 지난 템플스테이를 회상해 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올해로 다섯 번째 열리는 이번 행사는 금산사 템플스테이가 시작된 지난 2004년 이후 5만명에 이르는 참가자들에게 대한 작은 감사 이벤트로 매년 가을에 개최돼 왔다.


추억의 템플스테이 행사에서는 사찰음식 시식, 탁본체험, 풍물장터에 이어 저녁7시 부터는 가을 산사음악회가 열렸다.

금산사 수련원장 일감 스님은 "금산사 추억의 템플스테이는 그동안 템플스테이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함께 꾸미는 가을 한마당이다"며 "공감의 시간, 소통의 장소 템플스테이에서 가을 산사의 정취를 느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뷰 출가의식 지원
신뷰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뷰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대장경 새로운 천년을 꿈꾸다

음악회 · 뮤지컬 암자탐방 등 풍성한 축제로 시민 찾아


2013년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을 기념하는 기념행사가 10월 26~28일까지 합천군 가야면 일대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대장경천년축전 행사 장면.

2013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성공을 기원하는 기념행사가 경남 합천에서 열린다.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는 10월 26일~28일까지 합천군 가야면 야천리 대장경축전 주행사장에서 2013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새로운 천년을 향한 꿈을 꾸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념행사는 내년 9월 개막하는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행사로는 ▷공식행사인 평화상징 기념식수와 대장경지킴이 서약식 ▷성철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 특별전 및 해인사 100년 전 모습 사진전 ▷대장경 음악회 및 창작 뮤지컬 '위대한 대장경' 공연 등이 펼쳐진다. 또 장승과 솟대 장인초청 체험, 대장경 판각, 소망 팔찌 만들기 등 체험행사가 열리고 특별행사로 소리길 걷기행사 및 해인사 암자비경 탐방도 열린다.

특히, 26일 전야제 행사로 2013대장경축전 성공기원을 위한 대장경음악회가 열린다. 박현빈, 문희옥, 전영록, 정수라, 도신스님 등 유명가수를 초청 행사의 서막을 알려 한층 행사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또한 지난 9월 26일 개막한 성철스님 100주년 특별전을 유치해, 스님께서 쓰던 물건과 누더기, 손수 기운 덧버선 등 유품과 글씨, 사진 등 60점을 관람할 수 있다. 해인사 암자비경 탐방은 지족암-희랑대-백련암과 용탑선원-홍제암-완당암 등을 돌아보는 2개 코스에서 열린다. 참가 신청은 조직위원회 홈페이지(www.tripitakafair.com)에서 받는다. 해인사 소리길 걷기 대회에는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 T셔츠를 제공하고 90세 이상 참가자는 현장에서 기념상품을 지급하는 이벤트 행사도 갖는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범어사 팔관회… 10월 12~14일 범어사 일대서 개최

호국위령대재 등 행사 다채


범어사 팔관회가 10월 12일~14일 3일간 범어사 일대에서 개최됐다.

신라 · 고려시대의 호국불교 의식을 재현한 팔관회가 10월 12일~14일 3일간 범어사 일대에서 개최됐다.

부산시불교연합회 및 신도회가 주최한 행사는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부산불교연합회 회장), 화산스님(부산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법민 스님(부산불교연합회 상임부회장), 허남식 부산시장, 부산시의회 제종모 의장, 김석조(부산광역시의회 의장), 이윤희(부산불교연합회 회장) 등 사부대중이 참여했다.

팔관회는 기획위원장인 심산 스님(흥법사 주지)의 사회로 범어사강원 학인스님들의 법고와 범종 5타와 함께 범산 스님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됐다. 호국영령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호국영령위령대재, 범어사 산문에서 대웅전까지 300여 명의 재현단이 행렬하는 고려국왕 친영행렬, 팔관회 재현 법회, 대신들이 국왕에게 축수를 올리는 '대신조하의식 등이 열렸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분황사 원효예술제 성료

10월 14일…경주서

제16회 원효예술제가 10월 14일 경주 분황사 대웅전 앞 마당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분황사 주지 종우스님과 원효학연구원이사장 성타 스님, 불국사 관장 종상 스님을 비롯한 3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분황사 주지 종우 스님은 "원효성사를 선양하고 무애한 정신을 이어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불국사 관장 종상스님은 발원문을 통해 "인류의 염원인 세계평화와 시방세계가 두루 불국정토 되도록 하시옵소서"라고 발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부산파라미타 청소년 합창제

대상에 송곡여고 수상



(사)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백명숙)가 주최하는 '제5회 대한민국 청소년 합창제'가 10월 13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렸다. 〈사진 오른쪽〉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상금200만원)은 서울 송곡여고가 수상했으며 ▷금상(부산시장상, 상금150만원)은 경남의 창원여고와 부산의 금정중학교 ▷은상(부산시교육감상, 상금100만원)은 경기 광남고와 경남 김해여자중 ▷동상(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총장상)은 경기 매향중과 부산 해연중 ▷장려상은 부산의 해동중, 경남 웅상중, 경남 신주중에서 각각 수상했다.

송곡여고(교장 이상준) 스피나토합창단(사진 가운데)은 민요곡 '베틀가'와 자유곡 '풍당풍당'을 아름다운 하모니로 연출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한국불교달마종 총무원장 이취임식

10월 11일… 포항 무량사서

참선을 통한 내적 관찰과 자기 성찰로 깨달음을 주창한 (사) 한국불교 달마종의 총무원장 이취임식이 10월 11일 포항시 흥해읍 무량사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한국달마종 사암연합회 회장 용현 스님과 김성경 포항시 부시장, 반야종 총무원장 동화사 지법 스님, 태고종 경북교구 원륜 부원장 무량복지재단 이사진을 비롯한 2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2대 총무원장에 취임한 법은 스님은 "달마의 종지를 계승 종단의 화합과 재도약을 위해 대내외적으로는 본 종단 종도들의 화합과 안정을 위해 힘쓸 것이다. 또한 달마종의 재도약을 위한 중창불사를 이룰 것"이라고 취임사를 전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글로벌시대 불사 '옛것 존중부터 시작'

석굴암의 세계문화유산적 가치는 본존불의 조형미나 좌향의 의미에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석굴을 축조한 재료나 조각을 위해 사용한 석재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기도 하다. 주변과의 조화가 석굴암의 조형적 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었다는 뜻이다.

오래전에 만들어진 건물이나 조형물의 재료는 가까이에서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먼 곳에서부터 운반해온 재료는 질감이나 색채가 주변의 그것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이질적이 되어 좋은 작품을 만들기가 어려워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찰경관은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다. 특히 돌을 사용해서 만든 요소가 많은데, 석단, 계단, 화계, 다리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돌요소들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돌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발굴조사과정에서 실시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이다. 또한 돌을 가공하는 정도에 있어서도 동질적인 기법을 사용하여 요소 상호간에 이질감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였다.

최근 들어 사찰의 기능이 복잡해지고, 불자들의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이 절 저 절에서 불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불사는 예전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새롭게 고쳐 만드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예전에 사용하였던 재료와 전혀 다른 물성을 가진 것을 사용하거나 예전에 만들어진 것과 가공기법을 전혀 다르게 함으로써 고찰이 가진 아름다움을 망가뜨리는 사례를 쉽게 발견한다. 예의 사찰을 경영하는 스님이나 종무원들의 안목이 낮기 때문이다.

석산에서 금방 발파해서 가져온 돌을 다듬지도 않고 사용하는 경우, 어느 지역의 돌이 좋다고 해서 색상이나 질감차이가 많은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돌을 가공하는 방법을 달리하는 경우, 규모가 다른 돌을 사용하는 경우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기존의 것과는 다른 재료를 사용하여 불사를 하는 경우에는 여지없이 고찰 본래의 경관성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경관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불사는 전시효과를 얻기 위해서 혹은 그 절의 경제력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찰 본래의 경관성이나 조형적 가치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불자들의 신앙생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은 선인들이 만들어놓은 옛 것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 가치를 통해서 세계화를 이루어야 하는 글로벌 시대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오래된 고찰의 경관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화강석 계단. 사진은 경북 ㅂ사찰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新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밀납초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 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삼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강화사자밭약쑥양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① 약쑥초 90cm ×90cm
② 약쑥초 연봉 원기둥 7.0ϕ×34cm
③ 약쑥초 돈타레 5.6ϕ×27cm
④ 약쑥초 밀대 4.7ϕ×25cm
⑤ 약쑥초 1호 5.9ϕ×18cm
⑥ 약쑥초 2호 5.9ϕ×14cm
⑦ 약쑥초 3호 4.7ϕ×13cm
⑧ 약쑥초 4호 4.7ϕ×10cm
⑨ 약쑥초 4호 반야심경 4.7ϕ×10cm
⑩ 약쑥초 3호 반야심경 4.7ϕ×13cm
⑪ 밀납초 2호 반야심경 5.9ϕ×14cm
⑫ 약쑥초 1호 반야심경 5.9ϕ×18cm
⑬ 약쑥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용)
⑮ 약쑥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연화,금호랑이,금용)

한봉밀납양초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①

① 밀납초 90cm ×90cm
② 밀납초 연봉 원기둥 7.0ϕ×34cm
③ 밀납초 돈타레 5.6ϕ×27cm
④ 밀납초 밀대 4.7ϕ×25cm
⑤ 밀납초 1호 5.9ϕ×18cm
⑥ 밀납초 2호 5.9ϕ×14cm
⑦ 밀납초 3호 4.7ϕ×13cm
⑧ 밀납초 4호 4.7ϕ×10cm
⑨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ϕ×10cm
⑩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ϕ×13cm
⑪ 밀납초 2호 반야심경 5.9ϕ×14cm
⑫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ϕ×18cm
⑬ 밀납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용)
⑮ 밀납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연화,금호랑이,금용)


• 도자기 인등


• 인등용 파라핀 오일 : 국내산 원액 / 제조–삼환양초

New 꽃과 나비


3*6연꽃나비A

3*6연꽃나비B

원기둥나비


노랑 연두 백색 핑크 환타 주황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오봉산 석굴암 가는 길은 가보고 싶은 길



오봉산 관음암 중턱에 자리잡은 석굴암, 10월 20일 예정된 단풍음악제 준비로 도량이 분주하다. 인근 군부대 장병들이 울력을 나와 음악제 준비를 돕고 있다.

⑭ 북한산 우이령길 그리고 석굴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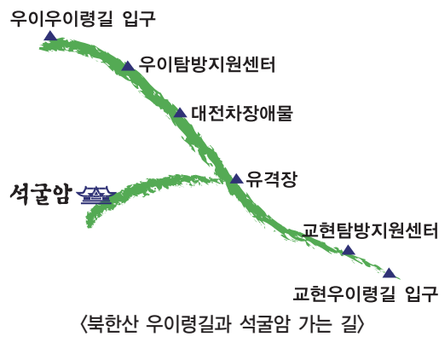
가을꽃과 봄꽃은 분명 달랐다. 봄꽃은 햇살 속에서 보았고, 가을꽃은 바람 속에서 본다. 봄꽃은 이름을 불렀고, 가을꽃은 이름을 찾아야 한다. 봄꽃은 피어났고, 가을꽃은 나타났다. 철새처럼 나타난 가을꽃들이 길을 알리고 있다. 10월 15일 북한산 둘레길 21구간 우이령길을 걸었다. 그 길엔 쉽게 갈 수 없는 절, 석굴암이 있다.

우이령(소귀고개)길은 교현탐방지원센터에서 우이탐방지원센터까지 걷는 길로 총 길이는 6.8km이고 모두 걷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3시간 30분이다.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1번 출구)에서 버스 34번, 704번을 타고 석굴암 입구에서 내리면 길을 시작할 수 있다. 우이령길은 1968년 북한무장공비의 청와대 침투사건으로 인해 민간인의 출입이 전면 금지 되었다가 2009년 7월 탐방 예약제를 실시하면서 개방된 길로 자연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는 길이다. 생태계 보존을 위해 일일 예약 인원을 100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북한산국립공원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65세 이상은 전화로 예약할 수 있다. 예약 확인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1일 전까지 예약을 실시한 탐방객을 대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출입이 허용되고, 탐방객은 오후 4시까지 하산해야 한다.

"탕탕, 탕탕탕…." 우이령길엔 군부대가 많다. 가을을 머금기 시작한 숲이 차가운 총탄을 받아내고 있다. 길은 잘 다진 흙길이어서 보행감이 좋다. 길의 한 쪽은 군부대의 담장이 따라오고, 또 한 쪽은 숲이 따라온다. 길에 들어서서 한 동안은 총성을 들으며 걸어야 한다. 산새소리를 밀어내고 들려오는 총성이 멀리 또 하나의 국토가 있음을 알린다. 약 3km쯤 걸으면 삼거리가 나오는데, 둘레길을 벗어나 왼쪽으로 석굴암 가는 길이다. 석굴암까지 오르는 약 200m 길은 경사가 있다. 언제부터인지 총성이 멀어져 있었다. 산새소리가 들려온다. 풍경소리도 들려온다. 석굴암이다. 관음봉이 흰 구름을 이고, 일주문은 관음봉을 이고 있다. 북한산과 함께 북한산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는 도봉산. 서쪽 다섯 봉우리, 오봉(五峰)의 서남쪽에 있는 관음봉 중턱에 자리잡은 석굴암은 신라 문무왕 때 의상 대사가 창건했으며, 고려 공민왕 당시 왕사였던 나옹 화상이 3년 간 머물던 곳이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소실된 도량을 1954년부터 초안 스님이 수습했다. 복원불사는 기와 한 장 쌀 한 말을 일일이 걸어서 지고 날라야 했다. 불사를 이어받은 현 주지 도일 스님과 신도들의 지극정성으로 지금의 석굴암이 섰다. 산기슭엔 서로의 어깨를 짚은 당우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연등을 두르고 한 쪽에 물러서 있는 대웅전. 전쟁의 화마를 견디며 살아남은 나한전(석굴). 나한전 바위 지붕 위에 핀 넝쿨 단풍. 가을 햇빛에 나와 있는 장독들. 장독대 위에 범종각. 범종각 어깨를 짚고 선 삼성각. 그 위에 오봉산. 파란 가을 하늘. 그 넓은 하늘을 품은 작은 마당. 주지 스님(도일)이 마당을 거닌다. 석굴암은 10월 20일 단풍음악제를 연다. 주지 스님은 음악제 준비로 분주하다. 준비가 잘 되어가는 지 여쭙자 환하게 웃으신다. 꺼진 도량을 살려낸 스님에겐 큰일도 아닐 것이다. 손수 음악제 무대를 점검한다. 군부대 장병들이 울력을 나왔다. 손을 놓고 잠시 쉬는 시간. 석굴암에서 20년이 넘었다는 공양주가 초코파이 두 상자를 들고 나온다. "아가! 아가! 이거 먹고." 석굴암은 군사보호지역 안에 있다. 주위가 모두 군부대다. "잘 먹겠습니다." 역시 초코파이다. 군사보호지역 안에 있음으로 해서 겪는 어려움을 묻자. 공양주는 처음엔 별로 없다고 하다가 얼굴을 슬쩍 바꾼다. "왜 없었겠어요." 석굴암은 지리적 특성 때문에 겪어야 했던 어려움이 많았다. 지금도 크게 다를 것이 없지만 석굴암은 '신도'가 많지 않다. 아니 거의 없다. 다녀야 할 길이 우이령길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절로 가는 길 자체가 '통제' 속에 있어야 했던 석굴암으로서는 당연한 일이다. "그래도 주지 스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어요. 오히려 석굴암이 군인들 불자 만들기 좋은 절이라고 생각해요. 음악제 열리면 군부대에서 많이 옵니다. 도량 구석구석 꽉 찹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석굴암 단풍음악제는 하루 방문객이 몇 안 되는 석굴암으로서는 1년 중 가장 큰 행사이면서 그야말로 포교의 기회다. "잘 먹었습니다." 장병들이 다시 목장갑을 끼고 울력을 시작한다. 석굴암표 초코파이는 포교였다.



2009년부터 개방된 우이령길



〈북한산 우이령길과 석굴암 가는 길〉

석굴암을 나와 다시 우이령길에 선다. 왼쪽으로 저수지를 끼고 잠시 오르막을 오르면 폭신폭신한 흙길이 이어진다. 1km 쯤 걸으면 우이령 정상부다. 이제부터는 내리막이다. 소나무가 우거진 숲길엔 여러 종의 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우이령길은 긴 구간이다.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예약을 해야 걸을 수 있는 길이다.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석굴암은 그 길에 있다. 신경숙의 단편 소설 '부석사'에서 저자는 부석사를 아무나 갈 수 없는 절로 묘사한다. 소설 속에서 주인공들은 결국 부석사를 보지 못한다. 소설은 부석사를 보여주지 않는다. 갈 수 있는 길이지만 지금은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부석사에서 들려오는 종소리만을 들려주며 저자는 소설을 맺는다. 현실 속의 저자는 부석사를 다녀왔지만 "소설 속에서는 아무나 그 곳에 가게하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생각을 더하면 저자는 부석사를 가고 싶은 절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아무 때나 갈 수 없는 길은 가고 싶은 길이 되는 것이다. 석굴암 가는 길은 가고 싶은 길이 되어 가고 있었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발간 즉시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문분야
베스트셀러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원장이 들려주는
불안한 마음에 대한 또 하나의 처방전!
생각 off
생각사용설명서
지혜 on
전현수 지음
256쪽
15,000원
당신의 실패와 우울은 지나치게
생각이 많기 때문이다.
생각이 앞서 가면 그만큼
걱정거리가 늘어날 뿐이다
생각을 버리자
생각이 떠오르는 방식, 사라지는 방식 그리고
생각을 다스리는 방식
당신을 즐겁게 하고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던
생각에 대한 모든 것!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생태사회와 불교

생명, 그리고 모든 것이 연관된 종합적 이해

‘온생명’ 중중무진 상호의존 시스템

종이 한 장에 담긴 의미

“만일 당신이 시인이라면 이 한 장의 종이 안에서 구름이 흐르고 있음을 분명히 보게될 것입니다. 구름 없이는 비가 없으며, 비 없이는 나무가 자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무 없이 우리는 종이를 만들 수 없습니다. 종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구름이 필수적입니다. 만일 구름이 이곳에 없으면 이 종이도 여기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름과 종이가 서로 공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략)

만일 우리가 이 종이 안을 더욱 더 깊게 들여다 보면 그 안에는 햇빛을 보게 됩니다. 햇빛이 그 안에 없다면 숲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햇빛이 이 종이 안에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종이와 햇빛은 서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계속해 바라보면 우리는 그 나무를 베어 그것이 종이가 되도록 제재소로 운반해 간 나무꾼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밀가루를 봅니다. 그 나무꾼이 빵을 매일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빵을 만드는 밀가루를 이 종이 안에서 봅니다. 그리고 그 나무꾼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안에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라볼 때 이 모두가 없이는 이 한 장의 종이가 존재할 수 없음을 보게됩니다. 더욱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들이 그 안에 있음을 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어렵지 않으며 우리가 그 종이를 보고 있을 때 그 종이는 우리 시각의 일부인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이 종이와 함께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차명상 템플스테이(사진 왼쪽)와 마곡사 자비명상템플스테이(사진 오른쪽). 명상은 자기 수행 이외에도 인드라망의 세계관을 사유할 수 있는 중요한 수행법이다.

틱낫한 스님의 ‘평화로움’에 나온 이 말씀만큼 연기적 세계를 잘 표현한 글이 있을까? 다시한번 이 ‘종이 한장’이 여기에 오기까지 관련된 것을 살펴보자. 우선 나무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자르는 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운반하는 자동차가 있어야 한다. 또 자동차가 다닐 도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무를 켜는 공장이 있어야 한다. 종이를 만드는 펄프 공장도 있어야 한다. 그것을 책으로, 종이로 만드는 제지회사도 있어야 한다. 또한 그것을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유통회사도 있어야 하고, 이 종이를 판매할 문구점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는 그 문구점까지 버스를 타거나 자전거를 타야한다. 그래서 나는 구입하여 내손에 종이가 들려져 있다.

자 그럼 종이 한장의 연관이 이것만일까? 그렇지 않다. 나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비가 내려야 한다. 또한 비가 내리기 위해서는 구름도 있어야 한다. 구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다의 증발과 육지의 풀과 관목의 증산작용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바람도 불어야 하고 태양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달은 필요 없을까? 아니다 달도 있어야 한다. 달도 지구에 영향을 미쳐 밀물과 썰물이라는 자연현상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면 화성은 필요없을까. 더 나아가 목성, 토성 저 멀리 안드로메다 성운은 필요없을까? 필요하다. 그것들이 있어야 태양계가 존재하게 되고 그래야만 태양이나 금성과 화성, 달이 저 정도 거리에서 공전과 자전을 하며 지구의 사계절을 만들고 현재의 기온을 유지시켜 나무가 생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때문이다.

공간적, 시간적으로 무한대의 연관

당연히 곤충과 벌레도 있어야 한다. 또한 땅속에 많은 박테리아와 미생물, 설치류도 있어야 한다. 새들도 지저귀어야 한다. 짐승도 동물도 있어야 한다. 또한 자기와 같은 수많은 나무들이 존재해야 하며 자신과는 다르지만 더욱 다양한 많은 풀과 관목더미, 다른 종류의 나무들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샘물이 있어야 하고 계곡과 돌, 바위, 이끼, 바다도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지금의 저 나무는 저렇게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다.

톱과 이것을 운반하는 자동차가 있어야 한다면 그것을 만드는 공장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자동차는 공장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자동차를 발명되어 수 백년간 지금까지 기술개발과 발전으로 여기까지 온 그 과정이 없다면 현재의 자동차는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당연히 지금의 자동차와 공장 뿐아니라 과거의 기술과 사람, 공장들, 또 각각의 부속을 만드는 더 많은 공장과 기술이 존재해야 한다.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석유산업이 발전되어야 현재의 아스팔트원료를 생산할 수 있다. 도로는 지금까지의 석유기술과 산업이 고스란히 발전되어 있어줘야 한다. 각각 모두와 연관되어 있다. 목재를 가공하는 공장도 기계들도 개발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역시 과거의 수많은 발명과 기계들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다.

제지공장도 마찬가지다. 또한 이것을 책이나 노트 등의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오늘날과 같은 경제시스템과 정치, 사회, 소비시스템이 진화되어 있어줘야 한다.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나무를 자르는 사람의 부인이 있어야 하고 아이들도, 이들이 먹을 쌀과 곡식, 과일, 반찬, 그것을 만드는 모든 사람이 있어야 한다. 모두 연관되어 있다.

물건하나, 행위하나는 우주적 존재
연기적 깨달음은 우주적 각성 의미
한 생명 생존에 무생물도 존재해야
‘살생하지 말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자 이렇게 종이 한 장이 여기에 오기까지의 연관된 범위를 공간적으로 확장하면 보이지 않는 세균, 미생물부터 은하계 멀리 수많은 별들까지 모두가 연관되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다. 이뿐아니라 시간적으로도 과거의 과학 기술의 발전, 사회시스템과 그것을 만들어온 사람과 그때그때의 자연 사람 새, 짐승들, 그것도 인류가 존재할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더 거슬러 사람이 살기 이전의 모든 것이 존재했어야, 현재의 종이 한 장이 내게 올수 있는 것이다. 내 손에 들린 종이 한 장은 이들 모든 것의 공동작품인 것이다. 우주적 작품이라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

어떠한 물건도 가격을 매길 수 없다

그렇다면 종이만 그러할까? 내 손에 들려있는 ‘볼펜’도 다시 처음부터 연관된 것을 따져본다면 종이와 똑같이 공간적 시간적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 만들어낸 합작품이자 예술품이다.

이뿐아니다. 내손에 들어있는 컵, 접시, 핸드폰, 컴퓨터 등등. 내가 눈으로 만나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공간적 시간적으로 모든 것과 연관되어, 관계 맺어야만 존재할 수 있다. 전 우주적으로 빚어낸 창조물인 것이다. 다시말하면 물건하나, 행위하나는 결국 우주적 존재이며 엄청난 사건인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물건하나하나 소중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나무한 그루, 물한방울, 종이한장 모두 우주적 작품인데 어떻게 함부로 버리고 가치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연기적 깨달음’이란 바로 이러한 생명에 대한 우주적 각성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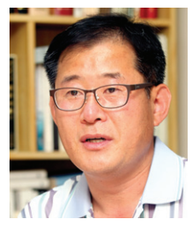
우리가 오늘처럼 물건에 가격을 매기는 것은 인류가 교환이 발생하기 시작한 불과 몇천년전 부터의 일이다. 내가 100원을 주고 산 노트가 과연 100원만의 가치를 갖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가격은 사회적 합의의 가치일뿐이다. 고유의 가치라고 할 수 없다. 그 고유의 가격은 우주적인 가치이며 돈으로 메길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다. 이것을 오늘날 산업사회처럼 ‘쓰레기’라고 말하며 ‘쓸데없다’, ‘쓸모없다’ 고 말할 수 있는가?

인도에 성지순례를 가면 인도장사꾼들이 많은 외국순례객들을 바가지를 씌워 평상가격 보다 몇배 높게 판매하는 것을 보고, 속았다고 억울해하고 분개한다. 그러나 가격이란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현재의 합의일 뿐 본래 가격이란 없다. 어떻게 물건의 가치를 돈의 양으로, 가격으로 판정할 수 있는가? 바로 그러한 가격의 개념 때문에 ‘싼 것, 하잘 것없는 것, 쓸데 없는것’이라는 관념이 생겨 물건을 함부로 하고, 쉽게 버리며 쓰레기를 발생하는 생활양식을 만들어온 것이다.

생명이란 곧, 이 모든 것이 연관된 그 총체

자 그럼 생명이란 무엇일까? 사람하나도 생명이다. 그러나 사람 한명만으로 살수 없다. 다른 사람들이 존재해야 한다. 하나하나는 개체생명이다. 그러나 한 생명이 생존하기 위해 다른 사람뿐아니라 다른 생명들이 있어야 한다. 또한 동물, 식물등의 생물만이 아니라 돌, 파람, 물등의 무생물들도 존재해 줘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기되어 있어야만 개체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하나 낱생명 개체생명만이 생명이 아니라, 서로 의존하고 의존하여 서로 존재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통틀어 하나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름하여 ‘온생명’이다.

이것이 생명이라면 ‘불살생’을 계율로하는 우리들에게 ‘살생을 하지 말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동물을 죽이거나 곤충을 죽이지 말라는 말로만 해석할 것인가? 그것으로만 인식하기에는 불교의 가르침은 더 깊다. ‘온생명’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돌, 바람, 물 등의 무생물도 낱생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거대한 시스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낱낱 촘촘히 중중첩첩이 연기되어 변화 상호의 존하는 이 시스템이 온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거나 파괴하는 행위가 바로 살생인 것이다.



유정길 (에코붓다 前 공동대표 생태사회 연구소 연구원)



부처님과의 깊은 문답… 설법제일 거목으로

⑥ 설법제일 부루나 존자

〈중〉설법제일이 되기까지



〈거조암 부루나 나한상〉

상수제자 사리불 몰라보고 설법해
바라문나라 코살라국에서 전법 펼쳐
바라문교 큰손 수닷타 · 수보리도 귀의
유마, "대중 마음 관찰 후 설법해야"



그림 · 김홍인

부루나의 등장과 귀의는 부처님과 교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여러 종교가 혼재하고 있었던 당시 인도에서 새롭게 나타난 부처님의 교단이 많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십대제자의 공이 컸던 것인데, 부루나 존자 역시 큰 역할을 한다.

사리불의 감탄

"그대의 설법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깊은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도 어렵지 않으니 누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듯합니다. 부루나 존자님." 부루나의 일곱 수레 설법을 듣고 난 사리불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그의 설법이 그토록 설득력 있고 감동적인 설법일 줄은 몰랐던 것이다. 부루나의 설법은 그야말로 비유의 정수였다. "어떻게 저의 이름을 아십니까?" 사리불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자 부루나는 놀랐다. "저는 사리불이라고 합니다. 존자의 이름과 명성은 이미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에서야 존자의 설법을 들었습니다." 사리불과 부루나는 그렇게 만났다. 밤이 깃든 숲에 마주 앉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이름을 처음 불렀다. 그리고 부처님의 상수제자인 사리불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에게 설법한 부루나는 부끄러워하며 절을 올렸다. 그 후로 부루나는 사리불을 도와 교단의 여러 일들을 보게 된다.

교단의 중심이 되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신지 2, 3년 쯤 지났을 때였다. 당시 인도는 16개의 나라가 번성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강대국이었던 마가다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코살라국 역시 큰 나라였다. 부처님의 존재를 알게 된 코살라국의 부호 수닷타는 마가다국 죽림정사에 계시는 부처님을 모셔오고 싶었다. 그래서 부처님이 머무실 정사를 짓기로 했다. 하지만 바라문이 지배하고 있던 코살라국에 부처님의 정사를 짓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마가다국에서는 부처님의 교단이 자리를 잡았지만 아직 코살라국에선 바라문이 절대적이었다.

"수닷타 장자님, 어찌된 일입니까? 그대는 우리 바라문교를 믿었고 공양도 올리지 않았습니까?" 코살라국의 대부호였던 수닷타는 바라문교의 '큰 손'이었다. 그런 사람이 다른 교단에 귀의했다는 것은 바라문 쪽에서 볼 때 큰 사건이었다. 코살라국은 술렁이기 시작한다.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불교와 바라문교가 부딪히기 시작했고 대중은 혼란에 빠진다. 그 때, 부처님은 부루나와 사리불을 코살라국으로 보낸다. 부루나는 사리불과 함께 코살라국에 불법을 전하기 시작한다. '12연기', '사성제', '팔정도' 등 부처님의 정수를 듣게 된 코살라국의 대중은 움직이기 시작했고, 급기야 바라문교의 수장인 복칼라사디마저 부처님의 가르침에 무릎을 꿇게 된다. 수보리 존자를 귀의시킨 일도 이때의 일이다.

부처님 가르침에 두 가지 의혹을 품다

부루나의 설법은 부처님과의 깊은 물음과 대답에서 왔다. 어느 날, 부루나가 대중 가운데서 일어나 부처님께 아뢴다. "세존이시여, 만약 세간의 모든 육근, 육입, 오음, 십이처, 십팔계 등이 모두가 본래 그대로 정정한 여래장(如來藏)이라면 어찌하여 홀연히 산하대지와 모든 현상적인 것들이 생기어서 변천을 하고 마침내 없어졌다가 다시 시작하곤 하는 것입니까? 부루나 존자는 모든 유위상은 순차적으로 변천하고 유동하면서 끝났다가 다시 시작되는데, 언제 비로소 끝나는 것이며, 이것이 무슨 도리인지를 물었다. 즉, 여래장이 청정한 것이라면 어찌하여 여러 가지 차별적인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물었다.

또 하나,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수화풍(地水火風)의 본성은 서로 화합되어 시방세계에 두루 가득히 융합되어서 항상 그대로 맑고 고요히 머문다고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흙의 성품이 허공계에 두루 충만하다면 어떻게 물의 성품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또한 물의 성품이 세계에 두루 충만하다면 불의 성품이 용납될 수 없을 것인데, 어떻게 물과 불 두 성품이 허공에 함께 두루하면서 서로 이기고 없애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흙의 성품은 그 근본이 탁하고 막히는 성질이 있고, 저 허공의 성품은 본래로 투명하여 통하는 성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막히고 통하는 그 두 가지 성품이 함께 법계에 두루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와 같은 도리를 모르겠습니다."

부루나의 두 번째 물음은, 지수화풍이 서로를 허용할 수 없는 것인데 원융하다 하니 그 이치에 대해 물은 것이다. 능엄경 4권 견도분에서 전하는 이 두 물음은 부루나가 만법의 근원을 묻는 것으로 부처님으로부터 여래장 묘진여성의 실체를 이끌어 낸다.

일승(一乘)한 이치

"부루나여! 네 말대로 본래 청정한 그대로가 청정한 묘각(妙覺)이라면 청정한 그 묘각에서 어찌하여 저 산하대지가 홀연히 생기게 되었을까 하는 의혹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너는 일찍이 여래가 항상 말하기를, 깨닫는 성품인 성각(性覺)은 묘하게 밝아 묘명(妙明)하고 본래로 깨닫고 아는 본각(本覺)은 명묘(明妙)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부처님의 설법이 시작된다. 각(覺)은 원래 밝은 것이라는 말씀이다. 다시 말해 밝음을 다시 더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보석의 밝음은 보석이 본래 가진 밝음이지 결코 보석과 밝음을 나누어 보석에 다시 밝음을 더해야 '밝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본각(여래장) 위에 다시 밝음(청정하다고 한 것)을 더하는(다시 말하는 것) 것은 일종의 허망함이라는 것이다. '여래장이 청정하다면' 이라고 시작한 것부터 잘못된 인식이라는 것이다. 부처님은 부루나가 잘못 인식한 '청정한 여래장'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아주는 것으로 시작해서 긴 법문을 이어간다. 이 부분에서 만법의 근원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설법이 전해지게 된다. "이렇게 요란함이 상대(相待)하여 피로함이 생기고 피로함이 오래되어 사념망상을 발하고 망상의 티끌로 인하여 본래로 맑고 밝은 자성이 스스로 혼탁하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티끌 같은 피로와 번뇌를 일으켰느니라. 번뇌가 일어나서는 세계가 되고 고요하게 돼서는 허공이 되었다. 그래서 허공은 한 결같고(同) 세계는 각별하게 다르니라(異). 저 동이(同異)가 없는 것이 참으로 유한한 진리(유위법 有爲法)가 되느니라." 산하대지가 생기는 것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이다. "각(覺)의 명(明)과 공(空)의 매(昧)가 상대하여 요동함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므로 풍륜이 있어서 세계를 집지(執持)하느니라." 이 대목에서 불교의 묘법이라고 하는 12연기 가운데 그 시원인 무명에서 행(行)이 생성되는 그 뿌리가 설해지게 된다.

사대(四大)가 원융한 이치를 밝히다

이어서 부처님이 두 번째 물음에 대해 말씀하신다. "부루나여 허공을 비유하면 허공의 본체는 어떠한 형상도 없으며, 저 모든 상이 자기의 성질은 발휘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는다. 무엇 때문인가? 부루나여! 저 태허공은 해가 비치면 밝고, 구름이 해를 막으면 어두우며, 바람이 불면 움직이고 비 온 뒤에 구름이 개이면 맑고, 기운이 응결되면 탁하며, 흙이 바람과 함께 쌓이면 연무를 이루고, 물이 맑으면 비친다. 참된 묘각의 밝음도 허공이 모든 상을 거절하지 않는 도리와 같다. 너는 허공의 밝음으로써 공이 드러난다고 하는데, 지수화풍의 사대 속에서 그들은 각각 공능을 나타내며, 각각 하나의 대(大)가 나타나게 됨으로써 하나가 나타나는 것이다. 지수화풍이 만약 동시에 함께 나타나게 되면 그들은 동시에 함께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함께 나타날 수 있는가? 부루나여! 마치 하나의 물속에 태양의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과 같다. 두 사람이 함께 이 태양의 그림자를 보면서 한 사람은 동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서쪽으로 간다면, 이 두 사람 모두 태양이 자기를 따라 오는 것을 보게 된다. 하나의 태양이 동쪽으로도 가고 서쪽으로도 간 것이다. 태양은 미리 준비된 목적지가 없으며, 하나의 실재하는 모습이 없다. 너는 마땅히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 태양은 하나인데, 어찌하여 각각의 사람을 따라가는가? 각 사람은 모두 자기를 따라오는 태양이 있으니, 이것은 태양이 하나라고 말할 수 없으며, 두 개가 나타난 것인데, 너는 어찌하여 하나가 나타났다고 말하는가? 이렇게 서로 전전하는 것이 허망한 모습이며, 조금도 근거가 없다." 사대가 각기 법계에 두루하지만 본래 성품이 공(空)하여 서로 용납되는 것임을, 원융할 서 있음을 말씀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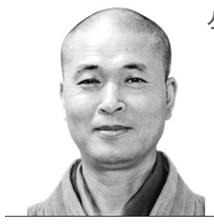
설법제일도 고개 숙인 유마의 설법

비록 세속의 옷을 입었으나 사문이 지키는 청정한 계율을 똑같이 받들고, 비록 속세에 살지만 삼계에 집착하지 않고, 처자가 있으나 항상 범행을 닦으며, 권속이 있으나 늘 그것을 멀리했으며, 비록 음식을 먹지만 선열로서 그 맛을 삼고, 정법을 지켜서 모든 이들로부터 공양 받는 이가 있었다. 부처님 당시 세속에서 가장 법력이 높았던 사람으로, 흔히 출가인들에게는 부처님이 계시고 세속에는 이 사람이 있다고 했다. 유마 거사다. 설법 제일인 부루나 존자도 유마 거사에게 큰 가르침을 받는다. 부루나 존자뿐만 아니라 십대제자를 비롯해 많은 부처님의 제자들이 그의 법력에 고개를 숙였다. 어느 날 부루나 존자가 숲에서 갓 출가한 비구들에게 법을 설하고 있었다. 마침 유마 거사가 숲을 지나가고 있었다. 부루나 존자의 설법을 듣게 된 유마 거사는 설법이 끝나자 부루나에게 다가가 말한다. "부루나 존자여, 먼저 그대가 선정에 들어 대중의 마음을 관찰한 후에 설법해야 합니다. 더러운 음식을 보배로 된 그릇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비구들의 마음이 생각하는 바를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유리를 수정과 같이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가 능히 중생의 근원을 알지 못하면서 소승법으로써 법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는 스스로 상처가 없는데 구태여 상처를 내지 마십시오. 큰 길을 가고자 한다면 작은 길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큰 바닷물을 소의 발자국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태양의 광명을 저 반딧불과 같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루나 존자여, 이들 비구는 오래 전에 대승의 마음을 내었으나 중간에 이 뜻을 잊어버린 것인데 어찌 소승법으로써 그들을 가르치십니까?" 유마 거사가 바로 삼매에 들어 비구들로 하여금 스스로 숙명을 알게 했다. 부루나는 유마 거사의 발에 머리 숙여 예배했다. 설법제일인 부루나 존자도 들어야 할 법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설법제일로 칭송된 부루나 존자의 명성은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었다. 오래 자란 나무였던 것이다. 많은 바람을 맞고, 많은 비를 맞았던 것이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바로잡습니다〉 지난 호(910호) 본 코너의 '부루나 상편' 중 사리불과 부루나가 만나는 부분의 '부처님께서 기원정사로 옮겨 계실 때였다.'에서 '기원정사'를 '죽림정사'로 바로 잡습니다.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아주 평범해져라

학승이 물었다.
"극히 작은 차이라도 있을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못 미치는 거야."
학승이 물었다.
"상대의 그릇에 맞추어 줄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굽어진 거야."

問 毫釐有差時如何 師云麤 云應機時如何 師云屈

도는 지극히 작은 차이도 용납하지 않는다. 이 문중에서 작은 차이는 태산과 같은 차이가 있다. 설사 사람의 근기에 맞추느라 약간 벗어났다 해도 용납되지 않는다.

옛 스님들은 천리 절벽에서 한 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고, 앉아서 죽고 서서 열반에 든다 해도 절대 근접하지 못한다고도 했으니, 도대체 도의 꼬리를 어떻게 해야 밟을 수 있을까? 방법은 있지만 가르쳐 주기가 어렵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사문의 행입니까?"
스님은 손을 펴 옷을 털었다.

問 如何是沙門行 師展手拂衣

수행자는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자꾸 평범해지다가 아주 평범해지면 그때에야 비로소 도천(道泉)에서 나오는 옥수(玉水)를 맛보게 된다. 그러기 전에는 자꾸 털어 내어라. 옳다 그르다, 사랑도 미움도.

학승이 물었다.
"불조(佛祖)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을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아는 사람이 없다."

問 祖佛命不斷處如何 師云 無人知

이 일을 아는 자라면 붓다와 조사의 명맥을 끊지 않고 계속 대를 잇게 하는 것이 유일하게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 부처는 부처인 것을 모른다. 조사는 조사인 것을 모른다. 이 땅에 부처와 조사를 아는 사람이 없을 때 비로소 명맥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 일은 스승이 구멍 없는 피리를 부는 것이고 제자가 귀 없는 솥을 받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학승이 물었다.
"중생에 응해주는 방편을 뭐라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중생에 응해주는 방편이라고 해."

問 未審權機喚作什麼 師云 喚作權機

깨달은 자도 방편을 방편이라 하고 도를 도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내밀한 뜻은 중생과 부처가 확연히 다르다. 조선시대 진묵 스님은 하루는 길을 가는데 철엽하는 속인들이 진묵 스님이 곡차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불러들이므로 함께 참석하여 곡차와 물고기탕을 먹었다. 그런데 한 속인이 중이 그렇게 고기를 먹어도 되는 것이냐고 야유를 하자, 진묵 스님은 엉덩이를 까고 앉았다. 그러자 물고기들이 모두 살아서 나와 항문에서 개울로 떨어져 내렸다. 잠시 후 진묵 스님은 말했다. "나는 물고기를 살리기 위하여 먹는다." 이 말에 대한 내밀한 뜻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학승이 물었다.
"학인이 최근에 총림에 들어와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원컨대 스님께서 잘 지시해 주십시오."
조주 스님이 말했다.
"총림에 들어오기 전에도 몰랐을 거야."

問 學人近入叢林不會 乞師指示 師云 未入叢林更是不會

머리 깎고 염의를 입고 수행함은 뭘 알려함이 아니다. 처음에도 모르고 나중에도 모르는 것이 정상이다. 어떤 선객이 만행하면서 선지식들을 찾아가서 묻자, 이상하게 모두 '모른다' 고만 대답했다. 뿐만 아니라, 법문을 들어도 모르는 것이 정상이라고 했다. 세월이 흘러 노승이 되어 선객들이 자신에게 물으러 오자, 할 수 없이 자신도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한 사미승이 "왜 모른다고만 대답하십니까?" 하고 묻자 "나는 모른다는 것만 알 뿐이야."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사미승이 "틀렸습니다."라고 하는 말에 그만 도를 깨닫게 되었다. 자, 과연 노승이 무엇을 때달았는지 아는 사람이 있는가?

무불선원 선원장



주성원의
기초 교리 〈36〉

업의 주체는 '나' 지만 영원한 '나' 없다

업-③ 업과 무아

불교에서는 과거의 업은 현재에, 현재의 업은 미래에 영향을 끼치는 힘을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자신이 짓는 업의 작용력을 인식하고 노력여하에 따라 미래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이 업의 주체는 말할 필요 없이 자기 자신이 된다. 자기 자신이 과거 · 현재 · 미래의 삼세에 걸쳐 사제와 연기법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수행하게 되면 깨달음에 다가갈 수 있다는 불교의 핵심사상이다. 그런데 불교의 또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 중에는 제법무아(諸法無我)가 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존재에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실체는 없다는 가르침이다. 이 말은 업을 짓는 행동의 주체인 '나' 라는 존재도 없다는 뜻이 된다. 이렇게 되면 삼세에 걸쳐 행하는 업의 주체는 무엇이고, 윤회하는 주체는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이 문제에 대해 불교에서는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영원한 실체로서의 주체는 부정하지만 변화하는 주체는 인정하는 것으로 해결한다. 현재의 업의 주체는 과거의 업의 주체와 완전히 동일하지도 완전히 다르지도 않은 것이다. 즉 생멸하고 변화하는 현상적인 존재로서의 주체이고, 업과 업의 과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업과 업의 주체를 동일시 하는 관점에서 업을 분석해 보면 업은 (1) 선악의 의도, (2) 의도에 따라 실제로 일어나는 행위, (3) 의도나 행위에 의해 잠재적으로 남게 되는 그 행위의 영향력으로서의 힘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로 분류된다.

이 중에서 첫 번째 '선악의 의도' 란 어떤 행위에 대한 동기나 목적을 말한다. 악한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악업(惡業)으로서 뚜렷한 힘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행위자의 의도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예컨대 운전미숙으로 사람을 치어 죽게 했다면 우리는 운전자가 잘못했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의도에 따라 실제로 일어나는 행위' 란 선하거나 악한 의도로 실제로 신체나 언어에 의해 행해지는 선하거나 악한 행동을 말한다. 불교에서는 선하거나 악한 의도를 의업(意業), 실제로 행해지는 신체에 의한 행위를 신업(身業), 실제로 행해지는 언어에 의한 행위를 구업(口業)이라고 한다. 이 세상에는 신업에 의한 폭력, 살인 등에서부터 구업에 의한 사기, 협박, 이간질 등에 이르기까지 의업을 기반으로 하는 수많은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행위들이 반드시 신 · 구 · 의 삼업을 다 갖추고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의도를 갖고 있었으나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행동에 착수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마는 경우도 있다. 업은 의도와 행위, 다시 말해 목적과 결과가 다 갖추어져야만 그 힘을 발휘한다.

세 번째 '의도나 행위에 의해 잠재적으로 남게 되는 영향력' 은 일종의 습관에 의한 잠재적인 힘을 말한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던 반드시 그 행위에 상응하는 영향력이 남는다는 의미이다. 예컨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공부가 습관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처음부터 열심히 하게 된 것은 아니었으나 힘들어도 참고 꾸준히 하다보면 열심히 한 공부의 영향력이 잠재적인 힘으로 남아 다음에 하는 공부를 좀 더 수월하게 해 주는 것이다.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나중엔 거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된다. 안 좋은 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처음이 어렵지 한번 시작한 도둑질은 어렵지 않다는 말이 있다.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행한 도둑질의 영향력이 잠재적인 힘으로 남아 다음의 도둑질을 더욱 쉽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우리 각자가 질 수 밖에 없고 선하거나 악한 행위의 결정권도 자신에게 있으며 업을 변화시킴으로써 업의 영향력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도 자신에게 있다. 이것이 불교에서 무아설을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 업의 주체의식을 강조하는 이유이다.

日 용곡대 불교학석사 · 前 본지기자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㊶



기쁨이 생겨난 자에게 몸이 안온해 집니다 몸이 안온해 진 자에게 행복이 느껴집니다

〈잘리야숫타(Jāliyasutta)〉

기쁨이나 즐거움을 싫어하고 슬픔이나 괴로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어디 사람뿐이겠는가. 모든 존재는 다 슬픔을 여의고 기쁨을 추구하며, 괴로움을 떠나서 즐거움을 구한다. 예외는 결코 없다.

기쁨, 즐거움, 안락, 안온 등의 대표적 상징어(象徵語)의 자리에 행복이 있다. 행복이라는 말이야말로 모든 존재들이 원하고 구하는 바이다. 그래서일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가, 많은 기업의 광고는 다투어 '행복' 을 팔고 있다. 행복이라는 말에 약한 우리 인간존재의 속성을 간파했기 때문일 것이다. 불교도 마찬가지로 행복을 말한다. 극락이라고 하는 이상세계 역시, 행복만이 가득한 곳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말이다. 얼마 전 어떤 '행복전도사' 의 자살사건은 우리에게 참으로 행복이 무엇인지, 또 행복을 추구하는 요즘의 트렌드가 올바른 것인지를 심각하게 묻게 하지 않는가? 그분은, 나도 가끔TV를 통해서 뵙던 분이다. 토크쇼나 아침의 주부대상 프로그램에서 행복을 설파하곤 했다. 하지만 본인이 정작으로 난치의 병에 걸리자, 자살로 그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화면을 통해서나마 알던 분이기에 많은 사람들은 충격에 잠길 수밖에 없었다. 나 역시 그랬다. 개인적으로, 난치의 질병으로 인해서 받는 고통의 크기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함부로 짐작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과연 '행복전도사' 의 마지막이 자살로 마감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분이 펼쳤던 생전의 '행복론' 에 물음표를 찍지 않을 수 없었다. 과연 행복은 무엇인가? 왜 우리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가?

그분이 펼쳤던 행복론의 실패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일까? 내 생각으로는, 행복을 추구하는 곳에, 더 나아가서 행복만을 추구하는 곳에 이미 문제가 싹트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다. 실제로 우리 인생에 행복만이 있을 수 있겠는가? 불행과 행복이 교차되는 것이, 어쩌면 더욱더 인생의 참모습이 아닐까?

불행이 없을 수 없다. 고난이 없을 수 없다. 질병이 없을 수 없다. 실패가 없을 수 없다. --- 이것이야말로 행복추구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불행을 어떻게 맞이하며, 불행과 함께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 속에서 '행복론' 은 시작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종교는, 특히 우리 불교는 이 세상에 완벽한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친다. 완벽한 행복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 세상' 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부정한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세에서 그 행복은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은 '이 세상' 의 버림을 통해서만 얻어진다.

이때 '이 세상' 은 탐욕이기도 하고, 악의와 원한이기도 하며, 게으름과 무기력이기도 하고, 흥분과 회한이기도 하고, 의심이나 의혹이기도 하다.(전재성 옮김, 『디가 니까야』, 한국빠알리성전협회, pp.362-363. 참조.) 그러한 장애들, 즉 '이 세상' 을 다 버린 뒤에서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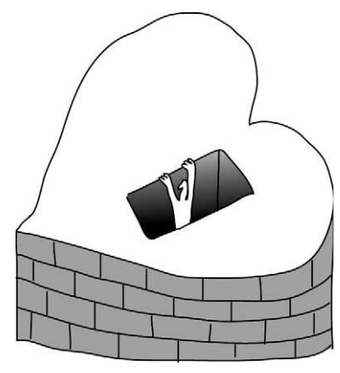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그러한 장애들을 다 버리면 기쁨이 찾아오고, 기쁨을 얻은 자에게는 몸의 안온이 따라온다. 몸이 안온해 진 자에게 행복이 찾아온다. 그러나, 주의하라. '행복' 이 결코 끝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을 느끼는 자에게 마음이 집중됩니다."(p.363)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행복은 결코, 우리의 삶이나 수행에서 목적이어서는 아니된다.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불행을 배척하지 말자. 불행과 함께 살아갈 수도 있을 때, 진정한 행복 역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행복전도사' 의 자살은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기에 충분했다. 늦었지만, 그분의 명복을 빈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불국사서 추사와의 재회 기다린 초의스님

초의스님은 학림암에서 추사를 처음 만난 후, 첫 만남의 설렘이 식지 않은 듯. 불국사에서 추사와의 재회를 오매불망 기다렸지만 허사가 되고 말았다. 그가 지은 《불국사회고》는 추사를 향한 그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시로, 그 정회(情懷)를 이렇게 노래했다.

오래도록 순시하고 있는 그대가 못내 그리워
(苦憶先生久在行)
자하문 밖 밝게 갠 하늘을 보네
(紫霞門外看新晴)
세상의 불국은 차라리 얻기라도 쉽지만
(佛國人間寧易得)
서로 만나서 편안한 정을 다할 수 있을까
(相邂姤可逐開情)

이 시는 초의스님이 추사를 기다리며 쓴 시이다. 초의는 이미 기림사에 오기 전부터 추사가 경주감영에 내려온다는 얘기를 듣고 추사와의 재회를 기약했는지도 모른다.

이는 그가 불국사를 순례하며 추사를 기다린 정황이나 추사 또한 1817년 4월 29일, 경주 무장사비 단편을 찾았던 사실에서 쉽게 이들의 재회 기약을 예견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슨 연유에선지 추사와의 재회는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 이 해 6월, 초의스님은 불국사에서 추사를 기다린 격이고, 이무렵 추사는 이미 경주를 떠나 한양에 있었다.

추사의 연보를 자세히 살펴보니 이 해 6월, 추사는 조인영(1782~1850)과 함께 북한산비를 다시 찾아 비문을 조사하고 있었고 하니 초의스님은 이런 사실도 모른 채 불국사에서 추사를 기다렸던 것. 결국 추사가 초의에게 기별하지 못한 채 경주를 떠난 것이라 여겨지니 분명 전후 사정이 있었던 것이라 생각된다. 행여 경주 감영에 온 추사가 불국사로 자신을 찾아올까하여 자하문 밖으로 밝게 갠 하늘을 본다는 대목에선 간절히 추사를 기다리는 초의의 마음이 행간에 묻어난다.

세상의 불국토(佛國土:극락세계)는 차라리 얻기 쉽지만 추사를 만나는 것이 이보다 어렵다는 그였고, "서로 만나 편안한 정을 다할 수 있을까"라고 기대했던 초의였다. 실로 초의의 이런 마음은 그가 평생의 지기 추사를 얻을 수 있었던 성의가 아니었을까.

한편 초의스님이 불국사를 간 내력은 이렇다. 그가 대둔사로 거처를 옮겨, 두어 해를 보낸1811년 봄, 대둔사에 큰 불이 났다. 당시 화재는 "가리점사(加利庶使) 두 사람이 이경(밤 9~11시)에 절에 도착했는데, 두 명의 관리와 보조하는 이가 횃불을 들고 창고에 들어갔다가 불씨가 떨어진 줄을 몰랐던 것. 이 화재로 가허루, 천불전, 대장전, 용화당, 팔해당, 적조당, 지장전, 약사전, 향로전 등이 하룻밤 사이에 전소되는 참화를 입었다. 초의의 스승 완호 스님(1758~1826)은 전소된 가람을 다시 중창할 원력을 세우고, 천불전에 모실 천구의 옥불을 기림사에서 조성하고 있었다.

당시 초의는 스승 완호 스님의 하명을 받고 기림사로 내려간 것이다. 실제 기림사에서 조성된 이 옥불은 1817년 11월16일 두 척의 크고 작은 배에 나누어 실고, 뱃길로 운구하다가 큰 배가 풍랑을 만나 일본 장기도까지 표류되었는데, 큰 배에는 인봉 스님과 풍계 스님, 작은 배에는 호의 스님이 동승했다. 요행히 이 배는 다음 해(1818) 6월17일 일본을 출발하여 11일 만에 부산진 바다에 도착했고, 완도 대진강을 통해 운구 되어 일본을 출발한지 15일 만에 대둔사에 도착했다.

지금도 일본으로 표류되었던 불상의 어깨 위에는 '日' 가 쓰여 있다고 한다. 당시 풍계스님은 화사로 동승했는데, 이때의 경험을 기록해 《일본표해록》을 남겼다. 후일 초의에 대한 정의가 남달랐던 추사는 "옛날 보냈던 마음을 끊을 수 없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들의 우정은 서로간의 깊은 신뢰가 바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의 스님이 추사와의 재회를 기다렸던 불국사 전경

"세상의 불국토보다 만나기 어렵네"
초의, 추사를 그리워하며 詩 읊어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사회 이끌 불교 인재 1천 명 양성해야"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상임대표 서강대 박광서 교수



박광서 교수는 … 박광서 교수는 1949년 생으로 경기고 서울대 물리학과를 거쳐 미국 Brown Univ. 물리학과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MIT 화학과 연구원을 역임했다. 이후 서강대 자연과학대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이사, (사)우리는선우 이사장, (사)생명나눔실천운동본부 이사, 고속철도 경주도심통과 백지화 위원회 위원,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 달라이라마 방한준비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 등을 거쳐 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 대표, 불교생명윤리협회 공동대표 등을 역임하고 있다. 만해상 (선우단체상), 제16회 불이상, 홍법대상, 제1회 대원상 등을 수상했다.

10월 16일 햇살은 따갑고 하늘은 맑은 가을날 서강대 캠퍼스를 찾았다. 서강대 박광서 교수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참여불교 재가연대, 우리는 선우, 생명나눔실천본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불교생명윤리협회 등 그는 불교 재가 단체의 멥그림을 그리고 이끌어온 대표 인사다. 그의 이런 활동 뒤에는 불교 가르침에 대한 믿음과 확신 그리고 이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굳건한 의지가 반영돼 있었다.

기독교 공격 두렵지 않다

"저는 10년 동안 미국에 살면서 불자로 사는 것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한국에 돌아와서는 불자로 산다는 게 불편하다는 것을 알았죠. 종교자유정책연구소는 기독교를 비판하자고 만들어진 단체가 아닙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특정 종교의 편파적 행위를 견제하자는데 있죠. 결국 종자연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서강대 연구실에서 만난 박광서 교수는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2004년부터 종교자유정책연구소 공동대표를 맡아왔던 그는 일련의 활동들에 대해 최근 기독교계 일간지 국민일보에게 공격을 받아왔다. "예측 가능했던 문제입니다. 사람의 교회 주민 소송문제는 서초구민과 구의원 시민단체 등이 함께 해결점을 찾고 있지만 종자연이 주준히 주관했던 문제이니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를 불교단체라 해도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종자연을 구성하는 다수가 불교인이라는 것도 맞죠. 하지만 종자연이 목표로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종교 문제를 사회 이슈화 시키고 이를 바로잡아 가는데 있습니다"라고 전한다.

박 교수가 종자연을 만든 배경은 2004년 대광고 강의석군 사건의 충격 때문이다. 기독교 사학에서 비일비재하고 있는 예배 강요 등에 대해 한 학생이 이를 바로잡고 나선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박 교수에게도 큰 전환점을 마련해주었다.

"기독교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특정 종교를 강요당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죠. 대광고는 기독교인이 아니면 학교 임원이 될 수 없다는 학칙이 있었어요. 이건 비단 기독교 학교만을 얘기하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런 피해를 입는 것은 부당한 일이죠.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런 부당한 사례가 대부분 기독교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종교에 관한한 비정상적인 나라입니다. 이런 부분을 바로잡고자 했던 것이죠"

박 교수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종교 편향이 우리 정치사와 무관하지 않으며 가장 큰 배경에는 건국과 6.25 전쟁을 거치며 기독교가 권력화 된 데에 있다고 말한다. "한국 기독교는 두 부류로 나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승만 대통령을 위시한 건국 세력과 6.25전쟁을 거치면서 남하한 평양의 기독교 세력의 흡수죠. 유지나 지식인들이 사회 지도층을 형성하면서 기독교는 권력화 되었습니다"

이후 기독교 사학이 만들어지고 기독교 이념을 가진 사회 지도층을 양산함으로써 기독교는 우리 사회에서 막강한 권력이 되었다. "신도수로는 기독교와 불교가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중 사회 리더만 놓고 본다면 기독교가 불교의 3.5 배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처럼 불교가 내부 안에서 티격태격하고 있을 때 기독교는 자신들의 영역을 넓혀 인재를 키워 사회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독교인이 아니면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는 다종교 사회 대한민국에서 개인의 종교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말한다. "우리 헌법 20조에 명기된 바와 같이 종교의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입니다. 이것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권리입니다"

룸비니 학생회에서 재가연대까지

박 교수의 이런 활동 뒤에는 그의 청년 시절 경험이 반영돼 있다. "어렸을 때 교회와 성당을 다녀어요. 하지만 선악 개념이 가슴에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날 원효대사의 일대기를 읽으며 큰 충격을 받았죠. 원효대사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저녁에 바위에 걸터앉는데 도깨비가 나타난 거예요. 제 생각에는 원효 스님의 신통력으로는 도깨비를 물리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깨비와 대동놀이를 하며 춤을 추는 거였어요. 이는 선악의 개념을 넘어선 행동이죠.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불교를 너무 모르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후 경기고 서울고 용산고 등의 학생들로 구성된 룸비니 학생회를 이끄는 흥형 법사님을 만나면서 법회도 듣고 수련회도 하고 성형 스님을 뵙기도 했죠. 그러면서 출가를 결심하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이후 불교계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그는 출가가 꼭 최선만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박 교수는 불교가 흥하기 위해서는 불교세계에 대한 탐구를 통해 현실적인 힘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런 결심은 그가 물리학을 전공하게 되는 배경이 된다.

"왜 불교가 기독교에게 휘둘리는가를 고민하게 됐죠. 결국 멋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는 산업화 시대에 기독교가 흥할 수밖에 없어요. 물질문명이 고도에 이르면 다시 불교의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을 예측했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물질세계를 공부해 현실적 힘을 길러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과학을 전공하게 됐죠"

이후 박 교수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Brown Univ 물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MIT 화학과 연구원을 거쳐 서강대 자연과학대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하게 된다.

이와 함께 그는 불교계 재가 단체를 이끌며 한국 불교의 방향성을 제시해 나가기 시작한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사)우리는선우를 비롯 참여불교 재가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소, 생명나눔실천본부, 고속철도 경주도심통과 백지화 위원회, (사)좋은벗들,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달라이라마 방한준비위원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 불교와 종교 발전에 기여해 왔다.

우리는선우는 작가 남지심 씨와 함께 91년 설립한 대표적인 재가단체로 육법공양 고즌 및 확산, 군포교활성화 등을 이끌어 왔다. 또한 생명나눔실천운동본부, 경주살리기 운동 등 사회문제와 불교의 경계선에 있는 문제들을 이슈화시키는 단체를 만들며 주목을 받아왔다.

이후 98년도에 참여불교재가연대가 설립되면서 우리는 선우는 신행활동을 중점으로 펼치고 재가연대는 운동단체의 성격을 띠면서 재가 불교는 새로운 전기를 받는다. 박 교수는 재가연대 상임대표로 종교인 과세 문제, 종단 개혁 등 불교의 내부 개혁 문제에 힘을 기울인다. "재가연대가 창립 될 당시인 98년도만 해도 종교인 과세는 스님들을 전혀 설득시킬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런 문제가 불교계 내부에서 공론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를 꾸준히 제기해왔던 재가연대의 활동도 있었고 도박사태 등 일련의 과정을 겪치면서 스님들도 공멸의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볼 수 있죠. 이제 불교도 스스로 개혁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야 합니다"

불교계 대표 단체 중 하나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의 탄생에도 박 교수의 역할은 컸다. "미국에서 돌아오면서 불교에도 이런 단체가 설립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 도법 스님 등 여러 스님들을 만나며 조안을 그렸어요. 이후 94년 범장 스님을 모시고 생명나눔실천본부 운동을 설립했어요. 하지만 일찍부터 꾸준히 설립의 중요성을 제기해왔지만 기독교 사람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먼저 생겨났고 현재 그 규모 면에서도 10배가 넘는 현실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인재불사가 불교 발전의 지름길

그는 스님들이 불교 안에서 평가되는 수행 깨달음이런 문제에 벗어나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한다. "깨달음이나 수행이라는 것도 사회적으로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특정한 심리상태에서 깨달았다는 것은 불교계 안에서는 통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종교 사회인 대한민국에서는 이것이 사회적으로도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하고 깨달은 사람들은 개인 자신보다는 공동체를 생각해야하고 사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불교가 우리 사회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스님들이 종교 불평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회를 감시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스님들은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이를 해결하기 보다는 그냥 바랑을 메고 떠나 버립니다. 저는 스님들이 사회 이슈를 바랑에 메고 다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불교는 너무 자기 안에 갇혀 있어요. 불교가 사회적 이슈를 수용하고 해결할 수 있을 때 세상에 통용되는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박 교수는 또한 불교 발전을 위해서는 불교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인재 불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불자가 사회 리더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불교의 가장 큰 문제는 인재가 없다는 겁니다. 불교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를 이끌 수 있는 엘리트층 1천 명 정도는 키워내야 합니다. 물론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한 30여년의 시간이 걸리는 일이죠. 하지만 이를 꾸준히 실천해 나갈 때 불교가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노력 없이는 불교의 미래도 없을 것입니다"

박 교수는 앞으로 중국의 성장과 함께 불교적 마인드를 가진 인재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전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을 중심에 두고 모든 정책들이 행해지고 있지만, 중국의 성장과 함께 동북아를 움직일 불교적 마인드를 가진 인재가 더욱 절실해지는 시기가 도래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경제 사회 예술 과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인재를 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3시간 가량 진행된 인터뷰가 끝나고 길을 나서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기울고 있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발걸음도 마음도 가벼웠다. 어둠다고만 생각했던 한국불교의 현실, 하지만 현실의 문제를 끊임없이 해결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박 교수의 열정이 기자에게 고스란히 느껴졌기 때문이다. 일과 수행이 다르지 않다고 말하는 그는 앞으로 후배들에게 아이디어 제공, 인재불사, 재정적인 면 등에서 불교발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고 싶다고 한다. 현실을 탓하지 않고 문제를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는 힘, 그런 열정과 노력이었을 때 한국 불교의 희망도 있다는 사실을 박 교수는 실천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글=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전법일기

스님, 언니 오빠가 뽀뽀해요

웃지 못할 법회이야기



그림 · 박주원

산중의 본사에 출가하여 몇 년을 산중에서만 지내다가 89년 초 대전 시내의 포교당에 나가서 살게 되었다. 도시에 가서 살기 싫다고 사양과 반대의 뜻을 보였었지만 은사스님을 모셔야 하고, 지금쯤 새로운 변화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사형의 설득을 못 이기고 결국 따라 나서게 된 것이다.

대전시 동구 천동 심광사, 도시에 와서 살게 된 사찰의 이름이었다. 변두리 주택가에 자리 잡은 심광사는 진행중인 불사가 중단되어 있고, 도량이 정비되지 않아 지저분하고 심란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이 사찰은 종단 정화의 한 축으로 중요한 활동을 하신 대의스님께서 주석하시던 도량으로 한 때 대전불교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 유서 깊은 도량이기도 했다.

도착하는 날부터 은사스님께서는 승복을 걷어 붙이고 솔선하여 연장을 들고 도량청소와 정비를 시작하셨다. 함께 간 사형사제들은 좋다 싫다 입도 벙긋 못한 채 고된 울력을 시작해야 했다. 그렇게 한 달 여, 쉼 없는 울력 끝에 대략 도량청소와 정리가 끝나자 기도와 포교의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초하루 법회를 비롯한 사중법회는 은사스님께서 보시고, 중요염불과 기도는 사형이 맡고, 중학생 법회는 사제가 맡고, 어린이와 고등학생법회, 대학생법회 그리고 외부에서 청하는 법회는 내가 맡기로 했다. 계속된 울력에 위낙 시달린 터라 차라리 법회를 보게 된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서너 달이 지나며 명색만 남아있던 법회들이 사람들이 모이며 모양을 잡아가고 힘을 얻기 시작했다. 일요일이면 동네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모여서 도량이 시끌벅적하였다. 아이들의 소란스러움에 사형은 아이들 교육을 잘 시키지 못했다고 못마땅한 속내를 비치기도 했지만, 은사스님께서는 따뜻하게 아이들을 품어주시며 법회를 격려해 주시곤 하셨다. 법회가 활성화 되면서 비로소 시내의 포교당에서 생활하는 보람과 기쁨을 알기 시작했다.

하지만 법회가 활성화 되면서 문제도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했다. 특히 중학생법회에 오는 아이들이 자주 문제를 만들곤 했다.

어느 일요일 어린이 법회 아이 하나가 와서 이르는 것이었다. "스님, 저기 법당 뒤에서 어느 오빠가 뽀뽀해요" "뭐라고?" "뽀뽀한다고요" 순간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이었다.

한결음에 현장에 가보니 몇몇 중학생들이 아무일도 없던 것처럼 시침을 떼고 있었다. 이후 그 곳은 학생들의 금지구역이 되었고, 아이들의 지도와 교육에 더 세심하게 마음을 써야만했다. 때때로 아이들이 절에서 법회를 마치고 간지 한참이 지났는데 집에 오지 않았다는 전화를 받곤 했다. 그래서 확인해보면 선배 지도교사들이 아이들과 분시장에 가거나 노느라고 귀가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법회가 활성화 될수록 아이들에게서 문제는 자꾸 늘어가고 점점 불안함이 커지고 어려움이 많아졌다. 가끔 사찰 안팎에서 청소년법회를 비난하고 없애야 한다는 소리들이 나오기도 했지만 잘 지켜갈 수 있었던 것은 법회에 대한 어른스님의 관심과 격려 때문이 아니었던가 싶다.

"요즘 청소년들 참 문제지요?"라는 말을 들을 때면 이렇게 답하곤 한다. "하하, 20여 년 전에도 아이들은 법당 뒤에서 뽀뽀하고 그랬어요. 그 시기에는 예나지금이나 다 겪어야 하는 병이겠지요."



주경 스님(서산 부석사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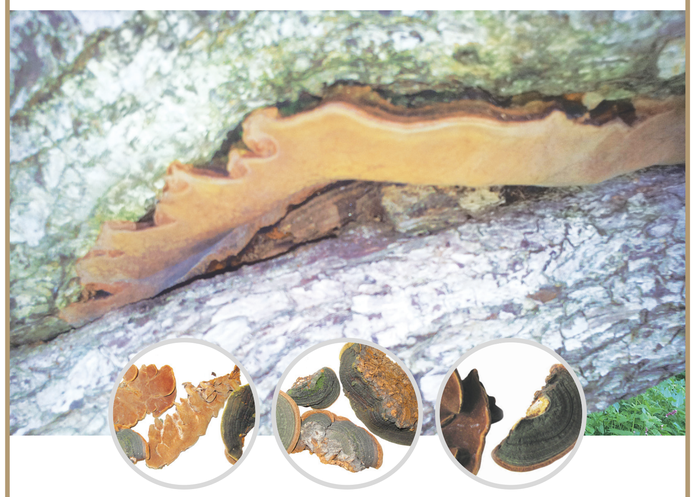
푸근 까닭인지 도심의 포교당에서도 법회를 지키지 못한 현실이 가슴 아프다.

34년 자연산 상황버섯

스님이 직접 해발 500고지 이상의 고원에서

조선뽕나무에 착생시켜 재배한 자연산 상황버섯을

인연있는 불자님께 보급하고자 합니다.



충남 천안시 입장면 모전리 202번지
(사)부처님 나라
문의 : 041)583-1110
광덕사



박 교수는 종교자유정책연구소를 설립 한국 사회 종교 자유의 문제를 이슈화 시키고 이를 바로잡아 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은 종자연이 주최한 종교시설투표소 헌법소원 심판청구 관련 기자회견.





사진 왼쪽은 경기고 시절 불교 학생회 룸비니 활동 장면으로 맞출 왼쪽에서 네 번째가 박광서 교수. 사진 오른쪽은 2005년 인도 나그푸르서 개최된 참여불교 세계대회 참가 장면.

늘 피곤하고, 팔, 허리, 어깨가 쑤시며
깊은 잠 못자는 여러분을 위한 희소식!

귀사문석(貴蛇紋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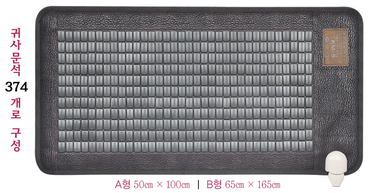
만능 미니 온열매트!

※ 귀사문석 온열매트는 근육통완화를 위한 식약청 의료용구 제조허가번호 제426호, 품목허가 제 09-651입니다.

인간의 기본 체온은 36.5℃인데 1℃ 떨어지면 저체온(冷氣)이 되어 면역력이 30%↓된다.

피부속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주는 생명의 빛/ 원적외선이 93% 이상방출되는 방안의 숯가마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있는 냉기(冷氣)를 해소하자.

귀사문석 374개로 구성



A형 50cm × 100cm | B형 65cm × 165cm

※ 두한족열(頭寒足熱) : 머리는 차갑게(귀사문석 베게) 발은 뜻하게 (귀사문석 온열매트)

※ 낮에는 의자나 쇼파에, 밤에는 침대나 요 위에 놓고 하루 24시간 찜질을!

방안의 숯가마 찜질방(전자파 차단)

93%이상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피부속 50㎜까지 침투하여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 줍니다.

온열매트의 의학적 효과

건강한 사람의 평균 체온은 섭씨 36.5℃이다. 그런데 1℃만 내려가도 면역력이 30% 떨어진다. 즉 냉증 또는 저체온이 되면, 자율신경중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으면서 면역을 담당하는 림프구가 줄어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 특히 체온이 35℃로 내려가면 암세포가 증가할 수가 있다. (우리 신체에선 매일 3천개~만개의 암세포가 만들어지지만 면역력 덕분에 암에 감리지 않는다) 냉증(冷症)의 직접적인 원인, 그 증상으로 손과 발이 저리고 무릎이 시리다, 그리고 감기도 자주 걸리고 찬 음식을 먹으면 설사로 고생도 한다. 또한 당분, 지방 등 영양소의 흡수율을 떨어뜨리고 고지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우리 몸은 지구를 세바퀴나 돌 수 있는 9만km의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적혈구가 엉기는 현상은 저체온에 그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몸을 따뜻하게 해서 세포 안에 충분히 열이 전달되도록 하면 적혈구의 응집현상은 쉽게 해결할 수 있다.실제로 원적외선을 이용해 신체 내부까지 골고루 열을 가하면 즉시 엉겨 있던 적혈구들이 원상회복 된다. 그래서 고지혈증을 예방할 수 있다.

생명의 빛 원적외선

귀사문석 온열매트에서는 93%이상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우리몸의 피부속으로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준다. 그리고 피하심층의 온도상승, 미세혈관의 확장, 신진대사의 강화, 부인병, 신경계 질병, 노인성질환, 어깨결림, 허리통증완화, 장속의 노폐물, 중금속 배출등에 탁월한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또한 현대생활 주택이 시멘트 구조로 되어있어 자연적으로 지기(地氣)를 차단하여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귀사문석은 천연의 강력한 기(氣) 방사체이므로 자연적으로 신체에 활력소가 되어준다. 귀사문석은 항균효과 86%, 항곰팡이 억제력은 거의 100%이며, 냄새 제거 능력도 탁월하다.

■ 제 조 원 : (주)국민메디컬 / 경기 양주시 율정동 115번지
■ 문의전화 : 02)2681-8122 선재생활건강(주)
■ 판 매 원 : 선재생활건강(주) / 경기 광명시 광명7동 305-50
■ 입금계좌 : 농협 355-0014-5055-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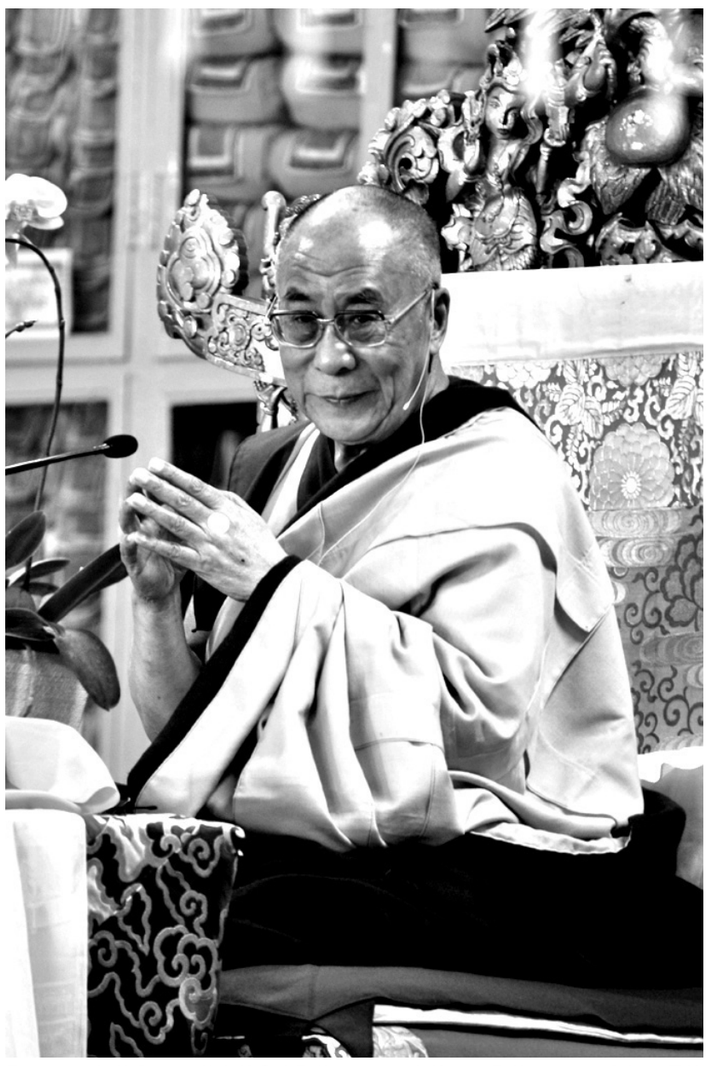
“범부가 보리심을 내면 자비 순풍 만난 것”

대만 국제중국불교도연합 권청
달라이라마 법회 8백 신도 참석

몬순이 끝난 다람살라의 10월은 청명한 가을이다. 이러한 때에 대만을 거점으로 한 국제중국불교도연합(International Chinese Buddhist Community) 소속 신자 800여명이 북인도 산골 마을을 찾아 화제다.

기나긴 장마의 몸살로 길이 유실돼 일방통행이 돼버린 터라 인상을 찌푸리는 교통 체증을 곳곳에서 감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인도 중남부의 폭염을 피해 휴양 차 방문한 인파와 뒤섞여 다람살라는 연일 콩나물 시루다. 새벽 버스로 막 도착한 여행자들은 숙소를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고, 지난해와 달리 눈에 띄게 부쩍 오른 물가에 인도의 급속한 자본주의화를 실감하는 토론들이 오간다.

반면 다람살라 남걀사원 내부 쫄라캉(Tsug-lagkang)은 고요하고 평화롭기 그지없다. 새벽별이 그 모습을 미처 숨기지 못한 시각, 사원은 경문을 읊으며 오체투지를 올리는 참회와 발원의 기도들로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붓다의 법과 논사들의 지식으로 갈애를 타파하는 대론에 흥이 난 붉은 승복의 티베트 승려들, 마니차를 돌리며 연신 ‘옴마니빠메훔’ 진언을 외는 어르신들. 지혜를 구하는 범부는 항시 정법에 목이 마른 법. 선지식이 머무는 곳을 찾은 세계 각국의 선재들은 우슬착지하고 합장해 공경하며, 스승인 14대 달라이라마(뗀진갸초, 77)를 향해 삼배의 예의를 갖춘다.



달라이라마는 법회에서 “발심을 일으킨 범부가 보리심을 지닌 것은 자비로 향하는 순풍을 만난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남인도 문곳 티베트불교 사원군에 있는 슉덴사원. 달라이라마의 중관법회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원의 정문은 항시 굳게 잠겨 있었다.



국제중국불교도연합 소속 불자들의 권청으로 아띠샤 존자의 〈보리도등론〉을 주제로 달라이라마의 법회가 열렸다.

“보리심은 자비심에 근간 둬야” 강조

“일체지를 성취하고자 하는 수행자가 객진번뇌를 청정히 하고자 하는 일념(一念)으로 결제를 해야 하건만, ‘달라이라마’라는 이름 덕에 연일 바빠 수행할 겨를이 없다고 핑계 아닌 핑계를 둘러대기만 합니다. 어느새 수행키 어려운 노인이 되었는데 스스로가 게으른 탓에 깨달음의 성취를 항시 미루기만 하지요.”

자신을 대중 앞에 기꺼이 내려놓는 스승의 모습을 뵈니, 현자의 겸손한 미소가 머문다. 달라이라마는 나이 서른에 공성(空性)에 눈을 떴다. 그의 일념은 일승(一乘)을 향한다. 번뇌에 끄달리는 중생이 머무는 곳으로 여든을 앞둔 노장의 발길은 쉼 없이 이어진다.

나(我)를 움켜쥐고 살아가는 무명의 잔가지들을 쳐 내고, 사랑과 자비로 보듬을 수만 있다면 그곳이 굳이 법당이 아니어도 여의치 않는 그다. 여태까지 합법적인 초청 절차에도 불구하고 달라이라마의 방문이 성사되지 않은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싱가포르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급기야 남아프리카에서 달라이라마의 오랜 벗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81 · 자국 내 인종차별에 대항 1984년 노벨평화상 수상) 일행이 지난 해 티베트 민중봉기 기념일 즈음 맞춰 다람살라를 방문해 화재를 불러 모았다. 뿐만 아니라 매년 10월이면 한국 불자들의 요청으로 다람살라에서 법회가 열린다. 올해 법문은 용수보살의 〈중론〉 24품을 주제로 10월 29일부터 사흘간 다람살라 중심 사원인 쫄라캉에서 개최된다.

달라이라마는 “중생의 삼독심 모두가 ‘무시 이래의 습(習)’에 의한 것이기에, 선한 인연을 만나 발심을 깨울 수 있다면, 기꺼이 보리심의 싹을 틔울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더불어 “보리심은 삼귀의가 아닌 자비심에 근간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것이 바로 다른 이름의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스바하’일 것이다.

슉덴, 티베트 불교 사탄으로 정의

“도제 슉덴(Dor-je Shug-den)을 따르는 이들은 나의 법제자가 될 수 없다.”

법회 마지막 날. 관정법회를 앞두고 달라이라마는 우바새 · 우바이 계를 받고자 합장 공경의 자세로 무릎을 꿇은 대중들에게 단언했다.

티베트불교의 어둠으로 표현되는 슉덴. 달라이라마는 티베트인 전체의 1%가 아직도 슉덴을 추종하고 상당수가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5대 달라이라마(나왕롭상갸쵸, 1617~1682) 당시, 슉덴은 겔룩빠의 덕망 높은 수행자였다. 그러나 그의 죽음 이후 영혼을 숭배하는 신앙으로 변질돼 급기야 티베트불교의 사탄으로 정의되고 있다.

슉덴과 그의 추종자들은 현재 티베트불교의 염증으로 비춰지고 있다. 달라이라마는 5대 달라이라마의 자서전 가운데서 ‘악한 욕망에 맹세한 악령, 도제 슉덴’의 구절을 찾은 이후, 한동안 그를 추모하는 기도를 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인도 간덴사원의 장체대학에서 슉덴과 겔룩빠 학승들 간의 유혈 충돌이 일어났다.

슉덴의 문제가 티베트불교의 현안으로 붉어진 때는 1998년 다람살라에 위치한 사라대학의 교장이 슉덴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부터다. 살해 동기는 슉덴을 비방하고 그들의 신앙 활동을 금지했다는 이유였다.

티베트불교에서는 스승과 제자의 인연을 강조한다. 인도 나란다 승원의 학제 방식을 전승한 이유다. 현교를 밀교의 사다리로 삼으며 두루 아울러 수행하는 방식은 한국불교와 상당히 밀접하다. 한국의 무문관 수행법보다 더욱 철저한 둑빠까규(Drupa Kagyu)의 수행 체계도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 모든 티베트불교 수행의 중심에는 철저한 갈마로써 스승에 의지한다.

슉덴은 불교의 정신과 교리를 훼손했다는 것이 달라이라마의 입장이다. 붓다와 붓다의 가르침 그리고 승가 공동체에 귀의하는 불교는 영혼에 대한 숭배를 인정하지 않는다. 슉덴 공동체가 불교의 근본정신에 위배되는 것을 염려한 달라이라마는 티베트인의 분열을 조장하는 슉덴의 왜곡과 역행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을 추방하거나 비방하지 않았다. 중생이기 때문이다.

실제 남인도 문곳(Mundgod)의 티베트 사원군 내에는 슉덴사원이 버젓이 일반 사원들과 어우러져 있다. 벨라쿠피(Bylakuppe)에 위치한 세라사원 일대에서도 갈등이 가시화 되자 달라이라마는 슉덴사원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터를 마련해 주고 사원 건립을 허가했다.

현재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일대와 미국, 싱가포르에 상당수의 슉덴 추종자가 있으며 티베트인보다 현지 외국인들이 더욱 활발한 신행 활동을 하고 있다. 직업군은 사업자들이 대다수이고, 티베트불교를 수학하는 외국인 승려들이 섞여 있다. 이

그들이 슉덴을 신앙하는 이유는 현생에 부와 명예를 최대한 빨리 누리기 위함이며, 수행자는 최상승의 깨달음을 단시간에 성취할 수 있도록 호법하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다만 믿음을 끊고 탈퇴할 당시에는 피를 부르는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고 세간에 전해진다. 이곳 다람살라에서 티베트인들은 슉덴이라는 말을 실제 거론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며 슉덴 신자를 외형상 분별하기도 어렵다. 혹자는 한국에 티베트불교의 이면이 잘못 전해질까 깊은 우려심을 보이기도 했다.

달라이라마의 독일 법문 당시 슉덴 추종자들이 ‘달라이라마는 가면을 벗어라.’, ‘달라이라마는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가두시위를 벌인 적이 있다. 당시 달라이라마는 관련 인들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해당 단체를 방문하고자 했으나 이렇다 할 답변도 없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 당했다.

관정을 마무리하며 달라이라마는 다시 한 번 슉덴을 언급했다. “오늘 관정으로서 비법 안에서 고통을 받아온 이들이 원치 않는 구속으로부터 해방되고 부디 정법을 만나기를 발원합니다.”

티베트인에게 불교는 삶의 근원

“자신의 종교를 검증하십시오.”

달라이라마는, “마치 연금술사가 금을 다루듯이 진리 또한 스스로 체득할 수 있도록 의심을 일으켜 연마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로서 자신을 다스리는 계율을 청정히 지니게 되며 정념을 토대로 항시 알아차림에 충실해질 수 있다. 무아(無我)로서 무상(無常)을 보는 원리다.

인아(人我)의 아집이 만들어내는 윤회의 속박에서 과연 보특가라(我)는 무지와 무명의 공화(空華)가 지닌 실상을 찾아 낼 수 있을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겁의 시간 동안 길들여졌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상호 의존하는 연기를 본 지혜로서 대치해 환멸해 나갈 수 있다. 연기하기에 공(空)함을 알아 자비심을 일으키니 이것이 바로 발보리심이다.

불교적 과학, 윤리학, 정신분석학 등 현대 과학과의학 분야의 통섭을 시도해 온 달라이라마. 그는 21세기 불자의 자세를 항시 강조해왔다. 티베트인들에게 종교란 문화이자 그들 본연의 삶이라는 것이 티베트불교를 정의하는 가장 쉬운 말일 것이다. 한국의 문화는 박물관에 표본화 되어있는 반면, 티베트 문화는 불교로서 티베트인들의 일상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티베트불교의 어둠의 자식이 되어 버린 슉덴 역시 5대 달라이라마가 시도했던 진보주의 지향적 불교가 역으로 파생시킨 앙금으로 티베트불교가 풀어야 할 과제다.

범부의 현실은 괴롭다. 행복을 원하지만 그만큼 충족되지 않는 듯 여겨진다. 붓다의 정법 또한 쇠약해져 가고 있다고 말한다. 물질주의가 초래한 욕망의 비대화에 바른 진리가 퇴색되었다고 안타까워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진리는 그대로 인데 번뇌에 물든 나의 마음이 그렇다고 여기는 것일 뿐.

달라이라마의 기도에는 항상 티베트인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말씀이 담겨있다. 중국의 자치주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신공양(10월 초까지 52명이 분신했다) 사태에 대해 정신적 지도자는 발언을 아끼고 있다. 인도의 가장 오래된 투숙객이라고 스스로를 호칭하는 달라이라마은 오늘도 중생을 일깨운다.

“단지 나의 이름이 달라이라마일 뿐, 숙명으로서 이생에 짊어진 허공과 같은 인연으로 부디 존재하는 모든 것이 연기의 도리로서 깨달음에 이르기를.”

인도 다람살라= 가연숙 통신원 omflower@gagyo.org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건봉사 만일염불회 기도 입재

만일염불회는 서기 758년 발징화상께서 정신, 양순스님 등을 통하여 1만일 (27년 5개월) 동안 염불수행을 목적으로 살아서는 행복한 삶을 위하고, 죽어서는 극락왕생할 것을 기원하는 법회를 하였는데 만일이 되어 회향하는 날 기도에 동참했던 스님 31인이 건봉사를 중심으로 1.5km 지점까지 허공위로 날아가 육신은 땅에 버리고 정신은 서방정토에 극락왕생한 이적을 남기셨던 염불대법회로써 금강산 건봉사에서는 이 기도법회를 다시 재현하고자 정현 주지스님께서 직접 기도하시는 전국 만일염불회를 다음과 같이 입재합니다.



◀ 만일염불회 3년 기도안내 ▶

◇ 입재 : 2012년 11월 28일 (음, 10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
◇ 회향 : 2015년 11월 26일 (음, 10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
◇ 장소 : 적멸보궁 금강산 건봉사 만일염불원
◇ 기도동참금 : 한 가족당 백만원 (분납가능)
◇ 계좌번호 : 농협 247-01-251767 예금주 건봉사
◇ 접수 : 건봉사 종무소 (전화 033-682-8100 팩스 033-682-5994)
◇ 매월 2주, 4주 토요일 철야 기도정진

매일 새벽 4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만일염불 기도소리가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석가모니부처님 진신치아사리 봉안사찰
대한불교조계종 적멸보궁 금강산 건봉사



사찰이미지 200% UP!

사찰이벤트?

신도에게는 말씀의 감명을 비신도에게는 법(法)의 지혜를

法 법과 果

"이제는 사찰도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최고의 사찰이벤트와 만나십시오"



법과활용(Appl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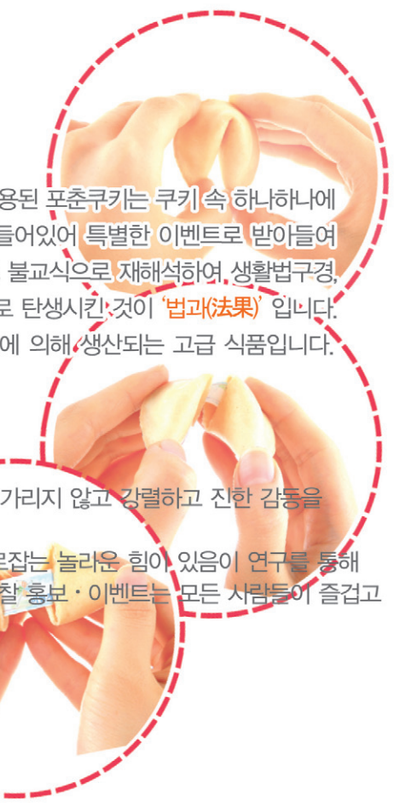
이미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3,000여 곳이 법과(法果)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점차 그 활용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지금" 경험하십시오.

법과란? (Buddha Cookie)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적이고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시킨 것이 '법과(法果)' 입니다.
또한, 최고급 재료만을 사용하고 전자동 공정에 의해 생산되는 고급 식품입니다.

법과 이벤트(Ev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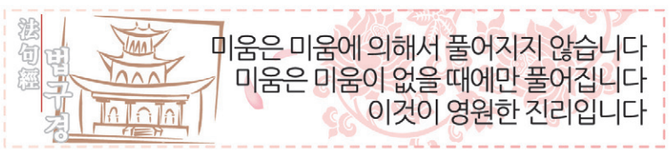
'법과(法果)' 속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렬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이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를 활용한 사찰 홍보 · 이벤트는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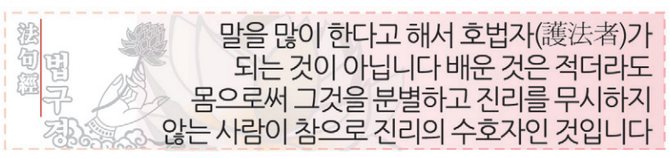


앞면 – 사찰안내 또는 행사에 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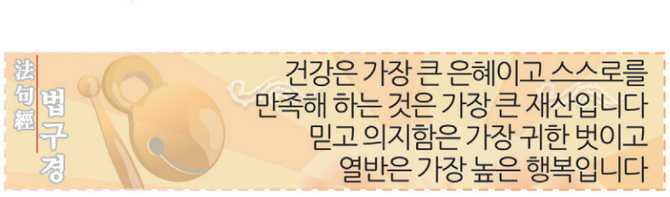


뒷면 – 현대어로 재편집된 생활법구경이 들어갑니다









※ 500개 이상부터 주문가능하며 원하시는 이미지 / 문구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법과 문의
TEL : 02)2004-8216
FAX : 02) 737-069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54번째 선지식 '생텍쥐페리'

선재동자와 어린 왕자





생텍쥐페리는 선재동자를 보고 어린왕자의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삼장법사가 손오공을 오행산에서 풀어주어 제자를 만들어 서역으로 떠나는데, 가는 길에 여섯 명의 강도를 만난다. 강도들을 본 손오공은 그들을 모두 때려죽인다. 손오공의 살생을 본 삼장은 엄히 꾸짖는데, 손오공은 버럭 화를 내고 떠나 버린다.

이때 관세음보살이 나타나 석가세존이 만드신 세 개의 머리테를 건네는데, 그것이 바로 긴고아와 금고아 등이다. 그리고 긴고주와 금고주를 외우면, 그 테는 머리를 파고들어 눈이 튀어나오고 머리가 깨질 듯한 고통을 겪는다.

그리하여 옥황상제도 어찌 못하는 신통력을 지닌 손오공은 순한 양처럼 삼장법사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나머지 두 개의 머리테는 서역길에서 만난 흑풍산 흑풍괴와 화염산의 홍해아에게 씌워지는데, 여기부터 흥미진진한 사실이 전해 온다.

사하라 사막 조종사와의 만남

보현행원 찾는 구법행의 하나

흉악한 바람으로 삼장 일행을 괴롭힌 흑풍괴는 금고아를 쓴 뒤 관음보살이 거주하는 낙가산을 지키는 수산대신이 된다. 관음보살은 우마왕과 나찰녀의 아들 홍해아에게 금고아를 씌워 제압한 뒤 선재동자로 삼는다.

즉 낙산사를 지키는 보타락가산 산신은 흑풍괴였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인 고려불화의 수월관음도마다 그려져 관세음보살을 시봉하는 홍해아는 선재동자가 된 것이다. 홍해아가 살던 화염산(火焰山)은 사실 신장 자치구의 텐산 산맥에 위치한 붉은 사암 언덕이다.

여름이면 지금도 섭씨 50도 이상 올라가는 불덩어리인 이 산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지상 온도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에 수행하던 승려들의 이름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8미터 크기의 삼장법사 일행과 우마왕들의 동상이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 모은다.

충선왕 2년(1310)에 그려져 왜구에게 약탈당해서 지금은 일본 경신사가 소유하고 있는 가가미진자 수월관음도에 보면, 머리에 띠를 달고 있는 선재동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수월관음도인 이 탱화를 그린 여러 화원들은 이미 선재동자의 정체를 알고 있었던 셈이다.

화엄경에 따르면 선재동자는 53선지식을 찾아다니며 법을 구한다. 구도의 열정에 불타는 선재는 "원컨데 저에게 해탈의 문을 열어 주시고 모든 뒤바뀐 헛된 꿈을 멀리 여의게 해주소서(願開解脫門 遠離諸顚倒)"라고 문수보살에게 간청한다.

그 간청을 받은 문수보살은 "깨달음의 높은 뜻을 발하여(發菩提心) 선지식을 구하고(求善知識) 보현행원을 갖추어라(具足普賢行願)"라고 충고해 준다. 즉 선재동자는 화엄사상을 실천하는 전방위의 보살인 것이다.

이런 선재동자와 어린 왕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프랑스의 비행사이자 작가인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가 1943년 발표한 소설인 〈어린 왕자〉는 사실 그가 수월관음도의 선재동자를 보고 영감을 얻어 만들어낸 캐릭터라고 한다.

지금은 저작권도 없어서 많은 출판사들이 아직도 다투어가며 작자가 직접 그린 아름다운 삽화를 넣은 많은 판본들이 시중에 넘쳐난다. 현재까지 180여 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영화와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되고 프랑스를 대표하는 예술가로 아직도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한 조종사는 자기의 작은 별에서 여러 별을 거쳐 지상에 내려온 어린 소년왕자와 만난다. 비현실적인 이 만남은 실은 선재동자의 구법행의 하나이고, 그 조종사 쌩떼쥐베리는 쉰네번째 선지식이 되는 것이다. 어린 왕자가 소설속에서 말한 대사들은 지금도 주옥(珠玉)처럼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탁해져버린 어른의 세계에서 다시 한 번 순수와 원형으로 돌아가는 지침이 되어준다.

"내 비밀은 이런 거야. 매우 간단한 거지. 오로지 마음으로 보아야만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법이야!" 어릴 적 읽은 어린 왕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100년 격동기 지켜낸 '문화재 이야기'

되찾은 문화재 되살린 문화재' 展

1997년 문경 김룡사 화장암에서는 절도범과 마주친 스님들이 도난범과 사투 끝에 진영 3점을 되찾는다. 도갑사 목조문수보현보살상과 영주 흑석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은 도난이 미수에 그쳐 가까스로 문화재를 지켜냈다. 무량사 삼층석탑에 봉안되었던 금동관음보살좌상과 지장보살좌상, 충북영동 영국사의 영산회상도 등은 재판을 통해 되찾은 문화재의 예다.

지난 100년, 우리의 역사는 혼돈 그 자체였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한국전쟁과 산업화를 거치며 수많은 사건이 일어났고 가치관의 혼란을 겪어왔다. 시대의 격동기, 우리의 문화재 또한 적지 않은 곡절과 수없는 사연을 담고 격동기를 거쳐 왔다.

때로는 약탈당했고, 때로는 소실되었고 때로는 훼손됐다. 지난 100년 우리 문화유산이 걸어온 구구절절한 사연을 담은 전시가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열린다.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흥선 스님)은 10월 17일~12월 9일까지 '불교문화재 다시 읽기-되찾은 문화재 되살린 문화재' 展을 연다. 불교문화재 131건 140점(국보 1건, 보물 10건, 시도유형 7건 포함)을 한자리에 모았다.

이번 전시의 특징은 단순한 문화재의 나열이 아니라 시대적 의미를 부여해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낸다는 점이다. 전시는 ▷Ⅰ근현대사 역사 속의 문화재 수난 ▷Ⅱ되찾은 문화재 이야기 ▷Ⅲ한국 전쟁으로 인한 문화재 수난 ▷Ⅳ되살린 문화재 이야기로 나뉘어 관람객을 찾는다.

'Ⅰ근현대사 역사 속의 문화재 수난'은 해외로 유출되었다가 돌아온 불교문화재를 선보인다. 1876년 병자수호조약이 체결된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쳐 1945년 광복을 맞이하기까지 상당수의 문화재가 조직적으로 약탈되거나, 도난 당해 국내외로 반출됐다. 이후 우리나라는 문화재를 찾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아직까지 그 과정에 대해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1965년 한일협정과 불교계의 노력으로 큰 성과를 얻은 문화재 환수 운동 등이 있어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 거치며
지켜낸 불교 문화재 140점 전시
불교중앙박물관…12월 9일까지



불교중앙박물관은 10월 17일~12월 9일까지 '불교문화재 다시 읽기-되찾은 문화재 되살린 문화재' 展을 연다. 사진은 도갑사 문수보현동자상.

왔다.

'Ⅱ되찾은 문화재 이야기'는 도난당했다가 되찾은 불교문화재에 얽힌 사연들을 작품과 함께 담았다. 이들은 제 각각 구구절절한 사연을 품고 있다. 고창 선운사 관음전 금동지장보살좌상과 참당암 동종 등은 절도범이 죄책감에 스스로 원 소장처로 문화재를 돌려보낸 경우다. 이는 불교문화재에 깃든 종교적 특성이 반영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Ⅲ한국 전쟁으로 인한 문화재 수난'은 한국 전쟁 중 무수한 고난을 이기며 지켜낸 문화재 이야기를 담았다. 전쟁의 광풍 속에서도 우리 문화재를 지켜낸 많은 이들이 있었다. 군과 경찰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절을 폭격하고 소각하라는 상부의 명령을 거슬러 천년 고찰과 문화재를 지켜냈다. 작전상 절을 불태우려는 군인들에 대항해 목숨 걸고 사찰을 지켜낸 스님, 문화재를 땅에 묻어 전쟁의 광기에서 보호한 스님들도 있었다. 제3부에서는 이런 노력으로 전쟁을 이기고 우리에게 전해진 문화재와 그에 얽힌 사연을 선보인다. 또한 'Ⅳ되살린 문화재 이야기'는 보존처리를 통해 되살아난 지류·금속·석조 등 다양한 재질의 문화재를 선보인다. (02)2011-1965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불국사 해체 복원 과정 한눈에"

한양대박물관 '한국건축문화재…'

1990년대 이후 문화유적답사가 대중화된 이후 건축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그러나 일반인들 대부분 건축문화재가 어떻게 유지 관리 되고 복원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 알지 못한다. 한양대박물관이 문화재의 복원과정을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양대학교박물관과 동대학 건축학부 동아시아건축역사연구실이 10월 15일~2013년 2월 23일 '한국건축문화재, 복원과 창조의 경계'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 전시는 건축문화재가 어떻게 유지, 관리되며 복원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지를 소개한다.

이번 전시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불국사를 통해 본 건축문화재 복원 과정이다. 해방 이후 첫 대규모 복원사업이었던 '불국사의 복원'은 중요한 시대적 상징성을 지닌다. 특히 당시 불국사 복원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이 현존하는 복원 과정과 단계를 이번 전시에서는 면밀히 살펴볼 수 있다. 전시되는 상당수의 관련 자료들은 1970년대 당시 실제 복원공사의 현장 감독이었던 유문용 씨가 일괄 기증한 자료들이다.

복원 공사 40주년 기념 특별전
현장 감독 유용문 씨 자료 기증

한양대 박물관은 "올해는 불국사 복원공사가 완료된 지 40주년이 된다. 문화재 복원의 세계를 보여주고자 불국사 복원공사 관련 서류와 도면으로 꾸민 코너를 따로 마련했다. 기타 목조건축문화재의 복원 사례와 그 활용 유형을 정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당시 문화재 복원은 중앙정부에 의해 주도한 국가적 사업이었으므로 자연스럽게 당시의 자금과 기술력이 집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대내외적 정세의 영향을 받기도 했다.





한양대학교박물관은 10월 15일~2013년 2월 23일까지 '한국건축문화재, 복원과 창조의 경계' 특별전을 개최한다. 사진 왼쪽은 경주불국사 70년대 장면, 사진 오른쪽은 현재 장면.

불국사의 복원과정은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복원을 둘러싼 당시의 복잡다단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맥락을 짚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관람객들은 왜 복원이 계획단계에서부터 설계 해체 보수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철학적 기술적 차원의 종합적 배려가 필요했는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덕사 대웅전 수복 전후 과정 등을 통해서 본 '복원의 다의성과 다양한 방법론' ▷복원된 건축문화재의 문화적 의미와 가치의 변화를 보여주는 '시각자료에 보이는 건축문화재' ▷펜화에 담긴 건축문화재를 살펴보는 김영택 화백의 초대전 등도 함께 관람할 수 있다.

정혜숙 기자



현대 문명 이미지 넣은 만다라의 진화

김태연의 'naver say goodbye'

"현재에서 과거를 상상하고 동서고금이 통한 것을 느끼는 순간 기쁨을 느낀다. 우주와의 만남을 한순간이라도 찾아 반갑기까지 하다. 물론 새로운 것이 좋고 신기하지만 너무 빨라 멀미가 나기도 한다. 속도의 시대를 살며 과거를 기웃거리다 보면 어지럼증이 가신다. 나는 최고(最古) 신상은 최고(最高)라고 말한다"

과거와 현대의 만남은 때로는 전혀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다. 아이콘, 뽀로로와 친구들, 아이스크림 상표, 교통표지판이 만다라로 태어났다. 우리가 사는 형형색색의 세상을 화폭에 펼치는 김태연 작가의 'naver say goodbye'가 종로구 화동 갤러리 빔에서 10월 27일까지 열린다.

작가는 현재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유행가, 개그 프로그램, 또 인터넷 공간에서도 무위자연의 도(道)를 되새기며 역행이 아닌 또 다른 내면의 깊이를 만들어간다. 또한 종교적 시각에서 부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려는 통찰도 담아낸다. 하지만 무겁거나 어렵지 않다. 작품 곳곳에 관객의 시각적 유희를 불러일으킬 요소를 등장시켜 현대인들의 눈길을 끌기때문이다.

"내 작품에 등장하는 부처와 보살들은 현대의 기호들과 함께 있거나 현대인들의 표정과 몸짓을 하고 있다. 하지만 건조된 흙판 위에 그림을 그려 낡고 오래돼 보이도록 마무리한다. 고대 벽화 속에서 현대문명이 등장하는 듯한 느낌을 자아내기 위해서다. 이처럼 과거의 신성한 그림을 통해 고대문명을 돌아보고 현재를 관찰하고 상상해보는 작업은 나에게 즐거움 그 자체다"

작가는 엄청난 속도로 변하는 현대문명을 두리번거리다가 뒤를 돌아본다. 그곳에는 여전히 아름다운 고대의 이미지들이 남아 영원한 것에 대한 유무(有無)를 생각하게 한다. 그렇게 단순한 형상들을 반복해, 장식적 문양을 묘사하고 익숙한 표정과 기호들을 그리다보면 작가는 어느덧 무아지경을 경험한다. 이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집착, 나도 모르게 젖어든 습관에서 거리를 두려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런 작가의 사유와 통찰은 'What am I doing'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왜 이러는 걸까요?' 'for Nothing' 'icon' 'MS' '천불도' 등의 작품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천불도'는 다양한 세계인들의 모습과 표정을 담아냈고 'What am I doing'은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는 현대인들을 묘사했다.

뽀로로 등 만다라로 표현
흙 작업으로 고전 느낌 가미
속도 경쟁에 지친 현대인에게
사유와 성찰의 시간 주고자



김태연 작가의 'naver say goodbye'展이 종로구 화동 갤러리 빔에서 10월 27일까지 열린다. 작가는 만다라에 현대적 소재를 접목 새로운 작품 세계를 열어가고 있다. 사진은 김태연의 '천불도'

"요즘 사람들은 마주 앉아서 각자의 스마트폰을 보거나 한 테이블에 앉아서 등을 돌리고 셀카를 찍는다. 요즘 흔히 보게 되는 이런 광경이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며 즉각적인 현대인들의 단면을 엿보는듯해 불편하다. 하지만 이내 이들 모두를 다시 있는 그대로 보기로 한다. 그 모두가 부처님이라는 생각을 한다"

'MS'는 우리가 사용하는 MS Google NAVER 등 사이버 공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미지를 만다라 안에 넣었다. 김 씨는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한 작품을 만다라라고 한다면 나 역시 현재의 시점에서 작업을 하며 내 주변의 익숙한 것들을 그 안에 적용해 보았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작가는 일반적으로 불화를 모티브 삼아 문명의 이기에 짓눌린 현대인들의 풍경을 고전적 시선으로 담아낸다. 사람들은 스마트폰과 같은 문명의 이기를 개발해 빠른 속도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지만 더 여유로워지기보다는 그 속도에 제압당하고만 있다. 그렇게 습관처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작가는 말한다. 한번쯤 만다라 속 세상에서 멈추어 나를 들여다보라고.

김태연 작가는 덕성여대 동양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성균관대 동양철학과에서 수학했다. 개인전으로는 '2008 이 가벼운 날들의 생' '2007 空들이다' '2006 色即示空 空即示色' 등을 개최했다. 제7회 송은미술대상전 입선 제28회 중앙미술대전 선정 작가로 선정된 바 있다. (02)723-8574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진영으로 보는 해인사의 역사

역대 고승 진영전 '해인삼매'

해인사 역대 고승 진영전 '해인삼매'가 11월 25일까지 해인사 성보박물관에서 열린다. 해인사는 창건부터 현재까지 혼신을 다해 해인사를 세우고 가꾸고 빛내면서 수행정진한 스님의 진영 142점을 담았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창건주 순응 스님부터 올초 입적한 前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까지의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전시는 1층 기획전시실에는 해인사 창건주, 중창주, 대공덕주 진영 을 전시하며, 2층 특별 전시실에는 해인사 근세 고승 용성 스님부터 최근 지관 스님까지 12점의 진영(혹은 사진) 실사본을 전시한다.

또 해인사성보박물관은 역대 고승 진영을 모은 도록도 출간했다. 도록에는 해인사 소장 진영 90점을 비롯해 홍제암 소장 진영 17점, 원당암 소장 진영 11점, 백련암

11월 25일까지 성보박물관서
지관 스님 등 진영 142점 전시

소장 진영 11점, 국일암 소장 진영 13점 등 총 142점의 진영이 수록됐다.

해인사는 "현재 해인사에 봉안 중인 142점의 진영 중 해인사 창건 스님과 초창기 해인사를 중창한 스님과 주석하며 정진했던 몇 분의 고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7차례 화재로 해인사가 중건 중수를 거듭할 때 공덕으로 모셔진 진영들과 근세에 모셔진 진영들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진영 대다수는 조선 후기에 활동했던 스님들 것으로 법통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진영, 사찰의 역사와 정통성을 보여주는 진영, 사찰의 중창을 이룬 대공덕주 스님들의 진영이 모셔져 있다.

한편, 해인사는 신라 제40대 애장왕 3년(802년) 순응 이정 스님이 가야산 서남쪽 길상지(현재 해인사)에서 정진할 때 백약이 무효했던 애장왕 왕후의 등창병을 고쳐준 인연으로 창건됐다. 이후 조선 숙종 21년인 1695년부터 조선 고종 8년 1871년까지 176년간 7차례 큰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 때마다 중건 중수를 계속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정혜숙 기자



'해인삼매(海印三昧)' 특별전에 전시되는 해인사 창건주 순응스님 진영.

"문화재 보존 중요성 깨닫자"

'되찾은 문화재…展' 개막식



불교중앙박물관 특별전 개막식에 참여한 자승 스님의 작품 관람 모습.

불교중앙박물관이 주최하는 '불교문화재 다시 읽기-되찾은 문화재 되살린 문화재 展' 개막식이 10월 17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불교중앙박물관장 흥선 스님, 종회의장 보선 스님, 아름다운 동행 사무총장 혜일 스님,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 정세균 민주당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불교중앙박물관장 흥선 스님은 "그동안 수난의 역사를 겪었던 우리 불교 문화재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라는 의미에서 준비된 전시다. 또한 현재 우리 문화 유산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문화 유산의 보존과 발전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자"고 인사말을 전했다.

자승 스님은 "우리 불교문화재는 그동안 시련과 수난의 역사를 걸어왔다. 그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는 자리로 마련됐다"며 "앞으로 우리 문화재를 잘 보존하고 지키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치사했다.

이날 참석 내빈들은 테이프 커팅식을 갖고 우리 전시 문화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전시는 12월 9일까지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열리며 불교문화재 131건 140점(국보 1건, 보물 10건, 시도유형 7건 포함)을 한자리에 모았다. ▷Ⅰ근현대사 역사 속의 문화재 수난 ▷Ⅱ되찾은 문화재 이야기 ▷Ⅲ한국 전쟁으로 인한 문화재 수난 ▷Ⅳ되살린 문화재 이야기로 나뉘어 관람객을 찾는다.

정혜숙 기자

문화재기능인 작품 한자리에

'제11회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작품전' 개최

10월 18~22일, 서울미술관서

숭례문 등 문화재 보수복원의 일선에 서 있는 문화재기능인들의 작품을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렸다.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회장 이재순)는 문화재청과 조계종 총무원 후원으로 10월 18~22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서울미술관에서 '오천년의 혼으로 이어온 장인들'이란 주제로 '제11회 한국문화재기능인작품전'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에는 목공·석공·목조가·석조각·화공·칠공 등 13개 분야에서 문화재 보수 복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 기량을 가진 124명의 문화재기능인이 130여 점을 전시했다.

전시 개막식은 18일 열렸으며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출품작 중에서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등 우수작품 입선자 다수를 선정해 시상하며 대상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상금 5백만 원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문화재기능인들의 현장시연도 전시기간 동안 마련됐다. 장인들의 지도하에 △국보급 포 짜 맞추기 △전통문살 만들기 △단청문양 채색하기 등이 전시장 내 특별무대에 마련돼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했다.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는 매년 문화재기능교육, 직종별문화재기능교육, 문화재탐방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술교양지 〈문화재기능의 맥〉을 발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은 출품작인 허길량의 '관음반가사유상'

이재순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회장은 "참여 작가들은 문화재 수리현장에서 작업한 경험을 살려 격조 있고 수준 높은 작품준비에 열과 성을 다했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목조, 석조 등의 문화재를 재현함으로써 전통기술의 전승과 우리 전통기능공예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02)3672-8803

이나은 기자

稀潭石 희담석 www.jawonet.com

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전자파 걱정 없는 희담석 온열매트로
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희담석 에너지가 고객님의 건강을 증진시켜 드립니다.

희담석(稀潭石)의 가장 큰 특징은 탁월한 에너지 방사능력이며, 제오라이트(Zeolite) 또한 '생명의 돌'이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에너지 및 탈취 효과가 뛰어난 원석입니다. 희담 원석 중에서도 최고의 재료만을 엄선하여 만든 희담석 온열매트는 수면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해 드리며, 언제 어디서든 수맥파로부터 고객님을 보호할 것입니다.

2인용 1인용

희담석 온열매트
● 1인용 : 58만원 ● 2인용 : 85만원

제품 사양
• 내용물 : 희담석 볼(희담석 60% + 제오라이트 40%)
• 열 선 : 실리콘 테프론 무자계 열선
(전자기장으로부터 안전한 열선으로 고가의 침대에서만 사용하는 열선)

● 크기
1인용 : 100㎝ × 200㎝
2인용 : 150㎝ × 200㎝

정신 집중이 잘 되고 머리가 상쾌해지는
희담석 방석

사용방법
좌선용, 학생 및 사무용 의자, 소파, 차량 등에 사용하십시오.
희담석 방석은 오랫동안 앉아서 생활해야 하는 운전자, 학생, 사무원, 스님 등 수련하시는 분들께 매우 유익합니다.

고급신형
● 50,000원 (색상 : 황토색) (사이즈 450mm×450mm)
※ 오래 앉아 있어도 땀이 차지 않습니다

명상과 함께 하는 -
희담석 염주목걸이

건강과 활력을 주는
희담석의 무한한
에너지 방사능력을 체험해 보세요.

이런 분께 권합니다.
· 수행하시는 스님 및 불자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
· 목의 뻐근함을 느끼시는 분
· 피로가 누적된 분
·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수험생
·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 샐러리맨

정 가 66,000원
↓
할인가 56,000원

합장주 35,000원 → 할인가 30,400원
염주목걸이+합장주 SET → 84,000원

숙면으로 이끄는 -
희담석 베개용 패드

사용방법
베개 위에 올려놓거나 베개 커버를 벗겨서 패드를 올려 놓은 후 다시 커버를 씌우고 사용합니다.
(뒷면 미끄럼 방지 도트 처리로 밀리지 않습니다.)
· 아침에 일어나서도 개운하지 않는 분
· 두뇌 활동이 많은 학생
· 스트레스로 인해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분 등

● 25,000원 (황토색)

www.jawonet.com에서 카드 구입시 2, 3, 5개월 무이자 할부가 됩니다.
제품문의 011-9230-2335
자원넷 JAWONET CO.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8-4호 금구빌딩 B103호 TEL (02)3476-2335 FAX (02)3476-2505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등간격:규격참조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소원성취 인등 및 사리함
크리스탈 인등
고추구 12B 인지구 26E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A/S 법당 전선 10년 외곽 전선 5년
불제광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81-1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용)
노랑 진분홍 백색 연분홍
▶연등규격 : 4˝, 6˝, 7˝, 8˝, 10.5˝, 13˝, 20˝, 30˝

건전지 초(행사용) 탑돌이 방생
노랑 진분홍 백색 연분홍
이주 밝은 건전지 초 (LED용)
LED전구, DC 9V 백색 · 노랑 · 빨강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명상하면 뇌구조 달라져 공부 잘 된다



명상으로 10대의 뇌를 깨워라
혜거 지음
책으로여는세상 펴냄
1만4천원

대입 수능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수험생들은 마지막 정리를 하느라 스트레스가 최고조일때다. 꼭 입시생 뿐만 아니라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면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다.

이 책은 날마다 공부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질풍노도의 시기 속에서 마음이 어지러운 청소년들의 고민을 한 방에 날려줄 비결을 담고 있다. 누구나 이 프로그램을 따라 하기만 하면, 60분 공부를 10분만에 끝낼 수 있을 만큼 공부가 쉬워지고, 어지럽던 마음도 편안해져 공부 집중력이 한결 높아진다.

그 비결은 바로 '명상을 통한 15회기 집중력 향상 훈련'에 있는데, 이 책에는 그 비결이 자세히 실려 있다.

저자 혜거 스님(금강선원장 · 사진)은 10여 년째 청소년 대상으로 명상 훈련을 지도해오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많은 청소년들이 이 명상 훈련을 통해 성적이 오르고, 공부하는 재미를 알게 됐으며, 나아가 자신의 꿈까지 찾는 학생들이 많아졌다고 설명한다.

먼저 1장에는 명상이 어떻게 해서 우등생과 열등생의 결정적 차이인 공부 집중력을 높여주는지, 그리고 심리적 불안을 해소해 공부할 마음을 갖게 해주는지를 과학적 근거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어 2장에서는 명상 훈련의 기본자세에 대해 알려주고,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명상을 통한 15회기 집중력 향상 훈련'을 회기별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청소년 독자들이 회기별로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흔히 사람들은 명상 효과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쯤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과학자들이 밝혀낸 결과는 그 이상이다. 명상을 하면 단순히 마음이 편안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뇌 구조 자체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과학적 연구를 통해 밝혀낸 것이다. 곧 명상을 하게 되면 우리의 뇌에서 사고기능과 집중력,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부위가 두꺼워지고 주름

명상통해 집중력 높이는 과학적 근거 제시
시냅스 활성화되고 두뇌피질 두꺼워져

이 많아지며 활성화된다. 그 결과 공부 집중력과 기억력, 사고력이 높아지며, 마음까지 잘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국뇌과학연구원은 오랫동안 명상을 해온 46명과 전혀 명상을 하지 않은 46명의 뇌를 자기공명영상(MRI)과 확산텐서영상(DTI) 장치로 촬영해, 두 집단의 뇌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세밀하게 분석 작업을 했다. 그 결과 명상을 해온 사람들의 경우, 뇌의 전두엽과 측두엽의 피질 두께가 일반인들에 비해 두꺼운 것을 확인했다. 전두엽과 측두엽은 사고와 판단, 감정 조절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뇌의 한 부분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명상이 전전두피질(prefrontal cortex)의 회백질을 풍부하게 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는데, 회백질은 집중력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위이다.

저자에 따르면 과학자들은 뇌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뇌세포가 아니라 뇌세포와 뇌세포 사이의 연결 고리, 곧 시냅스란 사실도 밝혀냈다고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명상이 이 시냅스를 활성화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두뇌이미징연구소의 에일린 루더스 교수는 명상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의 뇌를 관찰한 결과, 일반인에 비해 두뇌 피질의 접힘 현상 곧 주름진 정도가 더 크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접힘 현상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시냅스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두뇌 피질이란 두뇌의 가장 바깥층으로 기억력과 집중력을 비롯해 사고와 의식에 관여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두뇌 피질은 접힘이 많을수록 정보 처리나 의사결정, 그리고 기억 형성 등을 더 잘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명상을 하게 되면 이 접힘 현상이 더 발달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이 책의 주 내용은 명상을 통해 공부 집중력을 높이고, 어지러운 10대들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 근거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혜거 스님은 가천의과대학의 도움을 받아, 금강선원 명상 훈련에 참가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명상 훈련 전과 뒤의 뇌 변화를 관찰했다.

그 결과 뇌에서 집중력과 충동 조절에 관여하는 뇌 부위인 안와전두 영역이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5회기 동안의 명상 훈련 뒤 학생들이 집중이 잘되고 공부가 잘되었다고 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다.

이 책은 뇌 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는 명상 훈련의 실제를 아주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어, 누구나 성실히 따라 하기만 하면 효과를 맛볼 수 있다. 15회기로 구성된 명상 훈련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는데, 훈련의 기본은 좌선 명상과 잔상 훈련이며, 회기가 진행될수록 이미지 훈련과 듣기 훈련, 바디스캔 훈련이 추가된다.

각 훈련은 5분에서 10분이면 모두 마칠 수 있는데다 어렵지 않아 특별한 지도나 없이 책만으로도 충분히 따라 할 수 있다. 또한 회기별로 자신의 훈련 성과를 평가해보고, 15회기 훈련을 마친 뒤에는 그 효과를 비교해볼 수 있도록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까지 들어 있다. 그리고 '친구들의 명상일지 엿보기' 코너를 통해 자신의 훈련 정도와 다른 사람들의 훈련 상황을 비교해볼 수도 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경전 속 한문 쉽게 해설

왕초보 한문 박사되다

김형중 지음 | 민족사 펴냄 | 1만2천원



이 책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쉬우면서도 불교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경전을 선별했다, 또 그중에서도 초심자들의 불교 이해에 기초가 되는 원문(전문)을 선정했다.

1장 찬불예배에서는,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알아야 할 부처님의 탄생과 찬탄의 글을 소개했다. 2장 대승경전에서는 수많은 경전 중 특히 한국 불자들에게 친숙한 경전인 금강경, 능엄경, 원각경, 화엄경, 유교경, 법화경을 선별해서, 그중에서도 친근한 원문을 선정했다. 3장 조사어록에서는 불자라면 한번이라도 들어봄직한 조사스님들의 어록을 원문으로 선정했다. 우리나라 불교가 간화선을 추구하는 선불교이기 때문에 특히 중국의 조사어록을 소개했다. 4장 화두공안에서는 벽암록, 무문관에 나오는 대표적인 화두 공안을 선정했다. 5장 선시 게송에서는 불교한문 책의 딱딱한 느낌에서 벗어나 선사의 깨달음에서 빚어진 언어의 사리라 할 수 있는 명품 선시를 소개함으로써 독자에게 여유와 낭만 그리고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했다.

대표적인 경전과 어록을 골라 한문 원문으로 삼았기 때문에 내용이 생소하거나 싫증나지 않고 친근하리라 여겨진다.

〈새로운 한자〉 항목도 구성해, 원문에 나온 한자 하나하나의 뜻과 독음을 표기했다. 게다가 친절하게 원문의 뜻에 적합한 뜻부터 먼저 새겨서 문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김주일 기자

"마음 그릇 비울 때 큰 행복과 만족 채워져"

비움, 아름다운 채움

성전 지음 | 마음의 숲 펴냄 | 1만3천원



요즘 우리 생활을 보면 뭐든지 흘러넘치는 과잉의 삶을 사는 듯하다. 자신에게 있는 것을 두 손으로 우악스럽게 움켜쥐고,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아등바등 사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진다. 그러나 그렇게 살수록 우리 마음은 탐욕과 분노, 미움과 갈등으로 채워진다. 채우고 가질수록 공허해지고 황폐해지는 사람들에게 성전 스님은 진정한 행복의 채움은 마음 그릇을 비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한다.

이 책에는 한 폭의 수채화 같은 풍경이 펼쳐져 있는 남해에서 자연과 벗하며 사는 스님이 일상에서 보고 듣고 수행하며 얻은 삶의 겸허한 깨달음이 담겨 있다. 스님은 어려운 법문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주변의 산과 바다, 꽃과 나무, 낮의 햇살과 밤의 별을 보고 느낀 삶 특유의 아름다움을 문장으로 쉽게 전달한다. 특히, 마음의 비움과 존재의 비움에 대한 성전 스님의 화두는 독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책에서 성전 스님은 우리의 마음 그릇을 비울 때 큰 행복과 만족이 채워진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우리 마음에는 '나'가 꽉 차 있다. 사람들은 나라는 이름의 고집과 편견을 앞세워 자기 자신만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고집과 편견이 마음에 차지한 자리가 너무 커 사람들은 다른 것을 보거나 듣지 못하고 그 어떠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소통을 하지 못한 채 저마다 외로운 섬처럼 살고 있다. 사람들의 이런 삶을 두고 스님은 우리 스스로 인연을 따라왔다가 인연을 따라 가는 존재임을 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나만을 내세우는 사람, 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에게 스님은 비워야만 채우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스스로 '나'라는 마음의 감옥을 벗어나지 않는 한,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그 끝없는 갈애는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해도 채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마음의 욕심을 비울 때, 나를 버릴 때에 삶의 행복과 만족이 채워지는 것이다.

이처럼 이 책에는 지친 영혼을 위한 휴식의 글뿐만 아니라 자기 성찰과 존재 이유를 확인하게 해 주는 깨달음의 글들로 가득하다. 수행자로 산 지 30여 년 가까이 되는 성전 스님은 자연에서 자기를 버리고 마음 그릇을 비우는 법을 배웠다. 스님은 강, 구름, 꽃, 산에게 스스로 끊임없이 물음을 던지고 고뇌하고 반성하며 답을 얻었다. 햇살 한 줌, 바람 한 자락 등 주위에서 만나는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생명임을 깨달은 스님은 그렇게 자연이 건네는 말에

성전 스님 수행 생활 64편 산문으로 소개
집착서 벗어날 때 '나와 너' 경계 사라져

귀 기울이며 자연과의 합일을 추구한다.

스님은 새벽 예불을 하면서 올려다보는 별, 고요한 절에 울려 퍼지는 풍경소리를 들으며 삶의 기쁨을 발견한다. 숲길을 지나가며 만나는 풀잎과 맑음이라는 화두를 던지는 가을 하늘을 보며 가장 깨끗한 마음의 순간과 마주한다. 한평생 남에게 "나눔과 하심"을 실천했던 어머니의 모습에서 정직함과 무욕의 인생을 살아온 촌로들의 순박한 표정을 보았던 성전 스님. 스님은 일상의 사소함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을 찾아내고, 마음의 욕망을 비울 때 비로소 채워지는 행복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런 스님의 삶에서 우리는 일상에서 평범하게 마주치는 자연과 사람이 행복을 만드는 재료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너무 많이 먹으면 탈이 나는 몸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욕망을 받아들이는 한계가 있다고 성전 스님은 이야기한다. 그리고 행복은 욕망의 한계 내에 있다고 덧붙인다.

지나친 욕망은 그 사람의 인생을 조금씩 좀먹는다. 그래서 결국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게 할 뿐이다. 스님은 자신을 좀먹는 욕망을 버릴 때, 그래서 마음에 여백의 공간을 마련할 때 그 자리에 행복이 채워짐을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기 위해서 시선을 내면으로 돌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해야 한다고 스님은 말한다. 그때 행복이 온다는 것이다. 성전 스님의 말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 다른 것을 찾아 밖을 서성이는 사람이 될 것인가, 행복을 찾아 마음의 주인이 될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할 몫이다.

이 책은 '자기와 이별하기', '가을날의 모성', '생명은 채움이다', '나를 버려야 편안하다', '산에서 배워야 할 마지막 한 가지' 등 64편의 산문이 총 5장으로 나뉘어 있다.

김주일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0/10~10/16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만덕, 만현	현지궁현지사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4	영원에서 영원으로	불필	김영사
5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6	선화 상인 능엄경 강설	정원규	불광출판사
7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출판
8	비움 아름다운 채움	성전	마음의숲
9	김치나무에 핀 행복	일운	담앤북스
10	유마경(사람들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무비	민족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minjoksa.org

경전 강의시리즈 출간!

그동안 수많은 불자님들의 염원이었던 본격적인 강의 교재

경전강의시리즈는 다른 책과 다릅니다.
1. 대학승 · 대강백 스님들의 경전 강의 내용을 한 권의 책에 온전히 담아냈습니다.
2. 경전 원문과 그 독음, 번역, 강의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어려운 한자를 골라내어, 그 독음과 뜻을 원문 바로 옆에 달았습니다.
4. 경전 강의를 들으며 직접 필기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충분합니다.
5. 한 권만 있으면 다른 보충 교재는 필요 없습니다.
6. 경전 강의를 하려는 선생님께, 경전 강의 수업을 듣고자 하는 학생 모두에게 교재용으로 적합합니다.
7. 실양장제책을 하여 360°로 짜악 펼칠 수 있습니다.

교재 01



금강경
깨지지 않는 법
472쪽 | 25,000원

대학승이신 성본스님의 금강경 강의!

금강경은 다이아몬드와 같이 파괴되지 않는 견고한 반야의 지혜로 일체의 중생심을 끊어버리고 타파하는 경전이다. 성본스님은 절망과 무기력에 지친 현대인의 괴로움을 달래줄 긍정의 힘을 금강경에서 찾고 있다.

교재 02



유마경
사람들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624쪽 | 28,000원

대강백이신 무비스님의 유마경 강의!

유마경은 출가 중심의 편협하고 왜곡된 불교를 철저하게 비판하여 대승불교의 참다운 뜻을 밝히고 있다. 무비스님은 갖가지 고민과 불행 속에서 헤엄치는 현대인의 아픔을 보듬어 공감하는 힘을 유마경에서 찾고 있다.

민족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el. 02)732-2403, 2404 Fax. 02)739-7565 이메일. minjoksa@chol.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minjoksa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왕초보 한문 박사 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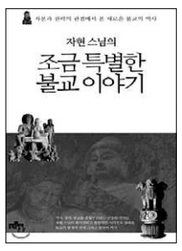


김형중 지음 | 288쪽 | 12,000원

불교 한문 초보자를 위한 맞춤 도서

1. 최초의 불교 한문 공부 교재
2. 해석 방법과 문법 소개
3. 경전에서 예문을 발췌하여 소개함
4. 복잡한 그림처럼 보이는 한문, 이제 글자로 보인다!

불교는 인간 행복에 가장 적합한 수단



자현스님의 조금 특별한 불교이야기
자현 스님 지음
불광 펴냄
1만5천원

동국대, 성균관대, 고려대에서 철학과 불교학, 미술사학 분야의 석 ·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동국대 교양 교육원 강의 전담 교수이자 동국대 인문학부, 불교학부, 미술사학과에서 강의하고 있는 자현 스님〈사진〉이 새롭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인도와 중국 불교를 바라본 신간이 출간되었다.

저자는 오늘날 학교 교육이 서구식 분절적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는 전체를 보는 거시적인 통찰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주장한다. 또 오늘날 학문적인 흐름은 융 · 복합이라는 신(新)박학파를 요구한다면서, 청나라의 백과사전식 박학파의 관점으로 불교를 바라보고 전체적인 안목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저자는 "종교와 문화는 거대한 강과 같은 유구한 흐름이다. 그러므로 개별적인 가치에 앞서 통체적인 시각이 확보될 때 비로소 전체적인 생명력을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서구적인 학문 기법에 따른 분석적 접근은 이제 학문의 판도를 흐름이 아닌 사건 중심으로 변모시켜 놓았다. 덕분에 동양학은 자신의 장점을 잃고 표류하게 되었다. 이 책은 인도불교와 중국 불교의 거시적인 흐름을 통해 전체 좌표를 드러낸다. 이를 통해서 부분적인 불교를 넘어서는 전체와, 전체 속에서의 부분에 대한 더욱 분명한 이해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고 소개하고 있다.

불교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고 따라서 매우 다양한 관점을 만들어 낸다. 하지만 저자는 불교의 성립에서 쇠퇴를 일관하는 핵심으로 '상업자본'에 주목한다. 그것은 '자본'과 자본에 의해 조종되는 '권력'이 역사와 불교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을 통해 불교와 불교 역사에 대한 거시적인 이해가 가능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이 책에서는 '상업과 자본'을 기본 축으로 해서,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과 '역사의 순환과 문제의식의 항존'에 대한 측면을 양 날개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하나의 일관된 불교를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저자는 이 책에서 불교가 상업이라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던 '축(軸)의 시대(axial age: 독일의 칼 야스퍼스가 인간의 합리적 이성주의가 만개하는 B.C. 8~B.C. 2세기 사이를 지칭한 표현. 이 시기에 그리스 · 인도 · 중국의 모든 성현들이 출현해 인류 지성의 기틀을 확립함)'에 발생하는 것에 주목한다. 상업에는 이윤 추구라는 합리성과 이성주의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불교적인 정신이 상업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또 그 때문에 신을 중심으로 하는 폐쇄적인 농경문화와 그런 농경문화를 기반으로 한 힌두교와



'자본과 권력' 불교 이해의 키워드
불교는 결국 인간 행복 위한 것이다
모든 학문 인간학과 행복으로 귀결

유교와는 질적으로 다른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가치를 불교가 내포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저자는 모든 학문이 결국 인간학이어야만 하며, 그것은 행복론으로 귀결되어야 한다고 단언한다. 이런 점에서 종교는, 특히 불교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 시대는 더 이상 '무엇을 가졌느냐?'나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세상을 보느냐?'는 관점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 문제에 인간 행복의 핵심이 존재한다고 강조한다.

"종교는 그 자체가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종교 역시 문화나 예술처럼 인간 행복을 위해서 봉사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동양 종교는 유신론적인 신앙의 종교와는 다른, 나를 세우는 앎의 종교이다. 이런 점에서 동양 종교는 긍정적이다. 동양 종교의 나를 세워 주는 구조는 동양 종교를 종교이자 철학이게 한다. 그리고 이것이 개인에게 자유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현대 인간 문제의 해법을 온축하고 있다."

저자는 인류의 종교 중에서 스스로를 비판하면서 타자화할 수 있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다고 말한다. 즉, 불교는 인간에게 자유와 행복을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종교라는 것이다. 이는 불교만이 인간 행복에 가장 적합한 수단임을 의미한다고 강조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자현 스님은?

동국대 철학과 · 불교학과를 졸업했으며, 동국대 불교학과 석사(중국불교) ·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석사(인도불교) ·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박사(율장) · 동국대 미술사학과 박사(건축) · 고려대 철학과 박사(한국불교)를 수료했다. 현재 동국대 · 울산대 · 성균관대학교에서 강사로 재직 중이며, 대한불교조계종 영평선원 원장 · 대한불교조계종 부산불교대학 학장 ·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 교무국장 · 대한불교조계종 교수아사리를 맡고 있다. 인도 · 중국 · 한국 · 일본에 관한 80여 종의 논저가 있다.

'마음 모음' … 도심에서 하는 명상법

도시에서 명상하기

조너선 S. 캐플런 지음 | 강도은 역
행성:B잎새 펴냄 | 1만4천원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가운데 10명 중 9명이 도시에서 생활한다고 한다. 국토 면적의 16%도 안 되는 곳에서 인구의 90%가 모여 살다 보니 시끌시끌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도시를 떠나지 못하는 걸까? 도시 생활자의 수만큼이나 도시 생활을 하는 이유 또한 천차만별로, 대개는 직장 생활을 위해, 교육을 위해, 아니면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 풍요롭고 화려한 도시 생활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퇴근하고서도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직장 생활부터 사생활을 보호받지 못하는 가정생활까지, 도시 생활은 일상적인 스트레스로 이어진다.

도시 생활의 스트레스는 대개 마음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최근 심리학과 관련된 연구 자료에 의하면 가벼운 스트레스는 운동과 명상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한다.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내면과 외부 환경을 제대로 바라보고 인식하는 명상법과 적당한 신체 활동이 스트레스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명상과 관련된 책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대개의 책들이 명상하기 좋은한적한 곳을 찾아가거나 하루에 얼마씩은 반드시 명상을 하라고 권유하는 책들이다. 바쁜 도시 생활자들이 따라 하기에는 쉽지 않은 방법들이다.

이 책의 저자인 조너선 S. 캐플런은 마음모음과 명상법을 심리치료에 적용하고 있는 임상 심리학자이다. 뉴욕에서 생활하는 도시 생활자이기도 한 저자는 바쁘게 살아가는 평범한 도시 생활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명상을 실천하는 'urbanmindfulness.org'라는 블로그를 만들어 독자들과 함께 여러 실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임상 고객들 그리고 블로그 독자들과의 오랜 교류를 통해 만든 자료를 토대로 이 책을 만들었다.

환경을 바꿀 수 없을 때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 자신의 내면세계를 바로 보고 외부 환경에 주의를 기울이면 자신을 괴롭히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알

도심 스트레스 마음서 비롯
마음바꾸면 세상 달라보여

아챌 수 있다. 이 책에서 자주 말하는 '마음모음'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선입견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오직 지금 이 순간에 경험하는 감각들에 주의를 기울이면 훨씬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에는 집에서, 회사에서 그리고 도심 한가운데에서 길을 걷다가도 주의 깊게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준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마음모음 방법을 따라 하다 보면, 복잡한 도시 생활에 쫓기고 스트레스 받느라 지친 우리의 일상이 어느새 평범하지만 더 이상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즐거움이 될 것이다.

김주일 기자

Tip 사무실서 할 수 있는 '명상 레시피'

① 스트레스 넘치는 도시 생활자들의 일상에 대한 성찰

먹고, 자고, 대화하고, 문자메시지 보내고, 청소하는 것처럼 도시에서 벌어지는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생활에 주의 깊게 마음모음을 하며 바라보면 나를 바로잡고 특별한 즐거움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②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초간단 명상 레시피

방 안에서, 직장에서, 출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등등 언제 어디서든 마음만 먹으면 명상을 실천할 수 있다. 이 책에는 각 꼭지마다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손쉽고도 간편한 실천 방안들이 '명상 레시피'처럼 제시되어 있다.

③ 책 만드는 과정 또한 마음모음의 실천 과정

이 책의 지은이는 임상 심리학자로서 자신의 경험은 물론, 고객들과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만난 독자들과 함께 마음모음에 대한 여러 실천 방법들을 모색했다. 이 책을 만드는 과정 또한 그와 다르지 않아서, 한국의 독자들과 함께 책 내용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마음모음에 필요한 사진들을 공유하며 책을 만들었다. 책 만드는 과정이 마음모음의 실천 과정인 셈이다.

"화의 원인 근절하면 화 누를 수 있어"

화를 다스리면 인생이 변한다

저자 알루보물레 스마나사라 | 번역 강성욱
경성라인 펴냄 | 1만2천원



"화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싫다' '이것은 안된다'라는 반응입니다. '산다는 것은 고'이자 '고를 없애고 싶다'라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화는 점점 버전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화'를 만드는 원인을 근절하면 화를 누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스리랑카 상좌불교 장로인 저자는 '화'의 원인과 억제법 등을 연구해 이 책을 펴냈다.

화를 내지 않는 것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마음가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제나 밝고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이제 절대로 두 번 다시 화내지 않겠다.'라고 마음먹어도 결국, 어떤 일이 생기면 화에 지고 마는 것이다. 밝게 살고 싶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지만 결국에는 화를 내게 된다.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어도 화내게 된다. 왜냐하면 생명은 선천적으로 화를 내기 때문이다. 살아 있는 한 인간은 화내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세상 사람들은 '화'는 '악'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어떤 '화'일지라도 '화'로 인한 행위의 결과는 반드시 불행해진다. 화는 맹독이다.

불교에서는 '병'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마음이 '화'에 물들면 인간의 성장은 멈춰버린다. '화'에는 한층 깊은 마음의 진리, 생명의 진리가 감춰져 있다. '화'는 지혜와 이해로 극복하는 것이지 인내하고 억제하는 것이 아니다. '화'를 극복한다는 것은 행복해지는 과정이자 인간이 성장할 수 있는 과정이다. 그것을 한 발, 한 발 밟아나가는 과정이다.

이 책은 저자가 우리 마음속에 내재된 '화'를 잠재워 '화'를 다스리면 인생이 변한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청춘 이야기 문학적 감성으로 풀어

노잣돈 모자란 아이

조순향 지음 | 계간문예 펴냄 | 1만2천원



2001년 〈책과 인생〉으로 등단해 문단 활동을 시작한 조순향 前 경기대 교수의 에세이집 〈노잣돈 모자란 아이〉가 나왔다. 기억 속에서 가물거리는 청춘의 이야기들을 풀어내어 삶의 생기를 더해주는 글들을 수록한 책이다. 인문주의자의 교양에 바탕해 균형과 중용을 잃지 않은 노련함이 돋보이는 글들로 채워져 있다.

사학을 전공한 저자는 항상 문학하는 이들이 부러웠다고 한다. 좋은 글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글'속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자는 10여년전부터 문학수업을 시작한다.

저자는 머리말을 통해 "마음속 진실을 드러내는 글은 빗장 채웠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사람들과 악수하는 것 같았다"며 "내 청춘의 이야기들을 글을 통해 불러내보니 모든 정다운 눈으로 주변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고 털어놨다.

책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도 곳곳에 묻어있다. 불교신자인 저자가 백중날 강남 봉은사를 찾아가 본 '판전'에서 아버지를 떠올린다. 추사의 마지막 절필인 '판전'은 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모태불자다. 어려서부터 불심 깊으신 할머니들을 따라 절에 다녔다. 집에 관세음보살님 탱화가 걸린 불단이 있을 정도였다. 점점 나이가 들면서 수행의 중요성을 절감해 1991년 7월에는 송광사 수련회에 다녀오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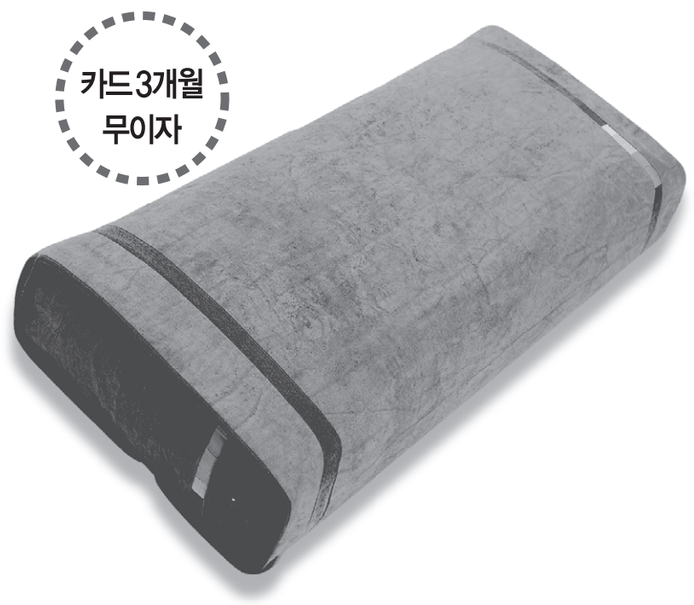
그 후로도 불교모임에 참여해 경전공부도 하고 참선도 하면서 저자는 불교를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됐다고 말한다.

이외에도 이 책에는 '우리집은 유치원' '물 좋고 정자 좋은 곳' '어머님의 솜씨' '대지의 노래' 등 50여편의 단상을 수록해 놨다. 김주일 기자

수풀림 천/연/감/염/색

대나무숯베개 대나무

흡착력이 뛰어난 대나무숯의 효능!
천연 감염색의 신비!



■ 제조 : 수풀림숯침대(주)
■ size : 45. 22. 7.5cm
■ 가격 : 천년베개 ₩110,000 2점세트 ₩200,000

수풀림대나무 숯 베개는 지리산 자락 청정지역의 왕 대나무를 채취하여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연구 개발한 숯 제조 기술로 1.000℃ 이상 고온에서 소성한 대나무 숯과 항균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굴참나무를 넣어 효능을 극대화한 천연베개입니다. 또한,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안감 겉감 모두 감으로 유명한 청도군의 특산품인 「천연감염색천」을 사용하여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수풀림대나무숯베개」는 100% 국내산으로 국내에서만 제작되는 친환경 인체친화형 천연 숙면 베개입니다.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정제용 대나무 숯은 몸속의 나쁜 피로물질을 흡착 정화시켜주는 효과가 탁월하여 숙면을 취하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머리와 얼굴 피부에 직접적인 연관있는 베개를 선택하실 때에는 자의적 효능보다는 객관적이고 과학적 정보에 근거한 베개가 좋은 베개입니다.

제품신청 080-300-1080

NAVER 검색창에 대나무숯베개 를 쳐보세요



천연감염색 대나무숯베개의 효과

* 대나무숯은 차운 기운이 방출되어 머리를 맑게 하여 편안히 잘 수 있습니다.
* 대나무숯은 땀이나 침 등의 수분을 흡착하여 늘 뽀송뽀송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 대나무숯은 흡작기능과 정화능력이 뛰어나 몸속의 피로물질을 흡착 정화해줍니다.
* 천연감염색천은 청도군의 특산품으로 검증된 친환경 제품입니다.
* 너무 딱딱하지 않게 굴참나무 껍질을 넣어 알맞은 경도로 제작되어 포근함을 유지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권해 드립니다.
두통/불면증/아토피/만성피로/목디스크/수험생/직장인/선물용/혼수용

■ 전국취급점모집 담당 : 010-3863-3557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고구려의 보덕이 방장을 백제로 옮긴 까닭은?

도교 중시 고구려 종교 편향에 패망 감지

1. 열반경과 방등교의 대가

한반도와 대륙에 걸쳐있었던 고구려는 사국 중 제일 먼저 불교를 공인하였다. 당시 고구려의 중심은 만주의 요서와 요동 지역에 있었다. 때문에 불교 공인 이후 고구려의 불교사찰은 만주 일대에 개창되었다. 그때 만주 지역에 분포되었던 고구려의 사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는 없다. 다만 남경이었던 평양에 9개의 사찰을 세웠다는 기록으로 미루어보아 수도 집안(국내성)에는 더 많은 사찰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광개토(廣開土)대왕의 아들인 장수(長壽)왕의 평양 천도 이후 고구려의 중심은 평양으로 옮겨졌다. 해서 양(梁)나라 남경에서 활동했던 삼론학의 승랑(僧朗)과 달리 평양 천도 이래 수도(평양)에서 활동했던 지론학의 의연(義淵) 이후 고구려 후기의 보덕(普德)은 열반학과 방등교의 대표적 고승이었다. 각훈(覺訓)의 『해동고승전』에는 "보덕의 자(字)가 지법(智法)이며 이전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 외곽의 용강현(龍岡縣) 출신이다"고 하였다. 일연은 보덕에 관한 자세한 것은 아래의 본전(本傳)을 보라고 하였다.

보덕은 늘 평양성에 머물렀는데 어느 산방(山房)의 노승이 와서 강론해 주기를 청하였다. 대사는 굳이 사양하다가 할 수 없이 『열반경』 40여권을 강론하였다. 강론이 끝난 뒤에는 성의 서쪽 대보산(大寶山) 바위굴 아래에서 참선을 하였다. 하루는 어떤 신인(神人)이 와서 '이곳에 오래 머물러 달라' 고 청하면서 석장(錫杖)을 앞에 놓고 가리키며 '이 밑에 8면의 7층 석탑이 있을 것이오' 라고 하였다. 땅을 파보니 과연 탑이 있었다. 보덕은 그곳에 정사를 세워 영탑사(靈塔寺)라 하고 머물러 살았다. 당시 탑들의 양식은 대체로 4면 3층 혹은 5층 또는 7층 탑이 주종을 이루었다는 사실에서 보면 8면 7층의 탑은 흔치 않은 양식이었다. 그리고 그 탑이 땅 속에서 땅 속에서 나왔다는 것은 전 시대에 절이 있었던 곳임이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보덕은 노승이 와서 강론을 청할 만큼 『열반경』에 대해 일가를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열반경』의 주요 메시지는 1) 붓다의 몸은 영원히 머무른다[法身常主], 2) 열반은 영원하고 즐겁고 내가 있고 청정하다[涅槃常樂我淨], 3)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다[一切衆生 悉有佛性]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모든 생명체들은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선성(善性)의 뿌리를 끊어버려 도저히 구제할 길이 없다고 낙인찍혀 온 일천제(一闡提, 斷善根)까지도 언젠가는 성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해서 보덕의 『열반경』 인식은 당시 동아시아 불교학의 주요 흐름을 형성하였던 중관학과 삼론학과의 관련 속에서 이해해야만 한다. 『열반경』은 '열반' (涅槃)과 '불성' (佛性)의 의미와 그 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보덕은 당시 고구려 불교의 주류였던 삼론학에 입각하여 『열반경』의 '불성의' (佛性義)를 보다 발전시킨 것으로 이해된다. 보덕이 『열반경』의 '불신상주' 설과 '일체중생 실유불성' 설의 메시지를 강조한 것은 당시 고구려 황실이 도교의 불로장생(不老長生)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보덕은 '평등의 진리를 설하는 경전' 이자 '대승경전의 총칭' 인 방등교를 가르쳤다. 일찍이 천태 지의(天台智?)는 그의 5시 교판에서 『유마경』과 『범천사익소문경』을 방등교로 비정했다. 『유마경』은 인도 갠지스강 중류 북쪽의 상업도시인 바이샬리를 무대로 하고 있다. 『유마경』에서 붓다는 32명의 보살들에게 병이 난 유마(維摩)를 위문하기를 차례차례 권유한다. 하지만 보살들은 종래 유마거사에게 수행과 관련된 몇몇 잘못을 호되게 질책당했기 때문에 소임을 다할 수 없다면 사양한다. 마지막으로 권유를 받은 문수보살이 "유마거사의 상대가 될 만한 주변이 못되지만 내 몸을 돌보지 않고 명령을 받들겠다"며 석존의 성지(聖旨)에 따라 문안을 간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대승의 사상에 접하게 한다. 결국 문수보살은 '그 어느 것도 말하려고 해도 말할 수 없고, 이야기하려 해도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알아보려 해도 알아볼 수 없으며, 모든 물음과 답변을 초월하는 것' 이 '불이의 법문에 들어가는 것' [入不二法門]이라고 답한 뒤에 유마의 살림살이를 요청하자 거사는 '한번 침묵' [一默]의 설법을 통해 불이의 법문에 들어가는 도리를 보여준다. 보덕은 '말' 과 '문자' 와 '마음의 움직임' 도 없음을 강조하는 이 경전의 '부동의 마음' [不動心]을 도교로 흔들리고 있는 당시 고구려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였다.

2. 영탑사의 건립과 영탑학통의 형성

고구려 승랑의 제자들에 의해 삼론(三論)학통이 형성된 것처럼 보덕 역시 제자들에 의해 열반(涅槃)학통을 형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보덕은 영탑사(靈塔寺)를 지어 머물면서 그곳을 찾아온 이들에게 열반교와 방등교를 가르치며 많은 제자들을 길러낸 것으로 이해된다. 고구려는 고대국가의 기반을 공고히 할 때부터 이미 불교를 통치이념의 근간으로 삼아왔었다.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 평등하다' 는 가르침은 '모든 생명체들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현재 보덕의 저술이 전해지지 않아 그의 『열반경』 이해의 전모를 파악할 수는 없다. 또 『방등경』 인식의 틀도 온전히 확인할 길은 없다. 때문에 보덕의 생각은 그의 삶에 관한 몇 가지 기록을 통해서 재구할 수밖에 없다. 노승에게 강론을 부탁받을 정도로 열반학의 대가였던 보덕은 『열반경』에 입각하여 평등

비래방장은 고구려 승단의 남하 의미
보덕 스님, 일체 중생 실유불성 강조
고구려 삼론학 입각해 열반경 재해석
11명 뛰어난 제자 배출, 총 3000제자 추산

사상을 역설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 방등부의 대표적 경전인 『유마경』은 출가자와 재가자를 막론하고 동아시아에서 널리 읽혔다. 보덕 역시 이 경전들에 근거하여 강론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덕은 열반교의 평등사상과 방등교의 불이사상을 부동심으로 표현하여 당시의 현실 속에서 구체화하였을 것으로 이해된다. 나아가 보덕은 고요한 승원에서 성실학을 비판하며 삼론학을 심화시켜 간 승랑과 달리 위기의 현실 속에서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헌신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왜냐하면 그의 주요 살림살이가 대승불교의 재가주의를 선양하는 방등교의 대표적인 경전인 『유마경』과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다[一切衆生 悉有佛性]고 설하는 『열반경』에 입각해 있기 때문이다. 보덕은 선성(善性)의 뿌리를 끊어버려 도저히 구제할 길이 없다고 낙인찍혀 온 일천제(一闡提)까지도 언젠가는 성불할 수 있다고 설하는 중국 도생(道生)의 해석을 적극 수용하였다. 그리고 재가신도의 종교적 덕목을 선양하는 것을 두드러진 특색으로 삼으며 불교의 대중화를 역설하는 유마거사의 메시지를 그의 주요 살림살이로 삼았다.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보덕의 시대정신과 역사의식이 잘 드러나고 있다.

보덕에게는 11명의 뛰어난 제자[高弟]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금동사(金洞寺)의 무상(無上, 제자 金趣 등), 2) 진구사(珍丘寺)의 적멸(寂滅), 3) 진구사의 의융(義融), 4) 대승사(大乘寺)의 지수(智?), 5) 대원사(大原寺)의 일승(一乘, 心正, 大願 등), 6) 유마사(維摩寺)의 수정(水淨), 7) 중대사(中臺寺)의 사대(四大, 契育 등), 8) 개원사(開原寺)의 개원(開原), 9) 연구사(燕口寺)의 명덕(明德), 10) 처소 미상의 개심(開心), 11) 처소 미상의 보명(普明)이다. 보덕의 빼어난 제자들이 11명이었다면 실제의 제자들은 이 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숫자의 제자들이라면 보덕의 열반학은 중국과 달리 독자적인 학통을 형성하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보덕의 영탑학통은 중국 남부의 열반학이 끊어진 이후에 형성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보덕 스님 영정 사진. 열반종 종찰 용인 와우정사 제공



전주 고대산의 경복사 터.

이것은 고구려 중기 불교사상의 주축이었던 승랑 이래의 섭령학통이 의연의 계율사상 및 지론사상을 거쳐 보덕에 이르러 열반학과 방등학으로 대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비록 보덕의 저술은 그 이름조차 전해지지 않지만 그 제자들 이름이 남겨져 있는 현실을 통해 그의 학문적 성취가 공고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원효의 경우에는 「고선사서당화상비명」에 9명의 빼어난 제자들의 이름이 보이며, 의상의 경우에도 『삼국유사』「의상전교」조에는 10명의 제자들 이름과 이름을 알 수 없는 3천 명의 제자들이 있었다고 전한다. 그러므로 고구려 사람들은 승랑(僧朗)과 승전(僧詮) 이래 법랑(法朗) 아래의 길장의 문하에서 나온 혜관(慧灌, 慧觀) 등의 삼론학과 의연의 계율사상 및 지론사상 그리고 보덕의 평등사상과 불이사상을 통해 하나가 되었다.

3. 반룡사 비래방장과 완산주 경복사

고구려 제27대 영류왕 7년 갑신년(624)에 사람들이 다투어 병을 고치는 가르침의 댓가로 쌀 다섯 말을 주는 오두미교(五斗米教)를 신봉하였다. 당나라 고조(高祖)가 듣고 도사(道士)를 통해 도교의 최고신인 천존상(天尊像)을 보내 『도덕경』을 강론하게 하자 왕과 국민들이 들었다. 다음 해에 고구려에서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어 불교와 도교를 배우려 하자 당나라 고조가 허락하였다. 연개소문에게 독살된 영류왕에 이어 보장왕이 즉위한 뒤 불도유(佛道儒) 삼교를 모두 일으키고자 하였다. 당시 재상이었던 연개소문은 "유교와 불교는 흥성하나 도교는 왕성하지 못하니 특별히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도교를 구해야 합니다"하고 왕을 설득하였다. 당시 연개소문은 영류왕을 시해하고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뒤 불교세력을 제거하고 유자(儒者)들 위에 도사(道士)들을 앉히며 도교를 높이 받들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당나라에게 왕을 시해했다는 명분을 희석하기 위한 외교적 유화책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때 보덕화상은 반룡사(盤龍寺)에 있었다. 그는 좌도(左道, 道教)가 들어와 정도(正道, 佛教)와 맞서면 나라의 기틀이 위태로워질 것을 우려하여 여러 번 간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이에 신통력으로 방장을 날려 남쪽에 있는 완산주(전주)의 고대산(孤大山)으로 옮겨 갔다. 이때가 영휘(永徽) 원년 경술년(650) 6월이었다. 얼마 뒤 고구려는 망하였다(668). 아마도 일연(一然)은 도교의 전신이었던 오두미교의 도입으로 고구려가 패망했다는 생각을 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지금 경복사에 남아있는 비래방장은 그때의 방장이라고 한다. 고려 진락공(眞樂公) 이자현(李資玄)이 그를 위해 남긴 시가 당(堂)에 남아 있고, 고려 문열공(文烈公) 김부식(金富軾)이 『보덕화상전』을 지어 세상에 남겼다. 그런데 여기서 고구려의 보덕이 '4방 1장 크기인 방' [方丈]을 날려왔다는 것은 암자 그 자체를 옮겨왔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아마도 고승이었던 보덕 자신이 고구려를 떠나 백제의 경복사로 옮겨와 머물렀기 때문에 그가 '마음으로 날아와' [飛來] 머문 방[方丈]을 그렇게 불렀던 것으로 추정된다.

요(遼)나라 도종(道宗)의 연호인 대안((大安) 8년 임신년(1092)에 우세승통 의천(義天)이 고대산(孤大山) 경복사(景福寺)의 비래방장에 이르러 보덕성사의 진영(眞影)에 예를 올리고 시를 남겼다. "열반 방등교의 가르침은/ 우리 성사로부터 전수되었네/ 애석하구나, 방장이 날아온 뒤/ 동명왕의 옛 땅이 위태롭게 되었구나." 의천은 자신의 『문집』 발문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고구려의 보장왕은 도교에 현혹되어 불법을 믿지 않으니 보덕법사가 그만 승방을 날려 남쪽의 이 산으로 옮겨 놓았다. 그 뒤 신령스런 사람이 고구려 마령(馬嶺)에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나라는 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하였다." 일연 역시 보덕을 기리는 시 한 편을 덧붙이고 있다. "불교는 넓디 넓은 바다같이 무궁한데/ 백 갈래의 유교 도교 물을 모두 받아들이네/ 가소롭구나, 고구려 왕은 늪지만 경계했지/ 와룡이 넓고 푸른 바다로 옮겨간 줄 알지 못하네." 일연은 여기에서 보덕을 '와룡' 으로 비정하고 유교와 도교의 하천을 받아들이다 넓디 넓은 바다에 노니는 불교의 와룡을 놓친 고구려 왕실의 어리석음을 통렬히 비판하고 있다.

참고문헌
일 연, 『삼국유사』, 권상로 역주(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이범교,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하)』(민족사, 2005; 2007).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모집
심인불교대학 제2기생

근본불교(根本佛教)와 기본교리(基本教理)는
밀교사상(密教思想)의 진리(眞理)속에 있다

◆과 정 : 2012년 10월 ~ 2013년 10월 (1년과정)
◆대 상 : 남녀노소(男女老少) 누구나 환영합니다.
◆과 목 : (1) 불교의 기본교리,
(2) 밀교사상과 수행법.
(3) 만다라의 세계,
(4) 현밀(顯密)의 성불론(成佛論)
◆강 의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2시 30분
◆준 비 : 간편한 복장, 필기도구, 신청서 제출
◆등록금 : 100,000원
◆교재비 : 30,000원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75-3번지 송화빌딩 2층

무애정사 〈심인불교대학〉
전화 031)692-3653 / 팩스 031)692-3654

설법 · 화술
설법제일 부루나존자가 되자

교육내용
■ 좋은 성격, 좋은 음성, 좋은 표정 만들기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등 이론 및 실습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교육일정
■ 종 합 반 : 00명
■ 소수정예 특별반 : 0명
■ 개인지도 (직접 상담 후 결정)

연수안내
■ 자 격 : 승려, 법사(포교사), 불교포교와 설법 화술에 관심있으신 분
■ 기 간 : 2개월 과정 수시접수
■ 강 의 : 종합반 -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 8시
소수정예 특별반, 개인지도 - 상담 후 결정
■ 장 소 : 본 연수원 강의실
■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진도식 교육이 아니고 훈련식 교육임)

강사소개
[설법연수원 회장 우불 김 철 회 박사]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이사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 최면시술사
40년 노하우를 지닌 우불 전문가인 김철회 박사 특별지도
[설법연수원 원장 처 명(선광)]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동방불교대학 졸업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자격증 취득(심리상담)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한국설법연수원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6번지 고영빌딩 7층 / 1,3,5호선 종로3가역 1번 출구
연수원 : 02)747-1567 / 010-7248-1567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남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거나 욕을 하더라도
목욕하는 강가의 기둥처럼 태연하고, 육체의 욕망을 떠나 모든 감각을
잘 다스리는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안다

-숫타니파타-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무속 선, 앉은거리 장단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양 도 공 고
(법인 등기된 종무법인임)
법인불교단체 양도
법인종단 양도
불교법인 양도
011-412-8040 법광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산신제 불공
산신제 불공 월 1회
미리 접수
바랍니다
010-8676-6132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
점안식·범음범패
이인연으로성불의씨앗되십시오
011-850-0176

찬찬히 잘 읽어 보세요
오래된 위장병, 대장질병, 심장병, 당뇨병, 간질, 화병, 우울증,무기력, 부부문제, 정신질환, 피가 탁해서 생긴 신장병, 신내림 병, 임신이 어려워 고생하는 불임증, 강박증, 성기능 장애 불면증, 비만, 강박장애, 암투병 등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고생하는 환자
문제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하고 연락하세요
Medicine Buddha MindOne(마인드원)
032) 434-5990
010-8730-5690

백발 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일반서점에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지장대사 원력 천도법
1. 조상빙의와 대화를 통한 천도재
2. 빙의 퇴마 치료전문
3. 가정우환, 병명없이 몸이 아프신 분
4. 엑소시스트도 치료 못한 환자도 치료
금 강 사
010-2418-6222

어찌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가?
한제원
<대구 남구 대명동>
053)623-2202
010-7507-2105

동영상 역학 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 - 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성명학, 저렴한 수강료.
단기간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쉼 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립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번뇌의 굴레에서 해탈을 생활의 고통을 벗어나는 생명의 글문 비방
• 빙의(특히 신에게 고통받는 중생)
• 불치병상담(병명이 안나오는 병)
• 아토피 질환 해탈법
• 산소탈이나 풍수탈 해탈
• 사업성취, 소원성취 상담 • 가정사 상담
• 생활 속에 활력을 찾는 달마상
<작은곳에서 큰 희망의 기쁨을 안으시길>
대한불교 불정사 도정스님
051)558-5585
010-4593-2918

동양철학 특별할인 판매
동양철학 - 서화당인생풀이 Ver 2.2
(인장성명학과 네오헬스 CD 제공)
동양철학CD, 만세력 2045년까지 구성
생년, 월, 일, 시만 알면 *인생풀이가 척척*
인생총운, 가족운세, 애정운, 건강운 등
총44만원을 *50%할인 후* -> 22만원
www.사주천하.com
익일특급배송 010-8888-4684

기도 부전스님 구함
운전 경력있는
처사님 구함
스님이 될 행자 구함
부산 051)334-3009
011-840-435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제주 서귀포, 정방사)
010-5219-7021
02)732-392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대전)
60대 부부가 함께 오셔도 좋습니다
010-5209-7420

수행과 보살행을 같이
하실 비구니(행자)
스님 모십니다
외국인 쉼터에 물품기증
시주 받습니다.
컴퓨터,냉장고,책상,그릇,접시 등 일체
(대구 광역시 달서구)
010-9407-3429

염불 잘하는
스님이 의식 집전해
드립니다
천도재,49재,바라,
나비, 회심곡
010-6569-1010

불교 종무법인을 구합니다
불필요 한 분 연락 바랍니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2)584-8844
김 만 허

수익사업 공고
1. 연못장 가족화분 납골묘 설치
개별납골 그 위에 연꽃을 심어드림
500~2천만원(유리뚜껑은 선택)
2. 기일제사 안하고 명절재사만 지낼 집
3. 육지 부주갱이 나물 튀각용. 효소 주문용
울릉도 부지갱이와 같은 종류 부주갱이 나물
4. 전자납골당 500~1천만원 활영 1년
041)544-4441 한학선원
충남 아산시 도고면 신통길 192-21

기문둔갑 강의
역학을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기문비법을 전수합니다.
사업자, 성패에 대해서,
학업생 학과 선택, 남여결혼문제,
부부문제 등 제일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스님직접 강의. 수시모집
011-544-9777
051)721-6444

심 와 기 도
• 소원을 성취시키는 기도가 심와기도며
이 기도법을 원하는 스님에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무형문화재 범음범패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제 9호 부산영산제 연수원(바라, 작법) 3개월 과정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사물 불교의식
특전 1) 본교(졸업) 우수한 자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 특전 2) 부산시 문화재 행사 출전 실무.
부 전 스 님 안 내 부전스님 필요한 사찰
부전 사찰이 필요한 스님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010-5511-7000 (사주, 명리, 영가천도법 개인지도)
전통불교조계종에서는 종도 여러분의 입종을 환영합니다.

빙의 퇴마 교육
사주로 작해귀신 찾는 법
귀신과의 대화법 (다양한 비법전수)천도 및 퇴마비법
지금까지 수년간 전문퇴마사를 양성했습니다.
이제 저렴한 보시금으로 마지막 교육을 하려 합니다.
최고의 퇴마사로 소중한 인연이 되실 분을 모십니다.
장소 : 서울 종로구 신영동 일붕선원 내 교육장
문의 : 010-5472-5928 전문퇴마법사 경담 합장

계룡산 천황사
보각스님의 신비한 기치유
빙의, 무병, 정신병, 중풍,
불치병, 암 현대의학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탁월한 효과 "신분 절대 보장"
011-673-0492
010-3565-0492
041)855-3492

관상 · 손금
질병을 전문으로 강의함
개인지도(나이 관계없음)
스님특별지도
철학원,포교원,무속인,일반인
전국 어디든지 출장 강의함
대학교 강의중. 사찰 무료로 보시함
(상아철학교육원)
010-4014-8822

비구니 행자(예비스님) 모집
1. 부처님 공부는 큰 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2. 철저한 행자(예비스님). 자율교육
3. 2년 공부 후 주지발령
4. 학력, 나이에 관계없음
010-2669-1800

토 지 매 각
당진시 토지를 매각합니다.
충남 당진시 송산면 명산리
(산)50-18, 19 (산)50-28,29,30,31,32,33,34
(산)50-35,36,37,38,39,40,41 (산)50-42,43,44,45,46,47,48
(산)50-49,50,51,52,53 (전)29-2
(전)30-3, (대)30-4, (전)30-6, (전)326, (전)326-1 (전)326-2
(전)332-1 (대)332-2 (답)333-3 (전)333-6 (대)333-7
이상 총 40필지 274.837㎡ (83,138py)
연락처 : 이홍열 010-5019-3252 덕수이씨학생공휘한신파문중

광명주(靈珠) 수익 사업공고
선망조상님들의 유골에 어떠한 광물질이나 화학물질을 혼합하지
않고 섭씨 2,2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아름답고 품위있게
고인의 유골을 광명주(靈珠)로 생성하는 기계입니다.
납골사리 1기당 180만원 / 지사 및 사업동반자 환영
1899-1042. 010-3679-1080
(주)보은의 사랑. 네이버 보은영옥

단씨맹파명리 전문교육처
맹파명리 원저자 중국 단건업 선생 혼인응기특강
일 시 : 10월 27일 ~ 11월 3일 (토,일 : 주간 6시간, 평일야간 : 3시간)
내 용 : 다혼, 독신, 도화, 데릴사위, 부모반대결혼, 남편.
처를 극하는 명, 나쁜혼인, 좋은혼인, 음란명.
강의장소 : 서울 / 홈페이지 : www.mangpa.com
학산맹파명리연구원 011-1743-0543
한국단씨맹파명리학회 031)918-7550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대학, 강원, 기본선원)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산중사찰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문의 : 053)474-8228, 010-9562-8228

〔기문둔갑〕 수강생 모집
(역학) 역학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 기문둔학의 비법을 전수합니다.
무료청강 하신 후에 수강신청 바랍니다.
- 무료강의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 9시까지
* 청강하실 분은 하루전에 청강신청 바랍니다.
창원시청앞 (천지암) 010-8722-5958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해광 하순천 지음 .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값 15,000원 / 410면 / 전화 063)643-7285
◉ 놀랍게도 사람의 사후세계란
세상에 알려진 그 어떤 모습과도 달랐다!!
◉ 이제는 신(神)의 세계를 바로 알고
자신의 죽음 이후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법문DVD와 CD무료보시

예천 법연선원 대공스님은
불교TV무상사 초청
일요법문 내용을 담은
DVD와CD를 무료 보시합니다.
011-861-6252


김윤경승복
since 1980
김윤경
승복 · 우리옷
www.kyksb.co.kr
◎ 전통의 아름다움과 현대의 기능성이 잘 조화를 이룬 우리 옷
◎ 승복, 법복, 생활한복, 신행단체복, 템플스테이 수련복, 소품 일체 등
◎ 공장 직영 도소매, 다양한 주문생산 가능
언제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금까지 고객님들께 신뢰를 지키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듯이, 앞으로도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수행과 신행생활에 어울리는 좋은 옷을 제작 · 보급하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대표 김윤경(무등심) 합장

주요품목 : 승복, 법복, 생활한복, 전통복 일체, 신행단체 단체복, 수련복, 소품 일체
※ 승복일체, 법복, 좌복, 기타 주문제작 받습니다 (공장직영 도소매)
내 일같이 일할 성실한 분
승복 관련 기술자 모집 ○○명
상담전화 011-9949-4444
서울본점 및 공장 : 서울 중랑구 망우동 563-16 이안빌딩
중랑페션지원센터 801호, 903호 / 전화 02)495-7779
제 주 점 : 제주 제주시 이도2동 416-2 / 전화 064)724-7999
입금계좌 : 농협 178424-56-036570 국민은행 057-21-0932-817 (예금주 김윤경)
E-mail : kyksb58@naver.com

강 화 고 려 사
매주 토요일 철야정진
■ 시 간 : 21 : 00 ~ 03 : 30
■ 내 용 : 법화경 전품 독송
■ 동 참 금 : 성의껏
천일동안 법화경 일천번 독송
한 가족 매일 축원 : 한 달 30,000
(전화/팩스 접수 가능)
■ 기도 · 요양 하실 분 환영
진달래 축제로 유명한 고려산에 소나무가 많아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으로 3km 거리에 강화 해안도로가 있고, 15분 정도 절 뒤편의 산으로 오르면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 있는 법화경 독송 수행 도량입니다
■ 전화 032)932-3525 FAX : 032)934-3525
대한불교조계종 고려사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오상리 331-4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존 헤글린 박사
더 시크릿 공저자
세계적 물리학자
가장 쉽고 빠른 힐링!
고혈압·심장병·우울증
불면·스트레스 해소
KBS(마음, 생로병사의 비밀), CNN, TIME지 등에 소개
www.tm-korea.org
초월명상(TM) 강연회
오프라 윈프리는 왜 초월명상을 선택했나?
(미국 최고 여성부호이며 톡쇼 진행자)
하버드 대학, 일본 노동성 등
세계 200여 연구소가 입증한 효과
수면보다 2배 깊은 휴식 / 불안, 노이로제, 강박증 해소
지능, 이해력, 집중력 증가 / 대인관계 개선 / 고3병 퇴치
흡연, 음주, 분노, 습관 개선 / 두뇌개발, 창의력 증가노사화합 / 내면의 평화, 삼매경 체험 / 자아완성(깨달음)
때 : 매주 월요일 14시 30분, 목요일 19시 30분
곳 : 한국초월명상원
(명일역 1번출구, 사거리에서 우회전 250m, 강동삼성한의원 건물 6층)
때 : 10월 29일(월) 19시 30분
곳 : 대구 SH포럼 세미나실
(중앙로역2번출구, 대구백화점, 헤럴드외국어 학원건물 7층)
참가비 : 첫 강의 참가비 2만원
문 의 서울 598-3152(기업 및 지방 출장 강연 환영)
부산,대구,대전,인천,전주 010-7443-1296
▶ 미국 6천여 의사 실시 및 최고 건강법으로 권유!
▶ 일본 150여 기업 등 세계 유수 기업들 도입!
▶ 세계 1천여 학교에서 시행, 초우수 학력, 학교폭력 근절!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 법당 : 25평
- 요사 : 60외4동
- 부지 : 740평
- 가액 : 10억

- 위치 : 부산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부지 : 1,100평
- 가액 : 13억

- 위치 : 부산
- 법당 : 50평
- 요사 : 40평
- 부지 : 2,600평
- 가액 : 9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온천장 사찰

- 대지: 235평
- 법당(2층) 30평, 요사채(2층) 80평
- 주지실 25평
- 부산의 주산 금정산 솔밭 자락
- 가액 : 6억 3천만원

울산 근교 아름다운 사찰

- 총부지 : 2,400평(100% 평지)
- 법당 및 요사 50평
- 산세, 계곡물 최고, 주차장 200평
- 총금액 : 6억 8천만원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비밀보장)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암자,토굴,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사찰 안내 "가 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 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010-8980-4789 (사찰전문 공인중개사)

도심안의 산중사찰

- 부산 (구 보림극자 위)
- 대: 97평(계단 약간 있음)
- 1층65평(법당 및 공양간)
- 2층 35평 (큰법당)
- 텃밭(20평)
- 급양도가: 2억9천만원

- 8m 옆 나대지
- 평당 240만(36평)
- 현재 유료주차장
- 부산 범일동 (지분등기) (부산진 시장 10분거리)
- 가액 : 8700만원

부산 동구 범일동 010-5511-7000 스님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구 수성구 요지
- 지하철 바로 입구 바로 2층
- 약 30평
- 시설완벽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1천 5백만원(절충)

010-9690-8275

사 찰 안 내

산세수려하고 전망좋은 서울 수도권사찰입니다. 신도포교도량을 찾는 사부대중은 연락하십시오. (부지: 200평위에 웅장하고 아름다운 사찰) 사찰문의

010-5466-3321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 6층 건물 5층
- 평수 : 60평
- 전세 :1,500만원 월세 : 40 만원
- 시설비 : 1500만원 (매우만족함)

010- 9929-2907

사 찰 안 내

- 위치: 울산
- 대지 149평, 법당: 20평
- 요사 17평, 요사 10평
- 양도가 5억 7천만원
- 신도시 아파트 밀집지역
- 포교활동 최적지

011-811-5466

포교원안내

- 위치: 경기 이천 장호원 읍 5분 (서울 40분 거리), 소나무숲 옆
- 전세 2500또는 월세 1,000만원에 25만원
- 대지 230평, 방3, 거실 유리 확 틔어 깨끗
-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텃밭, 창고3, 리모델링 했음
- 볼 집 두군데

010-6253-6892
031)641-1159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산청 지리산
- 면적 2,100평, 대웅전 30평
- 요사채 각 80평, 30평
- 산과 강이 잘 어울어 아름다운 사찰
- 가액: 6억 5천만원

010-2610-9997

포교원안내

- 위치: 서대문 홍은동
- 3층 건물 중 3층, 50평, 옥상전체 사용
- 삼존불, 후불, 108불 소불, 산신각 방2, 접견실, 샤워실, 화장실
- 에어컨 2대포함, 집기일체
- 즉시법회가능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7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4500만원

010-9231-4600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구 북구 대현동
- 상가건물 4층, 65평, 옥상사용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 산신, 용왕, 영가단, 법당 집기일체
- 시설: 도시가스, 아주 깨끗함
- 시설비 : 1500만원

010-2542-2227
010-9000-8949

땅(급)안내

- 위치 : 경북 고령군 쌍림면 고곡리 (고령IC 근접 30m)
- 대지 180평, 임야 3600평
- 사찰터로 최적임

010-5626-6001
서 숙 광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 동래구 온천시장 입구
- 4층 건물 중 2층
- 평수 : 45평
-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0-7495-7896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사하구 역세권
- 대지 : 230평
- 건물 법당 요사채 각 40평
- 은행융자 3억원
- 가액 : 7억 9천만원 (절충가능)

010-6237-5964

사찰(급)안내

- 위치: 부산시 연제구 연산3동 159-4번지
- 평수 : 120평
- 가액 : 3억
- 시설 일체 완비, 즉시 법회 가능
-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051)862-1834
010-7675-1834

포교원안내

- 위치:경남 거제 시내
- 3층 건물중 2층 50평
- 접견실, 부엌
- 보증금 1500만원, 월 90만원
- 6자부처님 8불
- 시설비 1000만원(답사후 절충가능)
- 앰프시설, 에어컨 2대
- 스님. 몸만 오시면 됨

010-4344-9222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김천역에서 차편 약 20분
- 대지: 도지료 연 35만
- 사용대지 약 100평, 관련대지 368평
- 건물 : 단층 독채 약 32평.
- 개인 등기 필
- 내용: 법당, 방2, 주방, 세면장
- 여건 : 큰길변 교통 좋은 요지
- 법당 넓고 생활 편리함. 현대식 시설
- 가액 : 6천 5백만원 (시설비 1천 5백만 포함)

010-7295-1259

사찰터안내

- 위치: 충남 공주시 오곡동
- 시내버스 도로 인접
- 도로 있음. 입구와 도로 접
- 도심 사찰 및 요양원 적합
- 평수: 724평
- 가액: 3억 8천만원

010-4741-4158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시 남구
- 시장입구, 버스정류장앞
- 유동인구 많음. 건물 뒤 공용주차장
- 평수 : 2층 70평
- 요사채 및 굴법당, • 3층 70평
- 법당. 관음전, 산신각(단청되어 있음)
- 보증금 1500만원 월 120만원
- 시설비 5천만원

010-4001-3949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함안군 칠원 IC 칠서 5분거리
- 부지: 평당 300만원
- 평수 72평, 요사채 35평
- 법당 20평 (2층)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랍니다 (가액절충)
- 확장이전 관계로 양도함

010-6317-3222

도심속 포교원 안내

- 위치: 울산광역시 중구
- 3층건물 중 2층
- 1천만원 월 40만원
- 평수 30평, 법당, 방2, 주방, 해우소, 베란다
- 시설비: 직접 방문 후 약간

010-8719-3335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은평구 응암3동 대림시장 맞은편
- 버스 정류장 앞, 4층건물 3층, 25평
-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 칠성, 독성탱
- 에어컨 2대 포함 집기 일체, 즉시 법회 가능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800만원 / 월 60만원
- 시설비 3500만원

010-3209-0408

사 찰 안 내

- 위치 : 진주에서 7분거리
- 등기 실평수 553평, 기타 평수 있음
- 대웅전, 천불전, 요사채, 방 35개
- 산신각, 종각, 용왕당, 황토방
- 주차 40대가능
- 가액: 4억 5천만원 (현지 답사 수 조절가능)

010-9889-3188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청양. 80년된 암자
- 행정수도에서 20분
- 큰바위에서 석수 흐름
- 국유지 사용평수 1000평(종교시설)
- 임대료 : 1년 15만원
- 가액 : 7천 7백만원
- 법당15평, 요사채45평(리모델링 완료)

010-6680-0514

포교원안내

- 서울시 중랑구 묵2동
- 넓은 법당1, 스님방1, 작은방1, 샤워실, 화장실, 공양간 주차장
- 불교의식 민원없음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3800만원

010-9249-8776

사찰(급)안내

- 경기도 의정부 호원1동
- 대지 27평
- 법당 2층 조립식 약 20평
- 요사 1층 방3개 화장실-세탁실
- 창고-소각장
- 부처님6분, 신중, 칠성, 산신, 영가단
- 교통편리 - 전철 10분, 버스 2분
- 주변에 주차할 수 있음
- 양도가액: 2억 5천만원

010-8900-4874

명 당 절 터

- 위치 : 경남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 대지 537평
- 임야 568평
- 가액: 1억 3천만원
- 지하수 수질 최고

016-849-3858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북구 만덕동
- 텃밭 3000평, 건평 37평
- 2층 슬라브, 별채 분리
- 경관 수려 가든이나 별장 사용 가능
- 가액: 전세 3천만원에 월 80만원

051)558-3902
010-4128-2356

대명지사찰안내

- 위치 : 울산 울주군
- 부지 약 3500평
- 명산대찰터
- 가액: 평당 200만원

011-573-7096

포교원안내

- 위치: 경남 진주 시내
- 평수 100평
- 법당 30평, 그 외 모든시설 잘 되어 있음, 아주 깨끗함
- 몸만 들어오셔도 됨
- 뒤에 야산 있고 하기 포행하기 좋음
- 전세 : 1억

010-9273-1126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북구 만덕동
- 텃밭 3000평, 건평 37평
- 2층 슬라브, 별채 분리
- 경관 수려 가든이나 별장 사용 가능
- 가액: 전세 3천만원에 월 80만원

051)558-3902
010-4128-2356

토굴 임법당(급)

- 위치 : 경북 의성 IC 10분거리
- 대지 93평, 방2, 법당, 공양간
- 황토 목조 한옥(약 100년 보수완료)
- 상단불,좌우원불,토불,주련 기타 집기일체 양도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급 가액: 3천 5백만원

010-4113-1080

토 굴 터 안 내

- 위치: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방제리
- 전 103평 도, 전기, 수도
- 혐오시설 없고 조용한 곳
- 가액: 1,100만원

010-9000-4386

사찰터안내

- 위치: 충북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야산)
- 10만평 도로, 전기 전망, 농림지역, 관리지역
- 대형사찰, 복지시설, 전원주택 혐오시설없음(주변시세 15만 ~30)
- 급양도 평당 8,500원

010-3288-1317

포교원(급)안내

- 위치: 경남 양산시 시장입구
- 건물앞 주차장 구비
- 공용주차장, 평수 50평
- 방 2칸, 거실겸 주방, 에어컨 및 주방기구 완비, 현재 생활하고 있음
- 보증금 1천만원 / 월 30만원
- 시설비 2천 3백만원

010-4474-8209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천안
- 부지 : 550평
- 법당 : 28평
- 요사 : 50평
- 가액 : 4억7천

- 위치 : 부산시내전통사찰
- 부지 : 10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가액 : 15억 5천

※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번지 종교부지 및 산 168-2
- 종교부지: 5,577㎡, 산 168-2: 13, 640㎡ 합계 19,217㎡ (5,830평)
- 건물 4개동 : 대웅전 1동, 요사채(2층) 1동, 부속건물 1동, 스님승방 1동
- 입주조건 : 매수 또는 장기임대 (임대에서 매수전환 절충가능)
- 주인직접 : 현장답사 후 협의결정

010-4225-0012
02)403-3333 / 031)771-1816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양평 인근 서울 1시간 거리
- 건평 146평 (전각, 요사채, 종각)
- 부지 1690평(관리지역)
- 종교용지 364평(사용료 연 40만원)
- 양도가액: 5억 3천만원
- 방문 상담, 절충가능

010-9669-1358

사찰부지(급)안내

- 위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도심속 조용한 기도도량
- 대지 300평, 30평형 주택 1동9방(, 거실, 주방, 화장실, 욕실)
- 임시 컨테이너에 법당을 마련 부처님 모시고 기도중이며, 넓은 주차공간과 넓은 텃밭 있음
- 급 양도가 : 3억 6천만원(조절가능)

010-4743-8540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 전철역에서 2분거리, 대로변
- 최고시설, 좋은 위치
- 5층 건물 중 3,4,5층 총 15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5000만원(절충가능), 즉시법회가능

010-3198-89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봉현리 부근
- 현재 임법당 55평, 5존불
- 대지 1,356평에 280평 건축 허가 났음
- 착공계 진행중, 사찰요양원, 납골 근린시설
- 일체 가능함. 바로 지을 수 있음
- 가액 : 10억(절충가능)

011-771-7575

사찰부지(급)안내

- 위치: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소재
- 토임 3,455평 (계획관리지역으로 사찰부지로 적합한 청정지역으로 네모 반듯하고 자동차 도로가 확보된 토지임
- 급 양도가 : 3억 4천만원

010-4743-8540

포교원(급)안내

- 위치: 경남 양산시 시장입구
- 건물앞 주차장 구비
- 공용주차장, 평수 50평
- 방 2칸, 거실겸 주방, 에어컨 및 주방기구 완비, 현재 생활하고 있음
- 보증금 1천만원 / 월 30만원
- 시설비 2천 3백만원

010-4474-8209

사찰부지(급)안내

- 위치: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소재
- 토임 3,455평 (계획관리지역으로 사찰부지로 적합한 청정지역으로 네모 반듯하고 자동차 도로가 확보된 토지임
- 급 양도가 : 3억 4천만원

010-4743-8540

사찰전세안내

- 위치: 경기도 포천시
- 면적 300평
- 대웅전 22평, 목조
- 요사 방2개 , 옥외화장실 2칸, 창고
- 미륵불 입상 4M, 창건 45년
- 전세 : 4500만원

031)535-8120
010-8831-4800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하동
- 총부지 2,000평
- 법당 조립식 16평 요사채 30평
- 가액 : 2억 1천만원

010-7188-7723

포교원(급)안내

- 위치: 강북구 수유동
- 큰 대로변 상가 3층
- 평수 30평, 등 200개, 인등 200개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60만원
- 시설비 2500만원
- 답사 후 절충가능
- 시설일체 완벽

010-2126-2526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 상가건물 : 3층 90평, 4층 30평 요사, 옥상사용
- 보증금 2천만원, 월 70만원
- 내부단청 및 시설완비, 15년이상된 포교원
- 납골사리 불사관계로 몸만 오시면 됨
-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0-3679-1080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김천시 면 소재 (김천역에서 차편 약 20분)
- 대지: 도지료 연 35만
- 사용대지 공용 약 100평, 관련대지 368평
- 건물 : 단층 독채 약 32평.
- 개인 등기 필
- 내용: 법당, 방2, 주방, 세면장
- 여건 : 시내 중심 큰길변 교통 좋은 요지
- 법당 넓고 생활 편리함. 현대식 시설
- 가액 : 6천 5백만원 (시설비 포함)

010-7295-1259

사찰(급)안내

- 부산시 금정구 지하철 10분 이내 거리
- 1층요사채(화장실 2개, 방4개, 거실), 2층법당
- 신축개조, 법당, 단청일체
- 삼존불 은행목불, 원목불단, 108소불 있음
- 1층 약사불, 포대화상
- 2층 산신, 용왕, 독성 별도
- 위치좋고 옆 공원 산세 좋음
- 스님 건강 관계로 7억 5천

010-2503-0776

포교원(급)안내

- 위치: 경남 양산시 시장입구
- 건물앞 주차장 구비
- 공용주차장, 평수 50평
- 방 2칸, 거실겸 주방, 에어컨 및 주방기구 완비, 현재 생활하고 있음
- 보증금 1천만원 / 월 30만원
- 시설비 2천 3백만원

010-4474-8209

사찰부지(급)안내

- 위치: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소재
- 토임 3,455평 (계획관리지역으로 사찰부지로 적합한 청정지역으로 네모 반듯하고 자동차 도로가 확보된 토지임
- 급 양도가 : 3억 4천만원

010-4743-8540

사 찰 안 내

- 위치: 창녕 화왕상 군립공원내 사찰
- 가액: 3억 5천만원 • 전세 1억 5천만원평수 208평
- 법당 15평, 목조단청, 산신각, 요사채 32평
- 방4개 방마다 현대식 욕조완비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 송정 해수욕장 부근
- 평수 50평, 2층건물 중 2층 • 가액: 2천만원
- 삼존불, 각단탱화, 방1, 화장실3개, 소불
- 지하 옥상사용가능

010-9350-8989

사 찰 안 내

- 위치 :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
- 대지 : 196평
- 주자창, 텃밭 175평, 법당 15평
- 야외 지장보살입상, 요사채 방 5, 심야보일러
- 가액: 1억8천5백만원

011-769-7029

마음은 바람과 같다. 마음은 그 모습을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다.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다 마음은 머무는 일 없이 일어났다가 이내 곧 사라져 버린다. - 대보적경 -

선과 뇌 - 좌선은 위대한 뇌훈련법이다

아리타 히데호(日 동방대 생리학 교수) · 겐유 소큐(日 복취사 부주지)

〈4〉 선행활과 세로토닌

'좋다 · 싫다' 분별 여의면 세로토닌 신경 건강

스트레스는 생명력 에너지
슬기롭게 잘 이겨내야
세로토닌 신경 약하면 '불안'



번뇌는 원래 생명력이다

겐유: 불교에서는 소위 '번뇌' 라는 말을 '탐진치(貪瞋痴)' 로 표현합니다. 성냄의 '진' 은 노르아드레날린 신경입니다. 그리고 '탐' 은 도파민 신경이고요. '치' 는 마음대로 밀어붙이는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아리타: 그것도 도파민 아닙니까? '탐진치' 는 좌선이나 여러 리듬 운동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몸을 움직이거나 호흡법으로 무리 없이 조절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세로토닌 신경의 조절 작용을 약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겐유: '번뇌' 는 원래 생명력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일념삼천념(一念三千念)' 이라 합니다. 한 생각이 '삼천의 마음' 을 낳습니다. 연쇄적으로 낳은 마음은 아주 다루기 어려운 법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고민하는 상태가 '번뇌' 입니다. 즉 '신통력' 과 '번뇌' 의 재료는 동일합니다. 하나의 방향성을 갖고 하나의 구슬이 되면, 그것은 이미 '번뇌' 가 아닙니다.

아리타: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번뇌' 를 생각합니다.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이 번뇌입니다. 쾌와 불쾌,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좋음과 싫음 등입니다. 좋음과 쾌와 포지티브는 아마도 도파민이겠죠. 노르아드레날린은 불쾌이고 스트레스이고 싫음입니다.

노르아드레날린 신경을 저는 '뇌의 위기관리센터' 라고 부릅니다. 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합니다.

현대 생활은 뇌에 나쁘다?

겐유: 〈서유기〉라는 책에서 손오공은 '성냄' 이고 , 저팔계는 '탐욕' 이고, 사오정은 '어리석음' 입니다. 탐진치 삼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를 넘지 않으면 생명력의 발로이지만 도를 넘으면 번뇌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사실은 삼장법사 혼자 여행했고, 이들의 존재는 삼장법사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아리타: '탐욕' 은 도파민으로 설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겐유: '어리석음' 을 페티시즘이나 마니아 등의 현상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지만, 무엇을 할 기운이 없는 상태를 '어리석음' 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원래 탐욕이 있습니다. 그것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화가 나면 전신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어리석음' 의 상태가 됩니다.

아리타: 그렇다면 '어리석음' 은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마음의 3요소에 대응되는 것이 아니고, 본능의 3요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로토닌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은 호흡법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땀을 흘리면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땀을 흘려 뇌간의 세로토닌 신경이 건강해지면 대뇌도 마음도 자율신경도 모두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땀을 흘릴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세탁기도 있고, 물건을 사러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구입하고, 노는 것도 몸을 움직이지 않고 컴퓨터로 놉니다.

최근 20~30년 동안 우울증이 증가하고, 공황장애가 늘어나고, 화를 참지 못하는 청소년이 늘어나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여러 사람들이 견해를 밝히고 있지만 지금의 현대생활을 다시 한 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겐유: 점점 편리해지고 그만큼 스트레스가 줄어든다고 하지만, 정말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번뇌와 생명력의 근본이 동일 한 것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면 모든 것이 스트레스가 된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나쁘다

아리타: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은 다소 스트레스에 걸려 있어도 잘 기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가치관이 스트레스의 부하(負荷)를 없애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겐유: 그래서 너무 갑작스럽게 오는 스트레스는 대응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어느 정도 주기가 예상되는 스트레스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리타: 스트레스가 너무 지속돼 피할 수 없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극복할 수 있는 스트레스는 뇌에 오히려 영양이 됩니다.

겐유: 스트레스를 슬기롭게 잘 이겨내고 그런 방법을 알고 있음으로써 스트레스가 생명력을 부추기는 에너지로 됩니다. 연꽃을 피우는 에너지는 원래 스트레스일지도 모릅니다.

'깨달음' 의 의식이란?

아리타: 깨달음에 도달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나, 지금 깨닫고 있다' 고 자각합니까?

겐유: 깨달음의 순간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 깨달음은 금방 끝나 버리기 때문에 아마도 그 직후에 '지금 이것이 무엇이지?' 하고 돌이켜 보는 것이겠죠.

아리타: 그 짧은 시간의 특별한 상태, 그것이 '깨달음' 인가요? 아니면 어떤 하나의 지속적인 심신 상태가 '깨달음' 인가요? 양쪽 다인가요?

겐유: 깨달음을 표현하는 관점에서 보면 양쪽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깨달음' 과 '큰 깨달음' 이 있습니다. '작은 깨달음이 십 수회, 큰 깨달음이 수 회 있었다' 는 식의 표현이 어록에 나오기도 합니다. 자타의 구별이 없어진다든지, 무엇인가 타력을 느끼는 상태는 '작은 깨달음' 이라 생각됩니다. '큰 깨달음' 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실에서 계속적인 '깨달음' 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계속적으로 깨달음의 상태에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지대한 문제입니다.

아리타: 책에서 본 것입니다만 상당한 수행을 쌓은 분들이 앗 하는 순간, 예를 들면 무릉도원이 나타난다든지, 다리를 탁 하고 부딪쳤을 때 그 순간에 깨달음을 이룬 경우가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겐유 스님은 그런 순간을 몇 번이나 경험하셨는지요?

겐유: 예,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결국 생명체는 흐름, 그 자체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흐름,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비유해서 말하면 흘러가는 강에서 국자로 물을 떠 올리는 것을 언어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흐름 그 자체가 돼 그 한계까지 가버린 상태, 다른 식으로 말하면 자신이 지금 여기서 100%가 돼 버린 상태입니다. 사고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과거로 되돌아간다는 것이지요. '생각한다' 는 것. 그 생각의 재료가 되는 것은 항상 과거입니다. '느낀다, 맛본다' 는 것은 '지금, 여기에 있다' 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은 아마도 대뇌피질에서 과거를 쭉 나열하고 변해 가는 것에서 생기기 때문에 지금 여기만이라고 하면 시간 감각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흘러가는 상태라는 것은?

아리타: 좌선을 계속해 세로토닌 신경의 활성화가 쭉 계속되면, 자기 억제의 수용체에 대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아도 좋은 구조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자기 억제의 수용체를 만드는 유전자가 작동해 오프(off)의 상태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수용체가 감소돼 버립니다.

자기 수용체가 감소되면 자기 억제의 움직임이 감소하므로 세로토닌 신경의 활성화가 아주 높은 상태로 됩니다. 즉, 좌선하지 않는 때에도 세로토닌 신경이 활성화된 상태로 됩니다.

겐유: 자기 수용체가 오프로 되는 것은 요컨대 재흡수 되지 않는 상태입니까?

아리타: 재흡수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자기 수용체를 만드는 유전자가 오프로 됩니다. 세로토닌이 나올 때 그것에 반응하는 게 수용체이기 때문에 그 반응하는 수용체가 적어지면 자기 억제의 작용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세로토닌 신경이 높은 활동 상태로 됩니다.

높은 상태로 되면 빠른 알파파가 쑥 하고 나옵니다. 따라서 대뇌의 작용이 변합니다. 그리고 노르아드레날린 신경과 도파민 신경에 대한 제어도 강해집니다. 말하자면 스님이 스트레스도 욕망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상태로 됩니다.

자율신경에 대해서도 교감 ·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안정됩니다. 따라서 마음도 안정되고, 각성수준도, 과잉의 흥분도 없고, 잠도 자지 않는 그런 알맞게 좋은 상태로 안정됩니다.

겐유: 일시적인 높은 상태를 경과한 다음에도 그렇습니까?

아리타: 일시적이라기보다는 계속 높은 상태가 유지된 후입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후에도 실감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는 그 유전자의 오프off가 온on으로 돼 원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관타좌(只管打坐)를 계속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세로토닌 신경의 관점에서 생각한 좌선의 상태라고 봅니다.

경책으로 맞는다든지 다리를 부딪치는 그런 것에서 생각지도 않게 반짝 하는 그때 딱 하고 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상태에서는 세로토닌 신경이 일시적으로 오프됩니다. 그 반짝 하는 순간 일시적으로 뇌의 상태가 변용됩니다.

겐유: 반짝하는 순간에 렘 수면으로 되어 버리는 것입니까?

아리타: 의식은 있기 때문에 렘 수면이라고 말하는 건 지나치지만, 세로토닌 신경이 렘 수면과 동일한 상태로 돼 버립니다. 세로토닌 신경의 활동이 완전히 오프돼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조절됐던 대뇌의 작용, 마음의 작용, 자율 신경도 일시적으로 조절이 불가능한 상태로 됩니다. 그때 의식의 상태도 변하고, 자율신경의 상태도 일시적으로 변합니다.

변하는 것에서 생각해야 할 것중 하나는 감각의 정보처리입니다. 세로토닌 신경이 하는 정보처리가 중요한 이유는 해마에 있는 기억 정보처리에 항상 어느 정도 억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과 귀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가 들어옵니다. 보는 것을 전부 기억한다면 뇌의 기억 용량에 문제가 생겨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겐유: 그것은 정말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라는 부위는 일시적인 기억 저장소 같은 것이네요.

아리타: 예. 그런데 예를 들어 반짝 하는 순간에 세로토닌 신경이 일시적으로 오프됩니다. 반짝 하는 순간 그 해마의 억제가 제거되므로 그때만은 기억 정보가 일시에 밀려들어옵니다.

따라서 반짝 하는 순간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기억됩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를 일으 킨 때의 그 순간에 일어난 정보 기억은 꽤 오래 남습니다. 보통 점점 살아져 가면서 필요한 정보만 기억됩니다. 그러나 그 정보를 없애는 작업이 그 순간만은 멈추어 버립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기억 정보로 일시적으로 쌓여 버립니다.

겐유: 요컨대 보통 세로토닌 신경이 활발할 때는 해마의 작용에 억제 기능이 작동하지만, 그 순간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것도 개의치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군요.

아리타: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개의치 않는 모든 정보가 흐릅니다. 거기에는 좋고 싫고 하는 어떤 판단도 없이 단지 흘러갈 뿐입니다.

겐유: 선의 깨달음에서 흔히 '지금 여기에 살아 있다' 고 말합니다. 전후제단(前後際斷)이라고 합니다. '앞도 자르고 뒤도 자른다' 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만 있다' 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울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거울은 이전의 순간에 비친 것을 기억하는게 아니라 현재 있는 그대로 비치는 것뿐입니다. 해마 이야기에서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아리타: 그렇군요.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다' 는 것과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취하는 게 아니라 항상 흐르는 그대로이면 좋습니다. 그 의식이 쭉 계속된다는 것은 세로토닌 신경이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세로토닌 신경이 약해지면 뭔가 걱정이 돼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빙글빙글 불안의 회로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겐유: 모든 현상이 흐르고 있다는 것은 '제행무상' 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공(空)' 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공' 은 '목숨의 흐름 그것' 이라는 인식입니다. '흐름 그것' 은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사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두 '색' 이라 합니다. 색즉시공(色卽是空)의 색. '색즉시공' 은 우리가 고정된 실체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흘러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것도 미래의 것도 사고의 대상인 한에서는 '색' 입니다. '색' 으로 파악되는 것은 요컨대 뇌의 언어 기능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리타: 언어는 일시적인 기억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여러 가지를 취사선택하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일시적인 기억을 버리면, 그것은 아마도 그 아래, 즉 대뇌피질 아래의 뇌간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기억과 사고를 바보같이 만들어 버린다

겐유: 인간의 세계에서 기억과 사고(思考)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흐르고 있는 가운데 사고가 일어나면 그 흐름은 중단됩니다. 그 사고 중에서도 더욱 응축된 것을 기억하는 법입니다. 기억된 것, 그것은 실체인 흐름과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사고를 바보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선입니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 글은 운주사에서 펴낸 〈선과 뇌〉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불자정보 911호 |
TEL 02) 2004-8215(直)
FAX 02) 737-0696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포교원(급)안내
• 대구송현동 시내(남대구 IC에서 10분거리)
• 2층중 2층 70평, 옥상 70평 사용가
• 법당, 방3개, 화장실 3칸, 공양간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2800만원(절충가)
• 큰병원 및 시장, 서부정류장 (유동인구 많습니다)
010-3672-8424
010-9431-495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기도 여주 이천간 부발 신원리
• 농가빌라 주택, 4층건물의 4층
• 24평, 법당 외 방2개
• 거실, 주방, 욕실, 베란다
• 건물만 4천 700만원
• 시설비 포함 총 5천 5백만원
• 해외 공부 급 인수하실 분
010-6880-8803

사 찰 안 내
• 위치: 청원군 미원면 운암리 청석굴
• 대지 220평, 요사, 산신 용궁 60평
• 해수관음 모셔져 있음
• 법당, 슬라브 25평, 임야 168평, 밭 754평, 총 1142평
• 가액: 3억 5천만원 정도
010-8862-8092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무안 (목포시내에서 10분 거리)
• 대지 : 230평
• 대웅전 30평, 요사채, 공양간
• 동네 80가구중 대부분 불교신자, 텃밭 있음
• 가액 : 1억 5천만 꼭 하실분 가액 절충가능
010-8207-7488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 팔공산부근
• 사용가능 평수 : 약 1천평
• 가액: 7천 7백만원
• 시설 : 전화로 문의
011-829-7738

포교원(급)안내
• 위치:안산시 월피동
• 평수: 26평
• 법당완벽한 시설로써 즉시 법회 가능
• 전세 500만원 월세 40만원
•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0-3662-5527

도심속의 사찰
• 위치: 부산시 청학2동
• 평수 : 57평
• 완벽한 시설로써 비구니 스님 적격임
• 1층 : 요사채(도시가스 시설) .
• 2층 : 법당과 스님방
• 가액 : 3억5천만원(시설비 포함)
010-3732-5237

포교원(급)안내
• 위치: 경기군포역 부근
• 면적 6평, 방9개
• 시설비 1천만원
• 즉시입주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80만원
• 전출관계로 급 양도
031)427-4477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영천 시내
• 평수 180평
• 산신각, 용왕당 대웅전(23평), 종각 요사채
• 가액: 1억 6천만원 (시설비 포함)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1-532-5919

사찰(전세)양도
• 위치: 경남 밀양시 무안면
• 대지 500평
• 법당 30평
• 삼존불, 천수천안관세음 신장, 산신,칠성탱화
• 요사체, 방6개
• 가액2억(전세 3천만원)
010-4628-3317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김천시 아포읍
• 대지200평,텃밭180평
• 건물연평수 62평
• 주차시설 용이하고
• 조용한 산밑 주변에 저수지도 있음
• 가액 3억8천만원
016-511-2947
054)457-336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남산동 범어사, 남산 전철역 5분거리
• 5층건물 4층 50평
• 보증금 3천만원 월 60만원(관리비포함)
• 시설비 3백만원
• 몸만 들어오시면 됨. 즉시 법회 가능
• 모든시설완비
017-252-272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포항 죽도시장 입구
• 3층건물에 3층
• 전체 80평, 모두 갖추어져 있음
• 법당, 방3개, 공양실, 산업용전기 난방(전기판넬)
• 보증금 700만원, 월세 50만원
• 시설비 3000만원
011-522-6134

사찰(급)안내
• 위치 : 해남터미널에서 3분거리
• 대지 : 총 1320평
• 대웅전 1동, 요사채 3동,
• 부속건물 등등, 관광버스 6대 주차 충분
• 방10개, 심야보일러, 경비시스템
• 가액: 3억 3천만원 (대출 7500포함)
010-2775-3373

수정기공
특강안내
신지식인 대한민국 정부인정 660
2012년 신지식인 최우수상 수상



교 재 : 75,000원 특가 68,000원
정기강의시작 : 매월 첫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6시
장 소 : 수원시 성균관대학역 주변
모집인원 : 매회 8명이내
연 락 처 : 010-3463-7806
홈페이지 : soojung99.pe.kr
수정기공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온라인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현우경' 이야기 (43)

대시의 깨달음 ㊦

신통한 여의주 구해 중생을 구제하니…

대시 일행은 어느날 한 바라문의 집에 머물게 됐다. 그때 용궁에 있다는 붉은 여의주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 여의주는 신통을 부리면 끊임없이 보물을 채워주는 진귀하고도 신기한 것이었다.

"정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용궁 안 용왕이 가지고 있다고 하니 인간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가질 수는 없겠지요"

바라문의 도움을 받은 대시는 일곱 겹의 배를 마련했다. 그리고 한 달을 항해해 보배가 있는 섬에 닿았다. 그곳에는 세상에서 보지 못한 온갖 종류의 보석들이 쌓여 있었다.

대시와 일행은 그 중에서도 값이 나가고 진귀한 보석들만 배에 한가득 실었다. 하지만 대시는 이에 만족하지 않았다. 바라문에게 들었다는 붉은 여의주를 찾고 싶었다. 대시는 상인들을 먼저 돌려보내고 용궁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독사를 만나기도 했지만 두려움을 버리고 그들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니 스스로 물러났다. 그렇게 성문 앞에 도달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용 두 마리가 성문 앞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이 역시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을 내었다. 이에 용은 스르륵 몸을 아래로 낮추고 만다. 그렇게 대시는 그들을 밟고 성 안으로 들어갔다. 멀리서 대시가 들어오는 것을 본 용왕은 깜짝 놀랐다.

"내 성 밖에서는 일곱 겹 못이 있고, 독사가 가득 차 있어 누구도 넘어 올 수 없다. 그대는 어떤 사람이이기에 여기까지 왔는가?"

"사람들은 빈궁하여, 의식을 위해 몸과 마음을 괴롭히며 서로 해치고 속이면서 열 가지 악을 짓습니다. 또한 목숨을 마친 뒤에는 다시 세 갈래 괴로움 속에 떨어집니다. 저는 그들을 가엾이 여겨 구제하려 생각하고 용왕의 여의주를 얻기 위해 멀고 험한 길을 무릅쓰고 온 것입니다. 바라건대 그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용왕은 대시가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내 그에게 공손히 대하며 묻는다. "여의주는 얻기 어려운 물건입니다. 그런데 당신께서는 그것을 얻으려고 일부러 오셨습니다. 만일 그것을 꼭 얻고자 한다면, 넉 달 동안 여기 머무르면서 저의 공양을 받으시고, 또 저에게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삽화 · 강병호

용왕은 대시를 큰 보살로 모시며 그를 존경하고 사모하며 알뜰히 받들어 모셨다. 그렇게 넉 달이 지나자 대시는 가야 할 때라고 알렸다. 그때에 용왕은 상투에 꽂은 여의주를 뽑아 그에게 바치고 이내 서원을 세웠다.

"반드시 부처가 되어 그들을 도탄에서 구제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 시자로 총지제일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살은 승낙하고 다시 물었다.

"그대가 주는 이 구슬의 능력은 어떤가?"

"이 구슬은 능히 세상 안에 필요한 일곱 가지 보배를 공급해 줄 것입니다"

대시는 기뻐 어쩔 줄을 몰랐다. 구슬을 주머니에 넣고 성을 나왔다. 크고 작은 여러 용들은 모두 성 밖에 나와 배웅하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모든 용들이 이렇게 대시에게 우호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그들 중에는 이를 시기질투하는 이들이 있었다.

대시가 떠나는 길에 기다리고 있던 용들은 신통을 부려 대시의 여의주 주머니를 훔쳐 버리고 말았다. 등이 허전함을 느낀 대시가 뒤를 돌아보니 이미 용들이 주머니를 입에 물고 멀리 날아가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 구슬을 얻기 위해 멀고 험한 길을 걸어왔다. 이제 소원을 이루어 본국으로 돌아가려 하는 길인데, 저들이 내 구슬을 가져갔다면 나는 결코 놓아주지 않으리라.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이 바닷물을 다 퍼내 말리고 말 것이다"

대시는 큰 그릇을 가지고 물을 퍼내었다. 몇날 며칠을 잠을 자지 않았고 먹지도 않고 물을 퍼내니 바닷물은 줄어들기 시작했다. 당황한 용들은 대시를 찾아가 물었다.

"당신은 보배를 구해 무엇을 하려 하십니까?"

"일체 중생들을 구제하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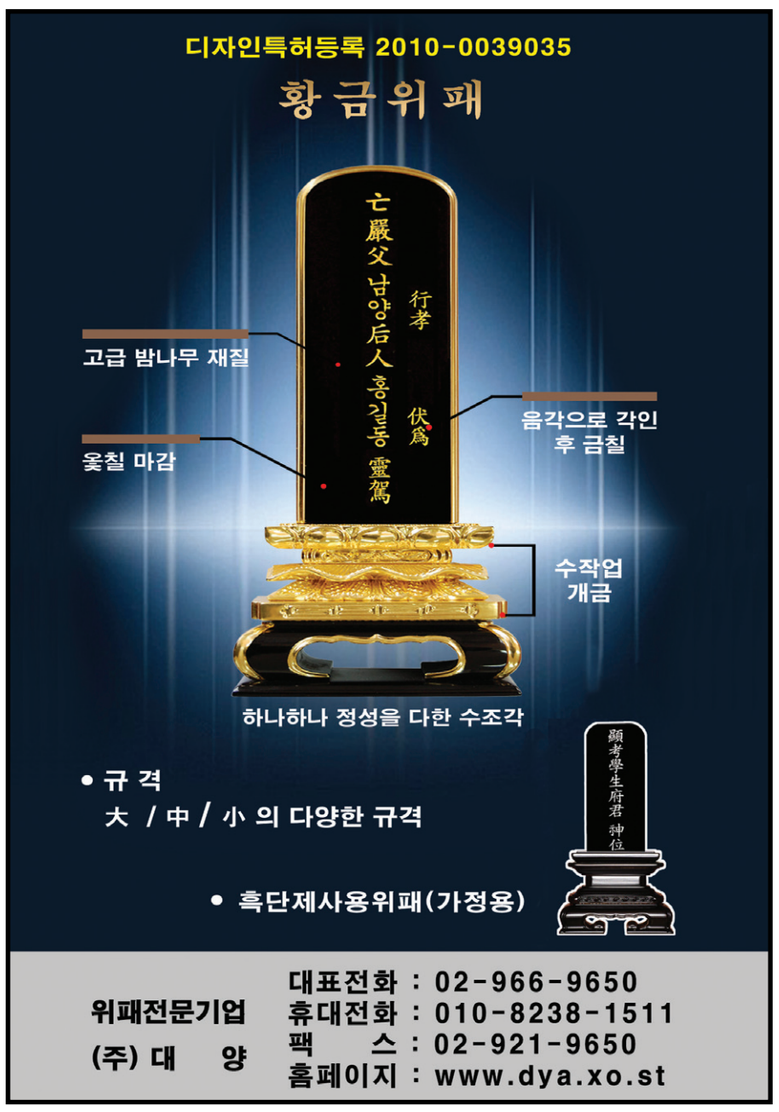
"당신 말대로 한다면 우리 바다 가운데에도 중생이 많은데, 그들에게는 주지 않고 기어이 가지려 하십니까?"

"바다 가운데 중생도 중생은 중생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다지 괴롭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중생들은 돈이나 재물을 위해 서로 죽이고 속이면서 열 가지 악을 짓고, 죽어서는 세 갈래 나쁜 길에 떨어집니다. 나는 그 중생들에게 법을 알려 교화하기 위해 보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선은 가난을 구제해주고 다음에는 열 가지 착한 일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다." 용들은 그 말을 듣고 감동하지 않을 수 없어 구슬을 도로 내주고야 말았다. "당신은 지금 그처럼 쉬지 않고 노력하니 반드시 불도를 이룰 것입니다"

그렇게 대시는 금의환향해 일체중생을 구하는 공덕을 베풀 수 있었다.

구성=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이오칼라지붕공사 (구. 현대칼라지붕공사)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5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일체 만물만생을 다 둘 아니게 집어삼켜라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1(남): 두 번째는 제 개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 30년을 마치고 금년 6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근데 제 공직 생활을 반조해 볼 때 모두 은혜 속에서 살았음을 감사하게 느낌과 동시에 좀더 부드럽게 할 수는 없었나 하는 반성도 해 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의 은혜에 보답도 좀 하고 세금 문제, 어려운 문제를 주인공한테 믿고 놓아서 해결해 보려고 사무실을 열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욕심을 낸 것은 아닌지 또한 부처님과 스님 가르침에 누가 되지는 않는지요. 물론 누가 된다는 생각도 놓아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이에 가르침 바랍니다.

큰스님: 물론 사람이 생명의 근본이 있으면 마음을 낼 수 있고 마음을 내면 몸이 움죽거려야 정상적인 사람이죠. 마음을 내지 못하면 목석이고 또는 몸을 움죽거리지 못하면 불구인이고 또는 육신이 보이지 않으면 무효고, 이렇게 되니까 그 모두가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분수 얘기 했듯이 내려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주 정상입니다. 아래로 들 때는 저녁에 잠을 자는 것이고 위로 올라올 때는 낮에 일을 하는 것이고 그렇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게 낮과 밤이 없으면 못 살듯이 그렇게 작용을 하는 것이 그대로 법입니다. 그대로 법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법을 이끌어 나가는 데는 마음의 채찍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전부, 잘되고 못되고 잘하는 거고 잘못하는 거고 이건 나쁜 일이고 좋은 일이고를 전부 잘들 아십니다. 잘들 아니까 그거를 잘 다스려서 '이게 나쁘게 되는데 이렇게 잘 돌아가게끔, 맑은 물이 나와서 먹게끔 할 수 있는 건 너밖에 없다.' 하고 거기 놨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움죽거리면서 채찍질해 가면서 자유스럽게 살 수 있다 이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질문자1(남): 앞으로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2(남): 전 대전에서 올라온 신도입니다. 저번에 집에서 화단을 전지하다 보니까 잡초가 무성해진 것을 보고 죄다 뽑아 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불현듯 '화초나 잡초가 다 같은 불성인데 어느 것은 기르고 어느 것은 뽑아 죽이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라면 분명히 둘이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꽃은 가꾸고 잡초는 뽑아 버려야 하는지요? 가르침을 바라겠습니다.

큰스님: 그거는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렇지 기르는 것도 없고 뽑아 버린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차를 타고 내렸을 뿐이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타는 거는 화초를 기르는 것이요 내리는 것은 잡초를 뽑아 버린 게 됩니다. 내리는 것도 법 타는 것도 법이듯이 기르는 것도 법 뽑아 버리는 것도 법입니다. 그런데 그 뽑아 버린 것이 그냥 뽑아 버려지는 게 아니라 다시 차를 올라타듯이 다시 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심으로 그냥 그 잡초를 뽑아 버렸을 땐 벌써 내 마음과 더불어 아름다움이 거기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꽃으로 화해서 그 잡초는 다시금 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물이 수증기나 빗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잡초든지 꽃이든지 나무든지 다 먹여 살리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간 보일 때 잡초지 또 한 번 돌아서 아름다움을 꽃피우고 또 나올 때는 꽃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잡초도 잡초대로 그냥 있지 않고, 우리 인간도 인간대로 그냥 있지 않고, 모습도 모습대로 그냥 있지 않고 모두가 화해서 변경이 되고 또 한 찰나 돌아가면서 바뀌지고, 이렇게 세상 만물이 다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이 있고 밤이 있듯이, 안 보였다가 다시 돌아올 때, 예를 들어서 용광로에다가 모든 거를 집어넣어서 다시 생산이 돼서 나오면 그거 가지고서 또 생산처에 나와서 또 다른 걸로 변경이 돼서 다 나가고 또 그것이 헐어지면 용광로로 또 들어가서 다시 생산이 됨으로써 다른 물건으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거는 잡초를 뽑아 버린 게 아닙니다.

질문자2(남): 감사합니다.

질문자3(여): 스님, 저는 너무 감사해서 이 자리에 다시 용기를 내서 왔습니다. 언젠가 스님이 법문하시면서 이 한마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집에 부지깽이 하나라도 늘지 않았으면 어디 나와 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정말 그동안 열심히 했었는데, 이번 토요일이면 새 집에 이사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부산지원 가까이에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 얻었습니다. 또 민기도 참 힘들었는데 며칠 전부터 너무너무 스님을 보고 싶어하기에 오늘 이사할 건데 다음 주에 이사하려고 마음먹고 오늘 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큰스님: 잘했어! 사실입니다. 이 공부 하시면서 부지깽이 하나라도 늘어 가면 늘어 갔지 줄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정말 믿지 않고 배척하고 돌아서는 사람 아닌 다음에야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진실하게 얘기해 드릴 것은, 시주를 할 것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생기면 해야지.' 하고 마음먹지 마십시오. 생기면 생기는 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시주를 한다고 생각을 해 놓지 마세요. 또 어떤 때는 쓸 데도 많은데 돈이 생겼다고 뭉텅 이렇게 해 놨다가 급하다고 그거를 되집어서 쓰지 마시구요, 네? 되집어서, 되나누어서, 떼어서 쓰고 다시 해 놓는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외려 그렇게 되면 그 물건은 가져오고 물건값을 줬다가 물건값을 떼어서 내가 뺏는 거나 똑같으니까 부작용이 납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이렇게 내가 모든 경험에서 여러분에게 이끌어 드리는 말입니다.

질문자4(여): 대구에서 온 신도입니다. 저는 대구에서 영업용 택시를 몰고 있는 여기사입니다. 근데 10년을 넘게 일을 했지마는 이런 체험은 못해 봤어요. 시외 장거리를 가다 보면 속도를 많이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미를 갔다 왔는데 그날따라 차에서 탁 내리니까 하루살이와 날파리, 모기 같은 게 너무 많이 달라붙었어요. 근데 차 앞에 가니까 비린내가 갑자기 그렇게 났어요. 헛구역질이 날 정도로 그만큼 심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여직껏은 그렇게 많이 달라붙어 죽어도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며칠 있다가 구미 장거리를 가게 됐습니다. 톨게이트에서 표를 끊는 순간 '주인공!' 하는 생각이 갑자기 나면서 '주인공한테 모든 걸 맡겨야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

☞ 3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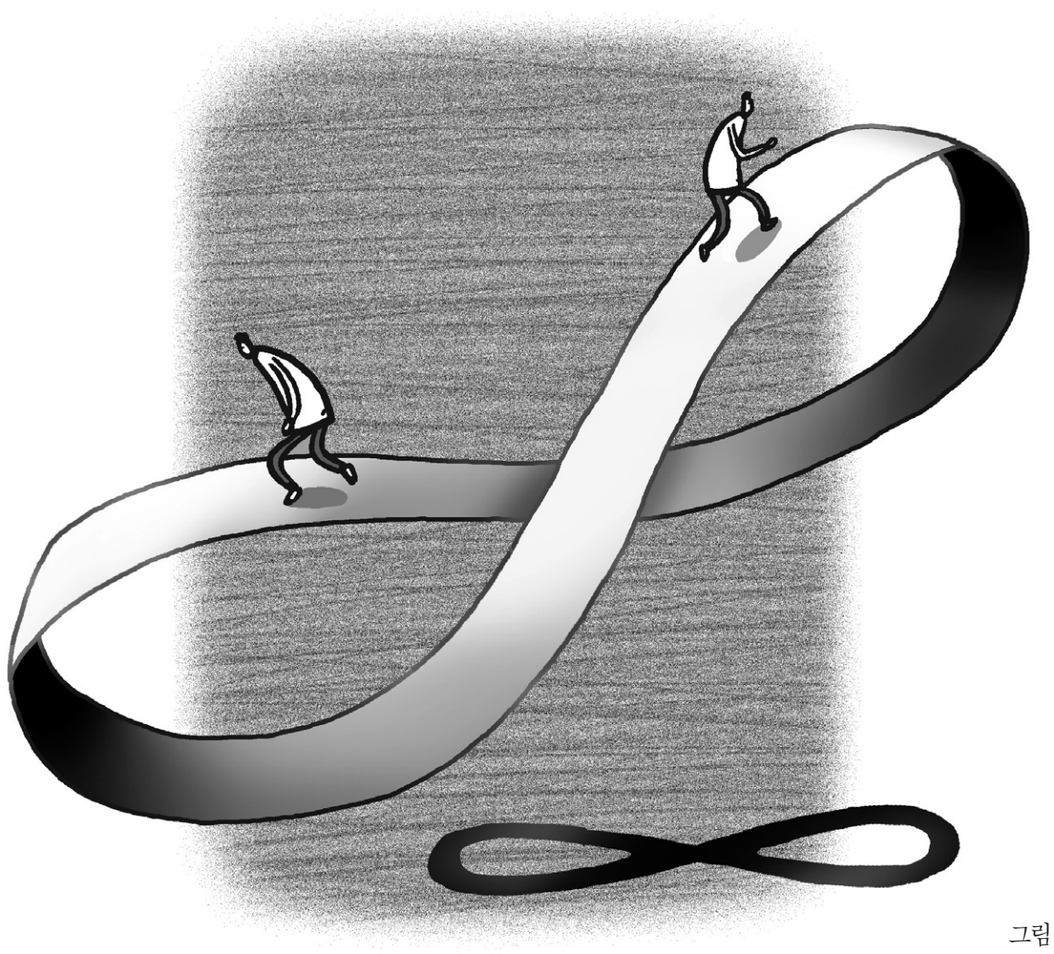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약사여래불의 가피로 몸을 살린다

약사여래불 치유도량

활 인 사



세척력이 강력한
유황 한방비누,활피모

■ 스님께서 수년동안 연구 개발하고,
박정아 의과학박사 (여한약사회장, 경희대외래교수)
가 추천하는 전통방법으로 만든 유황특수 비누입니다.
■ 특징 : 유황이 들어간 천연비누, 무방부제, 무자극,
무색소, 고급비누원료 사용 폼크린징 대용,
건강피부 유지, 애완견 냄새제거
■ 가격 : 특별할인가 2만원

명리학 학인 모집

활인사 주지 덕운 합장 02)3487-2311

초음파 방역 시스템

기화방제소독,방충,훈증

생태계의 변화에 따른 각종 해충 및 흰개미로부터 예방과 살충에 특화된 첨단의 제품으로 문화재, 박물관, 사찰, 한옥, 전원주택, 목구조물, 공공장소, 기타에 사용합니다.

방역, 방재 .소독기술

초음파 기화방역소독기술은 정부에서 시행한 기술재발과제로 상용화하여 보건복지부 보건신기술인증(HT제2008-0001/36호) 을 받은 환경보존형 공간 소독기술입니다.

• 초음파 기화방역소독기술 (내부 분사)
초음파 기화방역소독기술은 열(고온)에 의한 기체화 방식이 아닌, 연속다중 초음파를 이용하여 방역약품을 실온에서 공기보다 가벼운 극 초미립자 상태로 기화하는 환경보존형 공간방역소독기술인 보건복지부 보건 신기술인증기술입니다.
• 초음파 연무방제소독기술 (외부분사)
초음파 연무살균소독기는 일반적인 노즐과 공기충돌방식이 아닌, 압전(PIEZO)진동형 V-Hom Nozzle를 이용하여 방역소독약품을 분포도가 균일한 초미립자 상태로 분사하는 공간 살균,방역 소독기술입니다.

www. dongwhaind.co.kr

동 화 특 수 산 업
031)451-6232 팩스 031)451-6238

공 고

귀의삼보 하옵고!
사단법인 대한불교원조계종 종도여러분
그동안 불법홍보와 수행정진에 매진하고 계시는 종도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공문을 받아보시고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원조계종 총무원 세무번호를 이용하여 많은 금액을 난발하여 국세청에 조사를 2번이나 받고 부득이 그동안 사용하던 종단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용하던 종명은 2012년 10월 31일부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문의 : 총무원장 적홍 만오
010-8009-102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서포항 IC 10분 거리)
◑ 전시관 (2009년 준공) 2층 240평
대웅전, 종각, 지장전(120영가 분 모셔있음)
산신, 용왕전 외 2,500여평
(국도변 마을 안에 있음)
◑ 경주, 대구, 영천 30분 거리
◑ 전시관 고불상(20년 전부터 한국, 인도,
태국, 티벳,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직접구입 한 원품 불, 보살님)
총 구입가격 40억 이상.
◑ 인도 2000년 된 목재화상 고불상,
1000여년된 고불상, 일부 고불상은
훼손이 심하여 크리스탈 개금, 순금 개금불,
티벳에서 구입한 만다라.
◑ 2012년 초파일 참여인원 : 약 2500 불자님
◑ 2층 전시관 완공내역 : 15억원
◑ 눈물흘리는 약사여래불 좌상 있는 곳
◑ 주지스님 직접 양도
◑ 서포항 개발지로서 준 주거지,
매매해 두시기만 하여도 배 이상 매매가 보장.
◑ 가액 : 총 전시관 자금만 받고 26억 급 양도
◑ 인터넷 상에서 포항 성취관 입력하시면
일부 공개됨.

연락처 : 010-4504-0174

모든 게 하나로 돌아가고 하나로 이루어집니다

☞ 29면에서 계속

인공, 너만이 해결할 수 있잖아! 죽게 하는 것도 살게 하는 것도….' 그러고 맡기고 갔는데 구미에 도착했을 때는 하루살이 한 마리가 붙어 있어요. 그래 그날 내려올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속도를 100㎞를 넘게 냈는데도 나방이 한 마리도 붙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얼마 있다가 장거리를 가게 돼서 아무 생각 없이 표를 끊고는 그냥 고속도로에 올렸는데 구미에 도착하니까 너무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막 비린내가 나고 너무 구역질이 나고 못 견디겠더라고요.

관했을 때는 되는데 관하지 않았을 때는 안되고, 마음을 냈을 때는 되는데 맘 내지 않았을 때는 안되더라고요. 여러 번을 그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또 갈 기회가 있어서 또 그런 식으로 마음을 내고, 주인공 자리에 모든 걸 맡기고 갔는데 단 한두 마리 정도 붙어 있지 더 이상 붙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또 감사했고요.

근데 왜 마음을 냈을 때는 안 죽고 안 냈을 때는 죽는가 하는 그 의문이 아직도 안 풀려요, 스님. 그러고서 얼마 전에 또 시골길을 갔는데, 시골길은 원래 하루살이 모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도 그날은 막 달라붙는 순간 주인공 자리에다 탁 맡겼습니다. 맡겼더니 오다가도 전부 다 차 옆으로 피해 가더라고요. 그래 천평 와서 내려서 보니까 몇 마리 안 죽었더라고요. 그렇게 관했을 때는, 마음을 딱 주인공 자리에 맡겼을 때는 안 죽었는데 맡기지 않았을 때는 왜 죽는 겁니까?

큰스님: 이게 말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음을 내면 그쪽에서도 전깃줄이 오듯이 이렇게 와서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돼요. 그 마음이 통해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그냥 하나로 불이 들어오듯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찰나에 그 하루살이나 나방은 다시 화해서 다시금 재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묘법인지 모릅니다.

질문자4(여): 예. 정말 감사했습니다.

큰스님: 그래서, 우리 마음공부 하는 분들이 잘 들으세요. 정신계 과거 부(父)와 현실 자(子)가, 생각을 안 했다 하면 부로 하나가 돼 버리고 생각을 냈다 하면 자로 하나가 돼요. 그래서 자로 하나가 되니까, 움죽거리니까 법이 되고 법신이 되고요. 또 그냥 생각을 내지 않는다면, 주인공에다 맡기면 그냥 부로 하나가 돼 버려요.

즉 말하자면 당신과 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고, 한 부부가 있어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말을 할 때 "당신, 이런이런 일을 하는데 나 좀 도와줘!" 이런다면 바로 부부의 마음이 하나가 돼 버리죠. 하나가 돼서 남편의 마음과 그냥 같이 해 주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인과 남편이 둘이 아니에요. 하나가 돼서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적합하게 해 나가죠. 그런데 또 남편한테 얘길 하면서 "이걸 하는데 당신도 좀 도와줘." 하면 그냥 남편이 부인으로 하나가 돼 버려요. 부인에게 한마음이 돼 버려요. 그래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이 적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돼서 되는 게 아니구요, 모든 게 하나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로 돌아가고요. 그러니 그것이 부와 자가 상봉해야, 우리가 '견성이다' 하고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둘로 보니까 아니 되죠. 때에 따라서 이거를 할 때도 하나가 돼서 하고 저거를 할 때도 하나가 돼서 하고, 꽃을 볼 때는 꽃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고, 이렇게 그냥 하나하나 찰나찰나 바뀌면서 돌아가면서 나투는 거죠. 그래고런 조끄마한 체험이 바로 이 세상만사를 다 체험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줄을 잡고 나가는 게 '아, 이런 거로구나!' 하고 잡고 나가는 게 바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반야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성줄.

질문자4(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님, 한 가지 더 감사한 인사를 드립니다. 제 딸이 7월에 턱 수술을 했었어요. 병원에 입원시키는 순간 모든 걸 주인공 자리에 맡기고 들어갔습니다. 수술실에 넣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었고 저의 딸한테도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어요. "주인공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들어가라. 큰스님께 항상 네 마음의 전화를 해라." 그러고 수술실에 들여보냈죠. 그런데 두 시간 반 걸린다고 한 수술이 무려 다섯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턱 뼈를 깎아 내고 이러는데, 수술실에서 열두 팀이 나왔는데 마취가 깰 때에 전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떨고 그래요. 그러나 저의 딸은 병실에 와서도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큰스님, 이 공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자5(남): 큰스님,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의 형수가 심부전증으로 벌써 1년이 넘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마음으로 형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애를 써도 그렇게 낫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스님 말씀대로 제 주인공한테 계속 부탁을 했는데 결국 주인공이 인도한 대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스님, 좋은 가르침 주십시오.

큰스님: 주인공한테 나를 낫게 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불을 켜려면 전깃줄과 전깃줄을 갖다가 그냥 들이대서 매라 이거죠. 그래야 불이 들어오지 '이 줄을 붙게 해서 그저 병이 낫게 해 달라.' 이런다면 벌써 둘이 되잖아요. '너만이 낫게 할 수 있어. 붙일 수 있어.' 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한테 그게 필요합니다. 어떠한 문제든 간에 본인한테 관법을 가르쳐서 모든 거를 거기다가 맡겨 놓고 '너만이 이것을 싹 낫게 할 수 있다.' 하고 관하라고 그러세요.

질문자5(남): 고맙습니다.

질문자6(남): 저는 법형제회 심의회 회원입니다. 큰스님께서 매번 저희들을 위하여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자상하게 법을 일러 주시니 그 은혜야말로 하늘과 같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큰스님을 영원한 스승으로 마음 깊이 모시고 따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옛날 어느 조사께서는 "부처가 이 자리에 있다면 감히 죽여서 개나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살불살조(殺佛殺祖)의 공안(公案)이 되었습니다만, 부처님의 은혜가 하해와 같은데 감히 스승을 죽이겠다니 이 무슨 망발인가 싶습니다. 스승을 받들어 모시면서 가르침을 배우는 도리는 어떠해야 하는지 지도 말씀을 청합니다.

큰스님: 그건 아주 간단한 일이죠. 하하하…. 부처를 말하듯이 아까도 부부 얘기를 했습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팔만대장경을 집어삼키지 않는다면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과 둘이 아니다 하는 뜻은, 부처님의 마음을 집어삼킨다면 어디 제 마음과 둘이겠습니까. 그것이 선의 도리에서는 부처님도 집어삼키고 일체를 집어삼키는데 있는 겁니다, 모습을 집어삼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십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마음을 줬는데 남편이 그냥 아내 마음을 집어삼켰어요. 집어삼키고선 일을 해요. 또 그 아내가 남편한테 말을 해 가지곤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다 그냥 삼켜 버렸어요. 삼키고는 일을 해요. 그럴 때에 찰나찰나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과거 부, 자기 정신계의 자기와 현실계의 자기가, 내가 아까 얘기했죠? 생각을 안 할 때는 부로 하나가 되고, 즉 정신계의 부가 되고, 내가 생각을 하고 일을 하려고 했을 때는 부가 자로 마음이 하나가 돼서 그대로 법신이라고요. 그러니까 일체를, 거지든 부처님이든 일체 만물만생을 다 둘 아니게 집어삼켜라 이런 뜻이죠.

> 우리가 그대로 법을 이끌어나가는 데는 마음의 채찍이 필요합니다.
> 사람들은 전부 잘하는 거고 못하는 거고,
>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를 너무 잘들 아십니다.
> 그러니까 그거를 잘 다스려서 '이게 나쁘게 되는데 잘 돌아가게끔,
> 맑은 물이 나와서 먹게끔 하는 건 너밖에 없다.' 하고
> 거기 봤을 때 비로소 우리가 움죽거리면서 채찍질해가면서
>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6(남): 예. 말씀 감사합니다.

큰스님: 그러니 먹어도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먹누?

질문자7(남): 큰스님을 오늘 이렇게 만나 뵙고 좋은 말씀을 들으니 제가 잘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이 법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신도들께 제가 불심을 갖게 된 동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고자 합니다.

저는 양산에 있는 절에 몸을 담고 있는 신도입니다. 근데 오늘 사실상 제가 여기 나온 것은, 저의 부친이 지금 암으로 3년을 고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부친을 간호하던 모친도 또 지금 몸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큰스님을 뵈오면 좋은 설법과 영험이 있다 해서 욕심상 나왔습니다.

그렇지마는 제가 불심을 갖게 된 동기는, 군대에 있을 때 장기 복무 하다 보니까 양산에 각종 예비군 및 방위병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나고 하는 일들이 잘 안됐는데, 어느 날 책을 정리하는 도중에 79년도에 발행된 『불교성전』이란 책을 발견했습니다. 참 낡았었지요. 거기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떻게 해서 탄생을 하셨고 하는 것을 쭉 읽게 됐습니다. 읽고서 하나하나 가슴이 메이지 않는 데가 없어서, 절에 가서 부처님께 절을 해 봤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절도 어떻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가서 "몇 번 합니까?" 하고 물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제는 부처님 앞에 가도 어떻게 하는지 좀 압니다. 양산에 포교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월 초하루, 그다음 관음재일, 지장재일, 그다음에 칠월 칠석, 그다음에 칠월 백중, 이렇게 가 봤습니다.

불교에 인연이 된 동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보다시피 몸이 뚱뚱합니다. 술도 좋아했고 모든 것을 다 좋아했습니다. 사나이가 하는 거라면 다 했습니다. 장사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도 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통풍이 왔습니다. 어떤 절에 갔을 때, 거기에 계신 스님께서 침을 놓으시는데 30일간을, 하루 맞을 때 한 백 몇 대를 맞았습니다. 그렇게 맞아서 통풍은 거의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심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 불심을 바로 가지게 됐느냐 하는 것은 오늘 큰스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한마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저희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경을 읽거나 예불을 모시거나 스님이 가르치시는 여러 가지를 하거나 그런 모든 게 다 불정심이 있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부친께서도 진통이 온다 하면 항상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 진언을 외웁니다. 진언을 외우면서 하니까 내 이 손이 가면 통증이 온다든가 하던 것이 사라지고 그냥 스르르 주무시고 이렇게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냐. 낫게 해 달라, 낫게 해 달라 하고 부처님 전에 불공을 드리는 것보다도 우리가 불정심을 가지고 내가 찾는다는 그 뜻을, 신도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라지 말고 항상 남한테 베풀면서, 베푸는 대가를 내가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불심을 가지고 항상 같이 해 나간다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또 내가 잘못하겠다 싶을 때는 바로 어떠한 부처님께서 나투셔서 내 친구나 다른 어떠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잘못을 막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을 행한다 할 때는 또 막아 주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불정심이요, 바로 불심을 진정하게 믿는 것이고, 또한 큰스님의 말씀과 같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의 법회에서 진짜 좋은 말씀 듣고 돌아가겠습니다.

※위 법문은 1993년 10월 17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른 불자가 됩시다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108 진(眞) 참회문



바른 신앙, 바른 수행의 길잡이!
– 바른 불자가 됩시다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108배와 함께 하면 전생의 악연이
사라져 모든 장애가 없어지게 하는
108 참회문 – 108 진참회문
☏ 031-534-3373

지혜와 공덕, 깨달음
성취하는 생산적인 도道!



불교TV 방송강의中
타방정토와
유심정토를 포용하는
《일심정토 염불수행》
정목스님 지음
변형 신국판 | 칼라 | 232쪽
13,0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판매

우리 시대의 원효 정목 스님이 들려주는 정정취의 깨달음
환경과 의식을 창조하는, 체험으로 증명되는 마음의 과학!

원효 대사의 일심정토 염불수행은 독창적인 정토사상이요 순수한 한국불교이며, 중생을 구제하는 가장 대중적인 수행법이다. 염불삼매와 관불삼매를 성취한 정목 스님은 누구든지 염불수행을 통해 안심을 얻고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도록 대승불교의 신행체계를 확립했다.

양산 정토원: T.055-375-5844, 아미타파
(cafe.daum.net/amitapa)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불자 세상보기

남북관계의 새로운 동력 찾기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지난 10월 13일 금강산 신계사 복원 5주년 남북공동기념법회를 다녀왔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교류가 위축된 가운데도 신계사 복원을 기념하는 법회는 매년 열렸다.

가을 추수철이라 북녘 들판에는 가을걷이가 한창이었다. 남측 들녘은 기계로 수확이 한창인 반면 북측 들녘은 협동농장 근로자들이 나와 벼 베기에 한창이었다. 멀리 우마차도 보였다. 벼 베기만 봐도 남과 북의 국력 격차를 느낄 수 있었다.

북녘 풍경은 한가로웠지만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와 남측의 5·24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는 것처럼 보였다. 한창 단풍철임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국제관광지구에는 관광객을 볼 수 없어 적막했다.

장기 방치된 관광시설과 버스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한다. 현 정부에서 새로운 동력을 찾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은 것 같다. 이제는 다음 정부에서 새로운 동력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남과 북의 지도자 교체와 함께 주변국가들에서의 권력교체가 마무리되는 새해가 오면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다. 남북관계의 장기 교착에 따른 부작용을 경험한 남과 북의 새 지도부는 관계복원을 위한 동력 찾기에 몰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유엔차원의 제재가 지속되고 있고,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천안함-연평도 사태, 5·24조치 등 남북관계에는 해결하지 못한 현안이 많아 짧은 시간에 관계복원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남북관계의 누적된 현안을 돌파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정상회담이다. 그래서 남측의 새 정부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의 남북관계가 비정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새 지도자는 김정은과 정상회담 추진, 개성공단을 비롯한 경제교류 활성화, 인도적 지원 제공, 금강산 관광 재개 등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대선과정에서 후보들이 포용정책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새로운 대북정책 또는 제3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기 때문에 새 지도자는 초당적 협력을 받아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모색할 것이다.

새 정부는 남북 간의 기존합의들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기본합의'를 만들고 이에 기초해서 남북 간 평화협력을 제도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선언에는 남북연합을 실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음으로 이러한 합의들을 되살려 남북연합의 기초를 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과거 합의를 완전히 되살릴 수 없기 때문에 새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또는 고위급회담을 개최하여 새로운 남북기본합의를 만들고 관계개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새 정부의 지도자는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경제발전과 대외신인도 제고에 중요한 요소란 점을 인식하고 갈등관리 차원의 남북관계 진전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의 안정적 빌전을 위해서는 정경분리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정경분리를 내세운다고 해도 결국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전술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변화무상한 정치적 파고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경분리원칙, 관민분리의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사업이 중단되고, 천안함 사태로 인한 '5·24조치'로 개성공단 이외의 남북경협사업이 전면 중단된데 따른 남북경협사업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경협사업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은 정부가 정경분리원칙을 견지하면서 남북경협을 지속하라는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대남 도발에 따른 대북제재와 압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위기수위를 높였다. 대북제재는 북한의 대중국의존도를 높이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했다.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일방적 지원이나 시혜차원을 넘어 남과 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금강산 관광사업이 중단된데 비해 개성공단사업이 지속할 수 있는 데는 호혜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일 것이다. 차기 정부는 개성공단의 사례를 확대 적용하여 남북한 경제의 상호의존성과 북한의 대남의존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사부대중 칼럼

'삼성그룹'이 천박해서는 안 된다



법응 스님
불교사회정책연구소

삼성그룹, 1938년 3월 고 이병철 회장이 세운 삼성상회로 출발하여 오늘의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삼성그룹은 무역·기계·조선·건설·전자·화학·섬유·제지·유통·금융·서비스·식품·문화예술계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영업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글로벌 브랜드컨설팅 회사인 인터브랜드가 최근 발표한 '세계 100대 베스트 브랜드 조사'에서 삼성전자가 9위로 뛰어올라 아시아 기업 중 1위를 차지했다.

삼성그룹은 대한민국 경제 산업계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으며, 문화재단, 생명공익재단, 복지재단, 호암재단을 운영하면서 우리 사회에 인문학적 가치의 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려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이 거대한 삼성그룹을 경영하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닌 결국 사람이다. 사람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 부를 창출하고 있으며 세상과 관계하고 있다. 단지 한 국인이라는 이유로 애플과의 소송에서 삼성이 승소하기를 바란 이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국민의 마음이다.

기업가, 특히 한국의 재벌에게 솔직히 학자나 종교인에게 요구하는 정도의 도덕성을 바라는 것은 무리다. 그러나 예로부터 작은 규모든 큰 규모든, 장사하는 이들에게도 '상도덕'이라는 것이 있었다.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써 공존공영의 윤리를 지켜야 할 책임은 경영인에게도 똑같이 주어진다. 최소한 이웃에게, 그리고 공적 개념을 갖는 지역공간에 위해(危害)를 가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삼성이 조계사 코앞 1,700여 평의 대지위에 15층에서 20층 규모의 대형호텔을 신축할 예정이란다. 이 소식은 지난해부터 나돌더니 근래 사실로 확인되었다.

역사문화지대의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우리가 소위 '딴지'를 걸지 않는 것은 모두가 그곳을 공적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이윤추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개발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경우, 갈등을 촉발한 당사자가 문화재보호법 등 법률적 관계와 행정기관의 허가를 운운하는 것은 평범한 이들에게도 지탄을 받는 매우 저급한 행동이다.

현장에 대한 공간인식, 역사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과 상식을 갖추고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삼성이란 굴지의 대기업에서 조계사-인사동 지역에 대형호텔을 건축해서 운영한다는 발상 따위는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도 원석 자체보다는 원석을 어떻게 가공하여 어떤 모양으로 디자인해 내놓느냐에 따라 그 값어치의 정도가 달라진다. 아름다운 꽃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주변의 경관이다. 이 말은 거꾸로 주변의 경관 여하에 따라 그것의 가치가 저평가되고 생명력을 잃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문화재나 보호시설 주변의 건조물도 결코 이와 다르지 않다. 제아무리 현대식의 번듯한 호텔건축물이라 해도 역사의 향기가 짙게 배인 전통문화 지역이나 교육시설의 주변에 위치한다면 그 자체가 문화와 교육에 대한 테러요, 우리 사회 공적 자산에 대한 침해다.

용인의 삼성 호암미술관은 전통스타일로 꾸며져 있고 지근거리에 조선시대의 왕릉을 방불케 하는 고 이병철 회장의 묘소가 있다. 삼성이 그 소유의 토지 내에서 자신의 시설을 보호하는 것을 무어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삼성은 이러한 보호개념을 사회의 공적 영역으로는 왜 확대하지 않는가? 자신들이 소유한 문화재를 그저 세금포탈이나 비자금 세탁을 위한 도구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삼성그룹은 민간으로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수집해서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용인 호암미술관과 그 수장고에 보관 중인 문화재에 대한 공식 통계가 공개된 적은 없다. 삼성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있다면 보유한 문화재들을 낱낱이 공개해서 민족문화유산의 공공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천명해야 한다.

조계사-인사동 일대는 가시적인 담장이 없을 뿐이지 보호지역으로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묵시적 마음의 경계가 있는 지역이다. 문화적 양심과 사회적 책임이 있는 경영자라면 결코 고층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 삼성이 이 지역에서의 호텔 신축을 없던 일로 하기를 바란다.

社說

새로운 신행 트렌드를 기대한다

'부처님 교화공원'이라고 명명된 새로운 신행·포교도량이 문을 열었다. 화성 신흥사옆의 야산을 공원화 한 '부처님 교화공원'은 2008년 시작해 최근 조성을 마친 대작 불사로 규모만 18,500㎡(5600평)에 이른다. 재원도 44억 원이 투입됐다.

'부처님 교화공원'은 부처님 초전 법륜부터 제1차 경전 결집까지 총 13장면으로 구성돼 있으며, 부처님 팔상성도, 〈부모은중경〉도 석판으로 꾸며졌다. 조성된 석상 앞 안내판에 서면 당시 상황을 설명한 경전의 법문도 들을 수 있다.

태양광 조명을 통한 친환경 불사와 부처님에게 올리는 헌화의 의미를 담은 야생화 조경도 눈길이 가는 부분이다.

이 같은 시각과 청각의 조화는 40년 어린이 포교에 매진해 온 신흥사 주지 성일 스님의 원력의 집대성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목표에 이르면 안주하기 마련이지만 스님은 변화하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보인 것이다.

무엇보다 공원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통해 부처님을 만나고, 교화 이야기를 알아가는 도량은 한국불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불사다.

평생을 어린이 청소년 교화를 해온 성일 스님은 "부처님의 교화 이야기를 통해 삶의 지혜를 얻고 희망찬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화성 신흥사는 공원을 가족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가족 해체의 시대, 온 가족이 모여 부처님 법을 만나며 바른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도량이 되겠다는 것이다. 화성 신흥사가 이끌 새로운 신행 트렌드를 기대해 본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개신교

2010년 10월 이맘때다. 서울 봉은사 법당에서 개신교인들이 예배를 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커졌다. '찬양인도자 학교 주님의 향기 6조' 소속이라고 밝힌 젊은이들이 봉은사 대웅전 안, 미륵전 앞 법당 앞 등에서 "우상은 무너지고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라고 예배를 봤다.

이 동영상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켰고, 개신교가 조직적으로 사찰에서 땅밟기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결국 찬양인도자 학교 관계자와 학생들은 봉은사를 찾아 사과까지 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지만, 개신교의 작태는 여전하다. 10월 14일 서울 봉은사 경내에서 한 사람이 '부처님 계신 곳 좋은 만남'이라는 제하의 CD를 배포했다. 종무원들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CD를 재생하니 신성종 충현교회 前 담임 목사의 설교가 담겨 있었다. 설교라는 것도 신 목사는 자신이 본 지옥에서 부처님과 공자, 유명 스님들이 있었다는 허무맹랑한 소리였다.

봉은사 측도 "2010년 봉은사 땅밟기 사건에 이어 이런 지능적인 선교활동이 펼쳐져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지난 9월에는 40대 목사가 대구 동화사에 침입해 탱화에 낙서를 하고 청수 그릇에 방뇨를 한 훼불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상식 이하의 행동은 사회에 회자됐고, 문제가 불거지자 대구 기독교계가 동화사에 사과하기도 했다. "성령이 이끄는대로 행동했다"며 훼불을 저지른 목사는 결국 법정 구속된 상태다.

자신의 종교 교리를 다른 사람에 전달하는 행위를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웃 종교를 존중하고, 상식이 허용하는 선에서도 포교와 선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같이 이웃 종교를 기망하는 공격적 선교는 결과적으로 자신에게도 도움되는 행위가 아니다. 자신의 종교가 소중하면 남의 종교도 소중한 법이다.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훼불사건.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고 했다. 일부 개신교도로 인해 선량한 종교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들의 자성을 다시 촉구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 82기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 (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2년 11월 18일까지
◆ 개강일시 : 2012년 11월 19일 (월요일) 개강. 매주 (화, 금) 오후 5시~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가을맞이 현불샵 상품 대잔치

다향정 캐릭터 차걸이 핸드폰걸이


부엉이걸이

다향정 제품은 100% 수공예 작품이고,
모든제품을
다향정에서 직접 제작합니다.
바느질 한 땀 한 땀에 구매하시는 분들의
소중한 마음을 담아
최선을 다해 만들고 있습니다.


움자차걸이 4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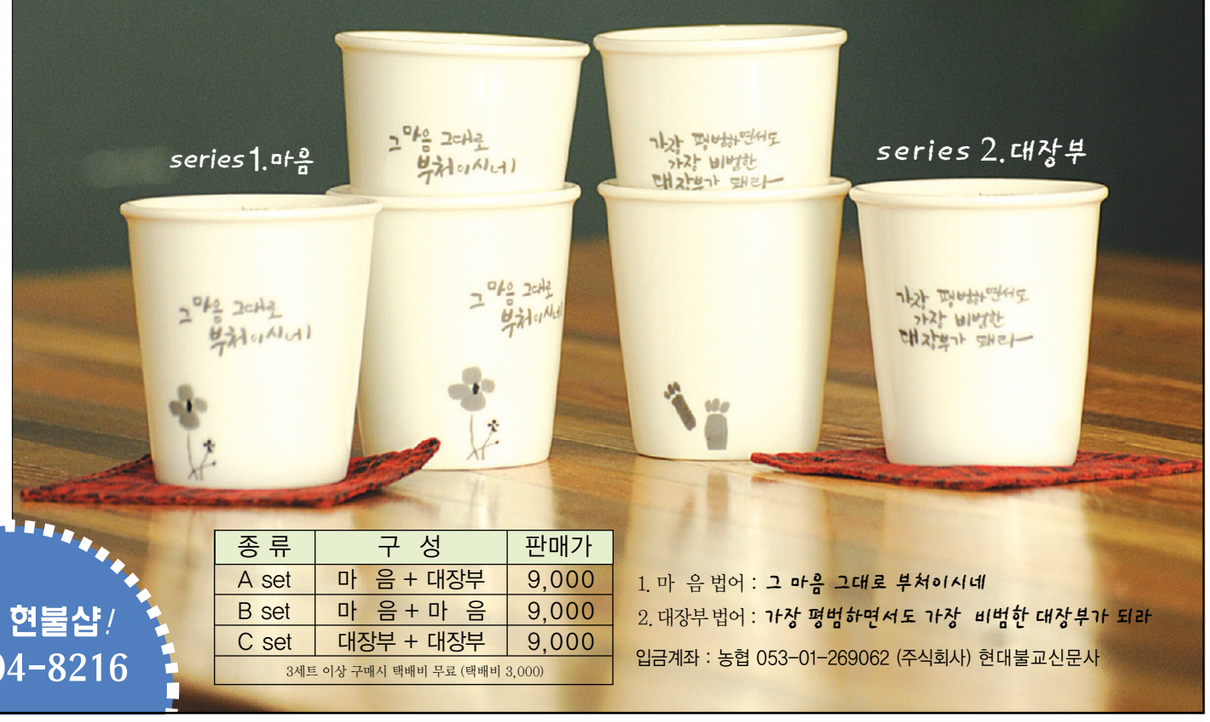
종 류	가 격	제 조
움자차걸이(4색)	33,000원	국내제작
부엉이걸이(大)	20,000원	국내제작
부엉이걸이(中)	15,000원	국내제작
부엉이걸이(小)	10,000원	국내제작
목어걸이	15,000원	국내제작
부엉이 향낭	15,000원	국내제작

[계좌 : 053-01-269062 농협.(주)현대불교신문사]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지구 환경을 해치는 종이컵 대신 이제부터 (법어가 담긴 에코컵) 을
사용하세요. 늘 곁에 두고 음미하고픈 대행스님의 법어!

도자기 법어가 담긴 에코컵



종 류	구 성	판매가
A set	마 음 + 대장부	9,000
B set	마 음 + 마 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3세트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택배비 3,000)		

1. 마 음 법어 :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2. 대장부 법어 :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되라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십장생 福 포대화상 도자기



십장생 복 포대화상 도자기를 모셔둔 家에는 언제나 밝은 웃음이 그치지 않고 하는일 마다 만사형통하여 큰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매산 김선원


청곡 이한동

천하를 다 포용하고도 남을 큰배와 언제나 밝게 웃는 모습으로 포대자루 속에든 복을 꺼내어 중생에게 나누어 주시는 포대화상 (앞면)

도자기 옆면과 뒷면은 십장생 그림으로 사슴이 불로초를 물어다가 거북에게 건네주는 신비한 장면이며 아래위 여백을 살려 시원하게 처리 하였습니다.

「KBS 진품명품」에서 해박한 지식으로 서예 감정을 하여 그 이름을 떨치신 **매산 김선원 교수**님의 글씨와 한국 화단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소림사 한국본부문화원 미술원장을 맡고 계신 **청곡 이한동 화백**의 그림으로 합작하신 십장생 포대화상 도자기

※ (높이 37Cm× 둘레 100Cm 제조원 여주 다양도예 최고급 여주 백자
(손으로 일일이 만든 작품이라 약간씩 차이가 있음)

도자기 선물 SET

도자기 외 사은품 6종 가격
할인가 ₩ 99,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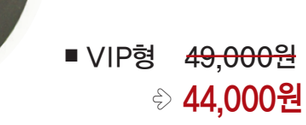
1 십장생 장수 반상기 세트 6P (밥그릇, 뚜껑, 국그릇, 2벌)



세끼 식사를 거르지 않고 제대로 하는 것이 천가지 보약보다 낮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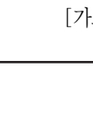
중요한 시사를 하는 반상기(밥그릇, 뚜껑, 국그릇) 또한 소중하게 선택되어야 합니다.

2 소품 연화 다기 5P



짙은 약이나 차를 따라 드실 때 편리한 소품으로 된 약찻잔 5피를 청곡화백의 작품으로 연꽃이 들어간 예쁜 잔입니다.

3 용달마 순금카드 1점



달마 순금카드를 남편 지갑에 넣고 다니게하면 늘 남편을 지켜 줄 것입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장미목 미니찻상





장미목에 우레탄 칠을 한 미니찻상입니다.
찻잔 받침없이 여러분이 담소 나누실때
매우 실용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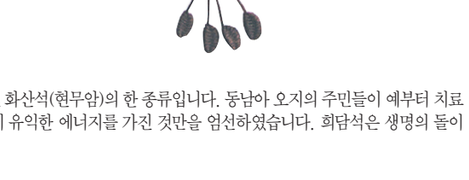
찻상이 오래사용해서 상처가 많이 나거나
찻상으로 쓰기 힘들때 화분받침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 15,000원

가로 515㎜ × 세로 115㎜ × 높이 35㎜

3만원 미만 주문시 배송시 택배비 2,900원 별도.

[계좌 : 053-01-269062 농협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받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2,300원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 (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과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